



THE THINNEST
TOURBILLON
MOVEMENT
IN THE WORLD

BVLGARI

OCTO

finissimo
TOURBILLON

스위스에 위치한 불가리 타임에서는 고난도의 워치 제작 기술로 최고의 컴플리케이션 워치 까지도 모두 인하우스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옥토는 팔각형 케이스로 강렬함과 카리스마로 차별화되며 남성 위치를 지배해 온 전통적인 기준들을 초월합니다. 완벽함을 상징하는 이 팔각형 케이스의 110개 면은 모두 수공 브러싱과 폴리싱으로 마감되었으며, 불가리의 자사 크로노그래프 메커니즘의 무브먼트는 완벽한 규칙성과 정밀함을 구현합니다.

*«Details make perfection,
and perfection is not a detail»*

Leonardo da Vinci



Style

조선일보

SPRING 2015

Special
ISSUE
멈추지 않는 도전과 진화, 시계
2015 BASELWORLD



OMEGA



Speedmaster
GEORGE CLOONEY'S CHOICE

청담 부티크 02 511 5797 • 신세계 강남점 02 3479 6025 • 롯데 잠실점 02 2143 7266 • 현대 무역센터점 02 3467 8632
현대 목동점 02 2163 1283 • AK플라자 분당점 031 708 5520 • 현대 대구점 053 245 2249 • 현대 부산점 051 667 0417

Ω
OMEGA

Style

조선일보
Special Edition



08 SHOWTIME 2015년 3월 19일, 어김없이 가장 최대의 시계 박람회, 바젤월드의 포문이 열렸다. 바젤 시내 곳곳을 수놓은 시계 축제의 현장을 생생하게 전한다.

10 세계 시계 산업의 성장 동력, 바젤월드 올해는 바젤월드 현장을 취재한, 총 56페이지에 달하는 스페셜 에디션을 독자들에게 전한다. 바젤월드의 현장 분위기와 시계 산업의 동향을 담은 리포트 기사로 <스타일 조선 바젤월드 스페셜 에디션 2015>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한다.

12 GREAT EFFECT 시계 박람회에서 그 무엇보다 주목받는 것은 놀라운 소재와 기능으로 무장한 하이 컴플리케이션 워치다.

14 ULTIMATE BRILLIANT 환상적인 예술혼이 담긴 경이로운 주얼리 워치 컬렉션의 세계.

16 PERFECT GAME 컬렉션 의상을 반영한, 액세서리보다 스타일리시한 워치가 등장했다. 기능과 디자인, 어느 것 하나 뒤지지 않는 패션 워치를 만나본다.

18 LEGENDARY WATCHMAKERS 시계 역사에 큰 획을 그은 3인의 전설적 워치메이커를 소개한다.

20 TINY ELEGANCE 올해 바젤 페어의 여성 워치 트렌드는 초미니 사이즈 워치였다. 작고 반짝이는 것에 열광하는 여성의 손목에서 보석보다 눈부시게 빛날 미니 타임피스.

24 BIG MATCH 2015 S/S 컬렉션 키 룩(key look)과 바

젤에서 방금 도착한 최신 워치의 믹스 매치.

27 2015 BASEL STAGE 스포츠 워치부터 하이 컴플리케이션 워치까지 바젤월드를 수놓은 진정한 스타, 2015 뉴 워치 컬렉션.

36 THE DREAM FACTORY 바젤월드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백미는 바로 시계 공장 투어다. 시계 제작 과정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모리스 리크로아 매뉴팩처에 <스타일 조선일보>가 직접 다녀왔다.

42 BE GENTLE 올해 바젤월드에서는 디자인과 성능, 합리적인 가격까지 갖춘 엔트리 워치가 대거 출시되었다. 기계식 시계를 처음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사회 초년생의 앞길에도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엔트리 워치 리스트.

44 DYNAMIC DANDY 활동적인 얼리어답터 남성들을 위해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구성으로 퍼스트 워치의 가치를 충분히 갖춘 엔트리 워치 컬렉션.

48 KEEP THE TIME 보기만 해도 흐릿한 시계 컬렉션의 소장 가치를 높이고, 컬렉터의 자부심까지 채워주는 워치 액세서리 컬렉션.

52 ARTISTIC WONDER 바젤월드는 세상의 모든 시계를 모아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규모의 워치 박람회다. 궁극의 아름다움과 시계로서의 가치를 모두 겸비한 메티에 다르(Metiers d'Art) 컬렉션을 만나보자.

SHOW TIME

08



LEGENDARY WATCHMAKERS 18



2015 BASEL STAGE 27



BIG MATCH 24



THE DREAM FACTORY

36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카탈로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이사 | 이석기 stonelee@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배미진 mijin@chosun.com 에디터 | 권유진 yjkwon@chosun.com
에디터 | 김지혜 jihye@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중석 adjoons@chosun.com 조동일 cti@chosun.com
재무 | 이민희 mhlee@chosun.com 분해 - 재판 | 사법 그래픽스 인쇄 | 타라타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퍼리온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529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인동,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ENDI

TIMEPIECES

Punctually
Unpredictable

MOMENTO FENDI



Jewel SECRET GARDEN

바젤월드의 수많은 시계들 사이에서 아름답게 피어난 주얼리 컬렉션.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화이트 골드와 머더보브를 소재를 다해 꽃봉오리를 완성한 플라워 파인 주얼리 네크리스 **오메가**, 바젤스타 워치 중 하나인 다이아몬드 패시픽 워치에서 분리할 수 있는 패시픽 워치 링 **그라프**, 화려한 공작새에서 영감을 받은 옐로 컬러 피크 링, 브랜드의 시그니처인 웨스턴 마크 네크리스, 피터 클라식 브레이슬릿 모두 **무브먼트**, 에디터 **베미진**



Exent CELEBS IN BASELWORLD

올해 바젤월드는 어떤 세계적인 스타들이 방문했을까? 브랜드를 대표하는 홍보대사로서, 신제품 라인업의 뮤즈로서 스위스 바젤을 직접 찾은 셀러브리티의 라인업을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특히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 정동건이 세계적인 시계 브랜드 모리스 라크로아와 글로벌 앰배서더 자격으로 바젤월드에 참여해 한국 기자로서 자부심을 느꼈다. 아쉽게도 한국에서는 그의 광고를 볼 수 없지만, 모리스 라크로아에서 정동건스 패시 에디션 워치를 선보일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그의 인기는 실로 대단하다. 그는 3월 20일에 개최한 모리스 라크로아의 컨퍼런스에 참석했는데, 그를 축하하기 위해 모인 프레스와 팬으로 컨퍼런스장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날 공개한 '르 클라식 정동건 리미티드 에디션'은 옅은 화이트 색상의 다이얼을 품은 38mm 케이스, 18K 핑크 골드 재질이었으며 자사 무브먼트 ML155를 탑재한 것이 특징. 시퍼리어 케이스 뒷면에는 정동건의 사명이 새겨져 있어 더욱 특별하다. 또 하나 큰 이슈가 된 소식은, 구찌 타이 임팩스와 세계적인 유전자학자 카복티드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제품을 선보이는 아이 엠 플러스(iam+) CEO인 윌 아이젠의 파트너십 발표다. 패션 액세서리인 동시에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혁신적인 웨어러블 커뮤니케이션 기기 개발을 목표로 맺은 파트너십으로, 시계 기능 외에도 전화, 문자, 이메일, 음악, 피트니스 등 다양한 기능을 더한 기기를 개발해 추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이 밖에도 불가리의 바젤월드 컨퍼런스에는 모델이자 배우인 에바 헤르츠코바가 참석해 불가리의 신제품 발표를 축하했으며, 우블로의 홍보대사인 모델 바바라월의 역시 3월 18일 저녁, 관능적인 블랙 드레스 차림으로 우블로 부스를 찾아 박병 탄생 10주년을 함께 기념했다. 에디터 권유진

Focus BIG HOUSE, FRENCH CHIC

아름답고 완성도 높은 시계를 원한다면 프랑스의 패션 하우스에서 디자인한 스위스 메이드 워치를 선택하면 된다.

바젤월드에서 꾸준히 자신만의 영역을 넓히고 있는 패션 하우스의 워치 브랜드들은 올해 획기적인 디자인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먼저 디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라프 시몬스는 레디투웨어 트렌드에서 영감을 받아 디올 시계 컬렉션에 화려함을 불어넣었는데, 올해 디올은 '디올 워치 오프테뉴' 컬렉션에서 블루와 화이트·버건디·블랙 악아기족, 라바 등 다양한 컬러를 선보였다. 색감이 화사해 런웨이에 등장한다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2015 S/S 컬렉션을 떠올리게 하는 미드나잇 블루 악아가죽과 블랙 세라믹 워치도 시선을 사로잡는다. 최첨단 기술로 완성한 소재를 시계에 대입한 현대적인 접근이 매력적이다. 샤넬의 아이콘인 J12와 더불어 올해 바젤월드에 새롭게 선보인 '프리미에르'는 매력적인 해석으로 새로운 옷을 입었다. 1987년에 탄생한 샤넬 향수 남버 5의 팔각형 향수병과 병동 광장에서 영감을 받은 '프리미에르'는 '프리미에르 락(Premiere Rock)'으로 변신해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여 여심을 사로잡았다. 핑크, 블루 컬러 혹은 베이지색으로 엮은 트리플 스틸 스트랩은 다른 브랜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샤넬만의 아이덴티티를 담아 파손을 막아준다. 올해 에르메스에서 소개한 '아쓰 에 큐어' 브랜드는 다이얼을 시금석으로 세공해 빛나는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무브먼트에도 장식적인 요소를 더했는데 'H' 패턴으로 장식한 무브먼트와 수공으로 완성한 마이크로 로터까지, 에르메스 특유의 세심함을 엿볼 수 있다. 에디터 **베미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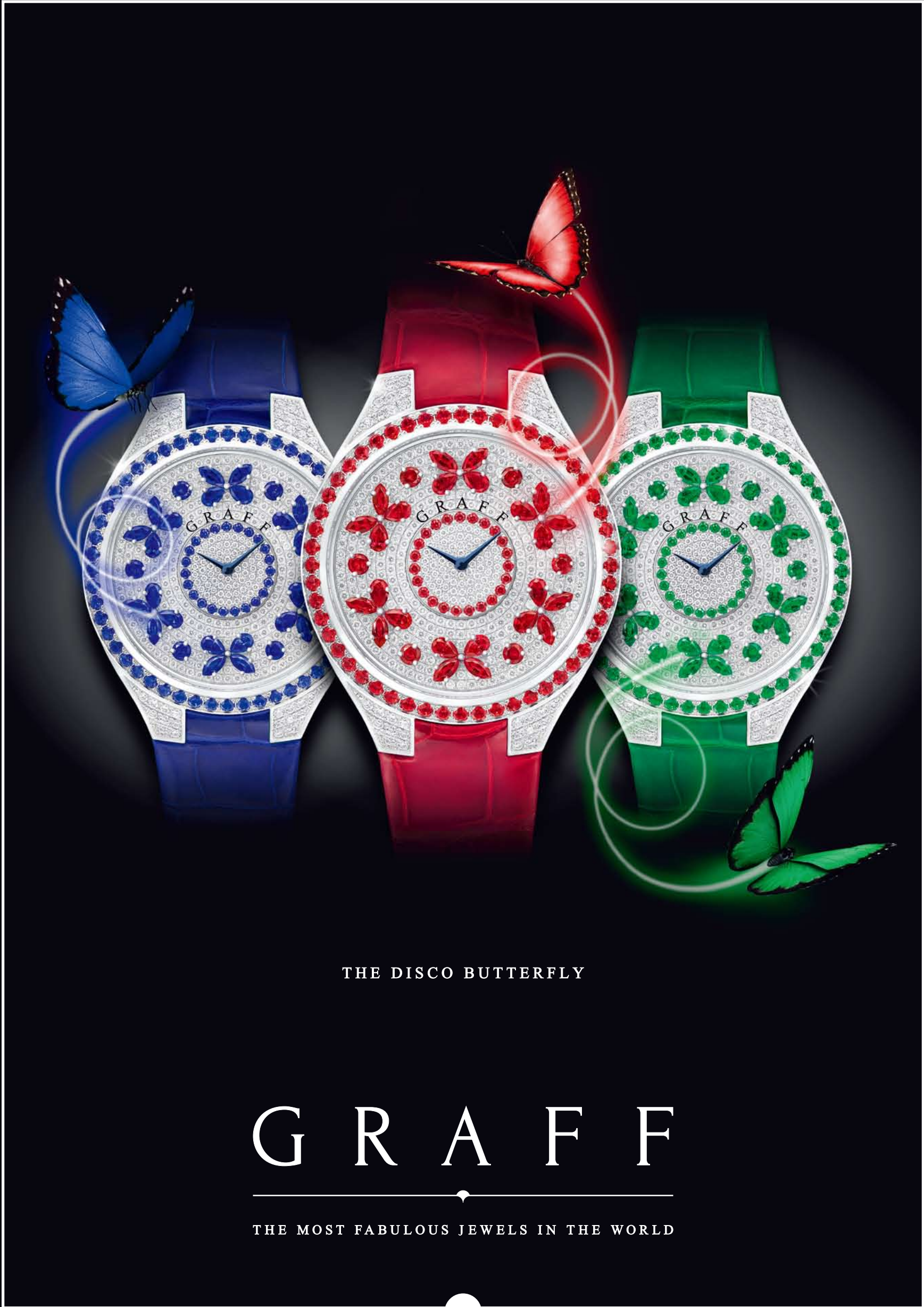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Watch 바젤월드의 또 하나의 주인공, 신소재

정교한 기술력으로 완성한 무브먼트도 바젤월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거대한 워치 시장을 더욱 드라마틱하게 움직이는 것은 신소재의 등장이다. 디자인과 컬러, 무브먼트의 가치에 대적할 만큼 신소재의 위상은 대단하다. 이전에는 시계 소재로 사용되려다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화이트 세라믹이 이제는 최고급 기계식 워치에까지 적용되고, 고무에 불과했던 러버 소재도 다양한 금속과 결합해 내구성이 뛰어난 팔스 소재로 거듭났다. 단기간에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없기에 신소재를 개발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지만, 그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올해 바젤월드에 라도와 롤렉스, 불가리가 새로운 도전장을 내밀며 시계 시장의 반경을 넓혔다. 라도는 '현대적 연금술'이라고 표현할 만큼 완벽한 기술력을 자랑하는 플라즈마 하이테크 세라믹을 선보였는데, 손목에 걸리는 순간 '장막 새롭다'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세라믹을 메탈처럼 보이도록 가공하는 플라즈마 기법은 라도만의 독보적인 특허 기술로, 메탈보다 가볍고 스크래치에 강하며 티어를 대신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하다. 게다가 차가운 느낌을 스틸에 비해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더욱 깊고 잔란 컬러감으로 기쁨을 더해준다. 시간이 지남에 광택감을 잃지 않는 지속성과 알레르기 유발하지 않고 착용자의 체온에 온도가 맞춰지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롤렉스는 '오이스터플렉스 브레이슬릿'을 선보였는데, 얇은 티타늄 브레이슬릿에 유연한 엘라스토머 스트랩을 독특한 방식으로 접목한 브레이슬릿이다. 내구성이 뛰어나고 탄성이 높으며 자외선에 강해 쉽게 변색되지 않는다. 불가리의 카복티드 워치인 '디아고노 e-마그네슘'은 스마트한 기능을 갖춘 것은 물론 마그네슘과 피코 폴리머를 결합한 소재로 선보이며 불가리가 앞으로 내놓을 시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처럼 신소재의 개발은 차별화된 시계를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선택지가 되고, 편의성과 실용성을 추구하는 하이엔드 워치 시장에서는 더욱 주목할 만한 일이기도 하다. 2016년 바젤월드에선 또 어떤 새로운 소재가 등장해 눈길을 사로잡고 판권하게 감싸줄지 기대된다. 에디터 **베미진** 어시스턴트 에디터 **박혜미**



THE SHILLA HOTEL +82 2 2256 6810

WWW.GRAFFDIAMONDS.COM



바젤 시내의 중요한 교통수단인 트램.
바젤월드 기간에는 트램 전체가 시계 브랜드 광고판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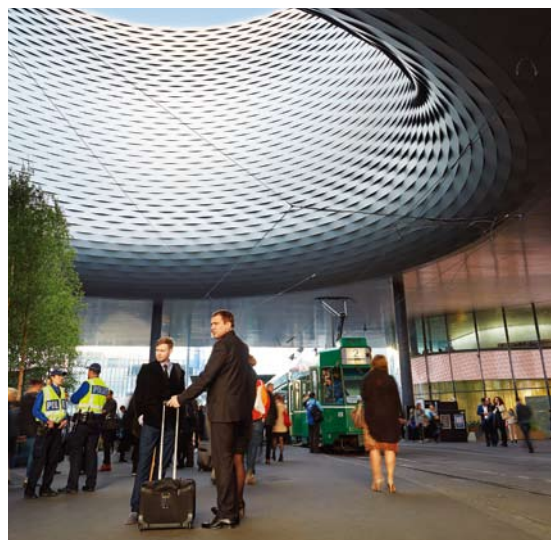
바젤월드에는 매년 40여 개국의 1천5백 개 브랜드가 참가한다. 각 층의 면적이 약 141,000㎡에 이르는 바젤월드 건물은 시계 비즈니스의 플랫폼으로 이용하기에 그 가치는 측정 불가능할 정도. 바젤월드는 시계뿐 아니라 다이아몬드, 원석, 진주 제품의 유통에까지 산두 주자 역할을 하고 있다.

show Time

2015년 3월 19일, 어김없이 가장 최대의 시계 박람회 바젤월드의 포문이 열렸다. 바젤 시내 곳곳을 수놓은 시계 축제의 현장을 생생하게 전한다.
photographed by koo eun mi



바젤 7지역에 전시되어 있는 해밀턴 비행기.
역사에 들어서는 순간 시계의 도시에 도착했다는 것을 일러는 상징물이다.



올해는 금융 프레스, 주요 일간지,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무역 프레스, 소셜 미디어를 불로까지 4천3백여 명의 프레스가 참석했다.



보다 편안하고 빠르게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시스템을 갖춘 바젤월드.
올해는 TV 채널에서 바젤월드를 집중 조명하기도 했다.



파텍 필립, 오메가, 블랑팡, 롤렉스, 위블로, 샤넬 등 주요 브랜드의 부스가 모여 있는 1층의 1.1층과 1.2층을 잇는 에스컬레이터.



국제 시계 및 보석 전시회인 바젤월드는 올해 3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 9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기록을 남겼다.



바젤월드는 일반 관람객이 방문할 수 있는 대중적인 요소를 지녔다.
하루 동안 둘러볼 수 있는 1일 패스는 60CHF(스위스프랑), 8일 패스는 150CHF다.



가이드북을 보고 둘러봐야 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바젤월드. 책자에 나와 있는 2백여 개 브랜드를 8일이라는 박람회 기간에 모두 둘러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에디터 배미진

Publicis EtNoss



Slim d'Hermès watch in rose gold, Manufacture H1950 ultra-thin movement.

SLIM D'HERMÈS, PURITY IN MOTION.



라 몽트르 에르메스 코리아
02 542 6622
Hermes.com



세계 시계 산업의 성장 동력, 바젤월드

No Time to Rest, 바젤월드

세계적인 건축가 헤르조그(Herzog)와 드 뮈론(De Meuron)이 디자인한, 거대한 우주선을 연상케 하는 미래 지향적인 건축미가 돋보이는 바젤월드 박람회장. 총 1천여 개의 전시 부스로 가득한 메세바젤(Messebasel)을 중심으로 바젤 시내는 시계 광고로 도배된 트램과 버스가 거리를 누비고, 곳곳에서 바젤월드 깃발이 펄럭인다. 바젤은 매년 3월, 도시 전체가 축제 의 현장이다. 바젤 시내에 위치한 호텔은 1년 전부터 예약이 꽉 찼 뿐만 아니라 스탠더드 룸의 가격이 하루에 1백만원을 호가할 만큼 바젤 시내의 물가가 폭등하는 기이한 현상도 벌어진다. 폐어 기간 동안에는 대부분의 레스토랑에서 바젤 메뉴라는 특별한 메뉴를 맛볼 수 있으며 이곳을 역시 축하 한 달 전에는 예약해야 할 정도로 전 세계 시계 바이어들과 프레스, 시계 브랜드 관계자, 시계 마니아들이 바로 이곳 스위스 바젤에 집결한다. 거대한 우주선 같은 박람회장 안에는 스위치 그룹의 워치 브랜드를 중심으로 수백 개에 달하는 시계 브랜드의 부스가 자리 잡고 있다. 부스들은 각 브랜드만의 아이덴티티와 콘셉트를 담은 매장 형식으로 꾸며져 있어 부스 외관을 보는 것만으로도 흥미를 자아낸다. 매년 1월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SIHH가 초대받은 인원만 입장 가능한, 백화점과 유사한 부티크 형식의 박람회라면 바젤월드는 ‘월드라는 이름답게 10개의 홀, 160,000㎡ 면적의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한다. 바젤월드는 SIHH는 시계 박람회의 양대 산맥인데, 고급 시계 박람회인 SIHH가 턱시도와 드레스 차림으로 참석해야 하는 프라이빗한 파티 같은 상향을 띤다면 바젤은 캐주얼한 차림으로도 참석할 수 있는 보다 대중적인 박람회다. 바젤월드 첫날인 3월 19일 아침 8시, 박람회장에 입장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표정에선 올해는 과연 어떤 시계가 나올 것인가 하는 기대감을 읽을 수 있다. 이들의 분주한 발소리는 바젤월드에 울려 퍼지는 빠른 비트의 음악과 어우러져 분위기에 활기를 더한다.

시계 산업을 위한 완벽한 플랫폼, 바젤월드

그렇다면 이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비용을 투자해 바젤월드에 모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젤월드는 시계 산업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국제적 트렌드 행사이며 보석, 다이아몬드, 원석, 진주, 기계를 포함한 시계에 관련된 모든 부문의 산업을 한데 모이게 해주는 유일한 행사다. 올해는 혁신성과 창조성을 갖춘 1천5백여 개 브랜드가 제품을 선보였고, 무려 1백

여 개국의 전시 회사 대표, 바이어, 기자, 기타 방문객을 포함한 약 15만 명의 참관객이 방문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7.5% 늘어난 약 70개국의 4천3백 명 이상의 프레스 대표가 박람회에 참여해 바젤월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했다. 바젤월드 기획자인 실비 리터(Sylvie Ritter)는 “많은 사람들이 찾은 활기찬 박람회의 모습이 바젤월드가 발전하는 데 원동력이 됩니다. 소비자와 미디어의 끊임없는 관심은 언제나 중요하지요. 앞으로 편의성과 영향력을 증진시켜 선망의 대상이 되는 바젤월드의 국제적인 위상을 지켜낼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다.

위기를 넘어서는 새로운 비전이 필요한 시기

스위스 시계산업협회 회장 장-다니엘 파슈(Jean-Daniel Pasche)는 2015년 바젤월드의 시작을 알리며 “2014년 시계 수출량이 2백20억 스위스프랑을 넘어서면서 새로운 기록을 경신해 스위스 시계 산업에는 긍정적인 한 해였지만 올해는 조금 힘들고 불확실한 기운이 맴도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의 몇몇 중요한 시장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그에 따라 성과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불어 스위스프랑 환율 상승 쇼크는 시계 산업에 심각하게 타격을 주었죠. 이는 저하가 통제할 수 없는 문제이자 새롭게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의 4세기 가까이 지속해온 스위스 시계 산업이 이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해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라고 올해 바젤월드의 명암을 솔직히 이야기했다. 사실 올해 초 바젤월드는 이전과는 매우 다른 그림을 보여주었다. 스위스 시계산업협회는 2015년 초반에 좋은 출발을 한 것처럼 느꼈지만, 전체적으로 시계 산업의 성장 속도가 이전보다 더디다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스위스 박람회위원회 회장 프랑수아 티에보(François Thiebaud) 역시 바젤월드 오픈링 컨퍼런스에서 스위스 시계 산업이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그럼에도 시계 산업은 높은 수준으로 성장하리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과거 시계 산업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홍콩과 중국의 시계 수요가 감소한 것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의 원인이라는 평이 일반적이다. 이미 2014년부터 스위스 시계에 대한 홍콩과 중국의 수요가 3.1%나 감소했다. 전년도에 미국의 수요가 6.2% 증가했지만, 이것만으로 홍콩과 중국의 수요가 감소한 것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기에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하지만 긍정적인 신호도 엿보이는데, 2백 스위스프랑 이하(수출 가격 기준)의 시계 판매는 2014년보다

6.2% 증가했고, 2백 스위스프랑 이상의 시계는 수출량이 4%나 감소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엔트리 워치 시장이 더 넓어졌다는 의미이며 앞으로 시계 시장 전체가 보다 대중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증거인 것. 올해 태그호이어, 크로노스위스, 브라이틀링 등 비교적 높은 가격대의 기계식 시계를 다루는 하이엔드 브랜드까지 합리적인 가격의 엔트리 레벨 제품을 대거 선보인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이 어려운 시기에도 스위치 그룹은 90억 프랑의 매출량을 달성했다는 좋은 소식을 알렸다. 어려웠던 환율 영향에도 2014년 대비 4.6% 증가한 90억 프랑의 벽을 뚫고, 순매출액은 3%대의 성장률을 기록해 박수를 받았다. 지난해만 2천1백 개의 직업을 창출했을 정도로 스위치 그룹의 시계 비즈니스가 건강한 경제성장에 큰 몫을 했기에 더욱 의미 깊다. 혁신, 기계, 유통, 직원, 스위스 제조 활동에 투자를 하며 장기적인 전략을 펼친 것이 올해 매출 성장의 기록제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스마트 워치의 신호탄, 스위스 워치 시장의 미래를 뒤흔든다

올해 바젤월드를 뒤흔든 또 하나의 테마는 스마트 워치, 몸과 하나되는 기술을 강조한 웨어러블 테크다. 다소 트렌드하게 느껴지는 스마트 워치가 어떻게 정통 시계 박람회에 들어서게 되었을까? 바젤월드 2015의 홀을 걷다 보면 이전의 바젤월드는 보통 클래식한 시계가 주를 이루었지만, 처음으로 ‘웨어러블 테크놀로지’라는 개념을 적용한 시계들이 대거 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시계 브랜드의 프리미어 리그라고 불리는 홀 1로 들어서면 입구에 거대하게 자리한 태그호이어 부스 앞에 인텔과 구글의 로고가 새겨진 현수막이 보였다. 2개의 거대한 기술 회사가 태그호이어와 손잡고 홀 1에 그 이름을 드러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다. 클래식 시계 산업은 1980년대의 디지털 붐을 잘 인지하고 있기에 스마트 워치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기술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불어닥치면서 카시오(Casio)로 대표되는 디지털 워치 브랜드에 시장점유율을 빼앗겼던 ‘퀵츠 쇼크’의 악몽 때문에 태그 호이어의 아시아 퍼시픽 마케팅 매니저는 태그호이어가 스마트 워치 시장에 투자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LVMH에 편입되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불가리는 ‘인파서블’이라는 미션을 콘셉트로 한 ‘다이고노 e-마그네슘’을 선보였는데, 가장 보안 금고와 비슷한 ‘불가리 볼트(금고)’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사용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개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손목시계’라는 품목이 각광을 받고 있다. 그리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계 산업의 중심에는 스위스 시계 비즈니스의 거의 전부를 할 수 있는 바젤월드(Baselworld)라는 시계 박람회가 있다. <스타일 조선일보>는 매년 이 박람회를 취재해왔는데, 올해는 특별히 바젤월드 현장을 취재한, 총 56페이지에 달하는 스페셜 에디션을 독자들에게 전한다. 바젤월드의 현장 분위기와 시계 산업의 동향을 담은 리포트 기사로 <스타일 조선 바젤월드 스페셜 에디션 2015>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한다.

great Effect

세계 박람회에서 그 무엇보다 주목받는 것은 놀라운 소재와
가능으로 무장한 하이 컴플리케이션 위치다. 독보적인 자사
무브먼트로 자신만의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나가는 진정한 워치
브랜드의 대격돌.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제-니스 아카데미 조르주 파
르브 지크 지크마치 7백97개의 부품으로 완성한 드라미틱
한 페이스의 대담한 위치. 하중을 균등하게 분배하기 위해
배럴에 퓨팅 & 체인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했다. 탄생
1백50주년을 기념해 1백50개 한정 판매한다. COSC 인
증을 받은 엘 프리메로 4810 매뉴얼 무브먼트를 장착했
다. 문의 02-2118-6225

브레게 마린 크로노그래프 2백 주년 마린 5823 브랜드 창
립자 아브라함 루이 브레게가 해군을 위한 크로노미터 메
이커로 인정된 지 2백 년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바젤의 뉴
마린 컬렉션. 플라타니움 소재에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를 더
해 오직 2백 파스 한정 판매한다. 핸드 기요세 파탄과 매트
한 블랙 컬러 라바 스트랩은 실용성과 낭성미를 모두 갖추
었고, 100m 방수 기능을 더했다. 문의 02-2118-6480

지라드 페리고 네오 투르비용 쓰리 브릿지 브랜드의 고유
한 전통을 경향할 수 있는 독창적인 구조의 쓰리 브릿지 워
치에 투르비용을 장착한 타이틀 소재의 놀라운 위치. 이 디
자인이 1890년에 처음 등장했다는 것이 더욱 놀랍다. 더
이월에 3차원 구조를 구현하는 디자인은 지라드 페리고가
2백 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매뉴팩처 브랜드라는 것을 시
각적으로 확인하게 한다. 오토매틱 칼라바인 GP09400-
0002를 장착했다. 문의 02-3467-8372

블라지 워드 투르비용 톨 다이아몬드 자체 제작 무브먼트
인 BVL 263 칼라바인 장착한 위치에 주얼리 브랜드의 가
치를 대변하는 최고의 다이아몬드 2백927개를 세팅한 환상
적인 위치. 인비저블 세팅으로 간격을 찾아볼 수 없이 촘촘
하게 자리한 1백78개의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와 투르비용
칼라바인의 만남이 드라마틱하다. 문의 02-2056-0172

브라이틀링 갤럭틱 유니타임 슬리크 T 브라이틀링의 자사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인 칼라바 B35를 장착한, 올해 바젤
월드 이상적이다. 브랜드 최초로 크로노그래프 기능이 없
는 무브먼트를 장착해 2백년 7년이 강적이다. 크라운을
앞뒤로 해서 움직이는 것만으로 전 세계 시간을 맞출 수 있
는 편의성도 더했다. 배럴에 티화 텡스텐 소재를 적용해 내
구성까지 뛰어나다. 문의 02-3448-1230

해리 윈스턴 프로젝트 29 최첨단 하이테크와 놀라운 기술
력을 집약한 해리 윈스턴의 시그니처 모델. 자사 무브먼트
인 HW3304를 장착했고, 3백25개에 달하는 부품을 조립
해 완성했다. 항공기에 사용하는 첨단 소재인 질마늄을 적
용한 것도 해리 윈스턴만의 독보적인 요소다. 문의 02-
540-1356 에디터 배미진



GP GIRARD-PERREGAUX

MECHANICS OF TIME SINCE 1791



GIRARD-PERREGAUX 1966

GIRARD-PERREGAUX 033M0 CALIBER, SELF-WINDING MECHANICAL MOVEMENT
HOUR, MINUTE, CENTRAL SECOND, FULL CALENDAR WITH INDICATORS OF THE DATE,
DAY OF THE WEEK, MONTH AND MOON-PHASES - 46-HOUR POWER RESERVE
40MM PINK GOLD CASE WITH SAPPHIRE CRYSTAL CASE-BACK - ALLIGATOR STRAP WITH PIN BUCKLE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02)3467-8372 롯데면세점 소공점 02)759-6705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02)3213-3905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02)3484-9645
롯데면세점 제주점 064)731-4482 신라면세점 제주점 064)710-7100 워커힌 면세점 02)450-4912 그랜드면세점 대구점 053)251-2125



ultimate Brilliant

시선을 강탈하며 압도적인 비주얼을 자랑하는 하이 주얼리 위치는 바젤월드의 하이라이드다.
환상적인 예술혼이 담긴 경이로운 주얼리 위치 컬렉션의 세계.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해리 윈스턴 주얼리스 시크릿 바티**
해리 윈스턴 여성용 주얼리 시계의 정수를 보여주는 해리 윈스턴에서 선보이는 아름답고 뛰어난 공예품인 워치, 독특한 형태가 눈길을 끄는 제품으로, 꽃을 모티브로 한 해리 윈스턴의 대표적인 컬렉션 '플러스트'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다. 7개 52개의 다이아몬드, 48개의 핑크 사파이어, 5개의 로즈 골드 진주를 사용한 호화로운 장식을 통해 진정한 럭셔리가 무엇인지 느끼게 해준다. 특히 심미적 아름다움과 기술적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문의 02-540-1356

불가티 세르펜티 헤드 오버 테일 더욱 고급화한 세르펜티 디자인이 눈길을 끄는 불가티의 상징적인 주얼리 워치. 오리지널 세르펜티 디자인을 재해석해 머리과 꼬리 위로 올라오도록 재해석했다. 골드, 머더오브, 레퍼, 다이아몬드 등 다양한 소재로 제작한 세르펜티 헤드 오버 테일은 주얼리 워치로서 갖추어야 할 화려한 디자인은 물론 손목을 부드럽게 감싸는 편안한 착용감이 특징이다. 무브먼트는 불가티를 위해 맞춤 제작한 스위스 황금 무브먼트 칼리버 B033을 탑재했다. 0.46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6개를 세팅한 케이스, 레드 레커로 코팅한 핑크 골드 브레이슬릿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문의 02-2056-0172

브레트 레브 드 룰름 오버 조인라이 바젤에서 더욱 내로연는 것들 디자인이 시선을 사로잡는 타임피스. 깃털 달린 펜으로 오스트리아에 있는 가족에게 편지를 즐겨 썼다는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의 일화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다. 시계가 각기 다른 다이아몬드를 사용해 가볍고 생생한 깃털 모양을 형상화했는데, 줄기 부분에는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를, 깃털 부분에는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를 세팅해 화려함을 더했다. 엔진 타닝 기법으로 거칠고 입체감을 불어넣고 베젤과 플랜지는 물론 크라운 역시 다이아몬드로 마무리해 브레트 레브 드 룰름의 느낌을 느낄 수 있다. 이외에도 0.14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새틴 스트랩을 더해 우아한 분위기를 풍긴다. 문의 02-3438-6218

샤넬 J12 신소재에 대한 갈망을 느꼈던 샤넬이 하이에크 세라믹으로 만든 최초의 워치, J12. 화이트에 대한 로망을 가진 여성들에게 마스트 해브 아이벌로 등장했던 J12가 올해 탄생 15주년을 맞아 새롭게 출시됐다. 새로운 J12는 베젤부터 다이얼, 스트랩까지 시계를 온통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로 채웠다. 오메가 무브먼트와 50m 방수 기능을 갖춘 것은 물론 38mm의 경쾌한 다이얼로 인도적인 비주얼을 자랑한다. 샤넬의 아이콘인 J12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이번 시계는 베젤 사이의 스파클, 블루 사파이어, 루비 등 총 세 가지 세팅 버전 중 선택할 수 있다. 화려함의 정수를 느끼고 싶은 여성에게 추천한다. 문의 02-3442-0962

부세로 아마 더 퍼시 1백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부세로의 워치 기술이 집약된 주얼리 워치. 케이스 안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물고기 모티프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자유와 우아함을 상징하는 물고기의 머리에는 다이아몬드를 세팅했고 꼬리에는 파베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특히 서로 다른 높이로 세팅해 더욱 입체적으로 느껴진다. 다이얼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47캐럿의 다이아몬드와 블루 머더오브의 광택이 느껴지는 케이스는 다이얼에 빛과 굴절을 더해준다. 약각각으로 제작한 견고한 화이트 스트랩은 다이얼에서 고급스럽다. 중심부에는 플레인 투르비옹이 탑재되어 비주얼에 아름다움을 더한다. 문의 02-3213-2246

부세로 케프의 어 시크릿 부세로에 있어 아카이브와 다름없는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공존 디자인의 리미티드 워치. 평소 착용할 때는 브레이슬릿처럼 보이지만, 공중 마리 부분에 장식된 카보숑 컷 루비를 누르면 날개가 열리면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케이스에는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를 총합해 세팅했고, 날개 또한 다이아몬드와 머더오브로 장식해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인텍스는 오묘한 컬러를 자랑하는 4개의 루비로 아랍어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더하며 화이트 새틴 스트랩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며 손목에 부드럽게 감긴다. 문의 02-3213-2246

위블로 바벤 유노 오버 조인라이 플 바게트 다이아몬드 루비 눈부신 다이아몬드의 영혼처럼 그대로 드러나는 워치. 총 38캐럿, 5백75개의 바게트 컷 화이트 다이아몬드와 총 3.05캐럿, 78개의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려함의 극치를 이룬다. 특히 박힌 다이아몬드는 환상적인 동시에 웅장하게 느껴질 정도. 투명 세팅, 블루 더 퍼시 세팅, 레인 세팅 등 고도의 기술을 자랑했으며 다이얼 역시 원석으로 장식했다. 위블로 역사상 최초로 베젤에 투명 한 역삼각형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더욱 특별하다. 케이스 사이즈는 45mm로, 큰 사이즈 시계를 선호하는 여성에게 추천한다. 국내에는 단 1파스와 입고될 예정이다. 문의 02-2118-6208

그라프 디스코 바티플라이 워치 행운을 가져다준다는 나비를 모티브로 한 워치로, 이전에도 그라프는 나비를 활용한 워치들을 많이 선보였다. 올해 바젤월드로부터 선보인 디스코 바티플라이 워치는 그라프의 아이콘인 레이디스 워치 디자인에 파베 세팅 다이얼 위로 나비가 맴도는 것이 특징이다. 착용자가 손목을 움직일 때마다 내모터블을 통해 보석이 움직이며, 다이아몬드 세팅한 나비가 회전

해 마치 민화점을 보는 듯 신비로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다이아몬드와 루비, 에메랄드, 사파이어가 포함된 다양한 버전으로 출시되며 경쾌한 컬러 스트랩 또한 매력적이다. 이외에도 재네에서 제작하는 그라프 자체 무브먼트로 완성도를 높였다. 문의 02-2256-6810

그라프 다이아몬드 마스터 그라프 그랑 데이트 듀얼 타임 투르비옹 하이엔드 주얼리 워치의 대명사로 불리는 그라프의 타임피스. 그라프의 첨단 시계 기술과 아름다운 디자인이 결합된 워치로 플레인 투르비옹, 듀얼 타임 기능, 그랑 데이트 기능을 모두 갖췄다. 그라프의 자체 제작 무브먼트인 그라프 캘리버 5를 탑재한 워치로 43mm 사이즈의 화이트 골드 케이스와 다이아몬드 다이얼, 13.7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사용한 베젤과 케이스는 럭셔리한 진면목을 보여준다. 특히 12시 방향에 에메랄드 그라프 아이콘이 자리해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는 그라프의 세심함이 느껴진다. 투명 사파이어 케이스 백을 통해 무브먼트에 있는 그라프 아이콘 모티브를 감상할 수 있다.

(맨 아래) **해리 윈스턴 아르데코 바이 윈스턴** 2백40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와 7개의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브레이슬릿형 타임피스. 다이아몬드를 총합하고 정교하게 세팅한 아름다운 제품으로, 케이스 중앙이 마치 행태를 띠어 손목에 착용했을 때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플래티넘 브레이슬릿과 에메랄드 형태의 케이스, 화이트 머더오브 다이얼이 조화를 이루, 시계가 하나의 마스터피스라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화려하고 여성스러운 디자인을 선호하는 주얼리 워치 마니아에게 추천한다. 에디터 **김지혜**



YOUR TIME IS NOW.

MAURICE LACROIX
Manufacture Horlogère Suisse



FC BARCELONA
OFFICIAL WATCH



직영 부티크 _ 롯데백화점 월드타워점(2F) 02,3213,2248 롯데백화점 부산본점(1F) 051,810,3139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7F) 02,3214,3768 롯데 프리미엄아울렛 이천점(1F) 031,687,4199 공식 딜러 _ 롯데백화점 전주점 063,289,3592 노블워치(논현) 02,3442,6601 노블워치(종로) 02,745,8789 탑타임 02,551,0181 타임21 02,3424,7073 타임갤러리 02,3398,5528 서울시계 02,555,3218 피가로워치 02,418,6666 월드워치 02,6262,4611 유딜라이트C&C 070,7526,2083 시계상자 031,441,0801 GT굿타임 052,268,3443

Perfect game

매일 새 시계를 차고 싶다면
욕집일까? 옷을 갈아입듯 스트랩을
변경할 수 있는 시계라면 가능할지도
모를 일이다. 기능과 디자인,
어느 것 하나 뒤지지 않는
스타일리시 코드 위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에르메스 케이프 코드 TGM 오토매틱** 에르메스의 상징적인 워치 케이프 코드의 뉴 버전. 다이얼 중앙에 기묘한 장식과 날짜 창을 추가해 감각적인 디자인을 더했다. 스트랩 변경이 가능하고 에르메스의 백과 액세서리처럼 유행 타지 않는 디자인으로, 클래식한 맛을 즐기는 이들에게 제격이다. 문의 02-3448-0728 **스위스브스기 아일라 데이** 화이트 스틱 장식의 더블 스트랩이 특징인 워치. 다른 주얼리들과 자연스럽게 레이어링할 수 있고, 착용자의 손목을 더욱 가늘어 보이게 만들어준다. 베젤에 52개의 크리스탈을 세팅해 주얼리로도 손색없다. 문의 1661-9060 **펜디 셀라리아 리미티드 에디션** 핸드 스틱이 인상적인 셀라리아 워치의 리미티드 버전. 펜디의 아이콘 아스 투치오 퍼에서 영감을 받은 기하학적인 다이얼이 매력적이다. 전 세계 50개만

출시되는 워치로, 펜디를 사랑하는 펜디 마니아의 마음을 매료시킨다. 문의 02-2056-9023 **워치먼 카키 필드 오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해군원이 미군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한 워치로, 밀리터리 분위기를 물씬 풍긴다. 멋스러운 본디지 그린 컬러 다이얼과 카무플라주 캔버스 스트랩은 본디지한 워치에 열광하는 시계 애호가들의 사랑을 만족시킬 것. 문의 02-3149-9593 **디올 워치 뉴 클림 컬러 스틱 다이얼** 디올의 2015 F/W 시즌 레드투에어 컬렉션에 사용한 컬러와 소재를 그대로 적용해 탄생시킨 워치. 두 가지 소재를 결합한 시즌날 스트랩이 특징이며 이번 컬렉션 의상과 완벽하게 매치한다는 점에서 디자이너 라프 시몬스의 영감이 돋보인다. 문의 02-3479-1710 **구찌 타이포스 & 주얼리 G-타입 리스 슬립** 한눈에 봐도 구찌의 시계임을 알 수 있는 3색 웹 스트라이프 스트랩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직물로 된 나일론 스트랩으로 가볍게 착용할 캐주얼 시계를 찾는 남성에게 추천한다. 문의 02-551-7045 **미도 멀티포트 GMT 코리아 리미티드 에디션** 미도의 한국 분점 5주년을 맞아 출시한 리미티드 시계. 오렌지 스틱 장식의 블랙 스트랩과 감각적인 오렌지 컬러 스트랩으로 교체 가능해 다양하게 스타일링할 수 있다. 1백 개 한정판으로 출시되어 소장 가치가 높다. 문의 02-543-7836 **부세론 리틀레 워치 화이트 미디움 벤틀리 고드롬 옐로우 골드 케이스 36 다이아** 케이스 건축에 사용되는 고드롬 장식이 우아한 부세론의 전설적인 타이포스, 클래식한 직사각형 케이스, 교체 가능한 스트랩, 아름답게 반짝이는 다이아몬드까지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모두 담았다. 문의 02-772-3508 에디터 권유진, 김지혜



INTO THE DREAM



SPRIT OF LIBERTY
AUTOMATIC SWISS MADE

HAMILTON
AMERICAN SPIRIT ■ SWISS PRECISION

New Store Opening ENTAS DFS MAIN

BOUTIQUE 현대백화점 천호점

HOOR PASSION 롯데월드몰점 코엑스몰점 갤러리아백화점 대전점 센터시티점 수원점

신세계백화점 본점 강남점 경기점 광주점 센텀시티점 영동포점 의정부점 인천점 충청점 AK플라자 구로보점 수원점 원주점 평택점

현대백화점 본점 동구점 대구점 목동점 무역센터점 미아점 신촌점 울산점 중동점 충청점 김해점 디큐브시티 신도림점 거제점

DONGWHA DFS LOTTE DFS MAIN COEX WORLD BUSAN SHILLA DFS SEOUL INCHEON AIRPORT JEJU WALKERHILL DFS

legendary Watchmakers

기계식 시계가 놀라운 발전을 이룬 것은 한평생을 오직 무브먼트 개발에 바친 시계 천재, 전설적인 워치메이커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시계 역사에 큰 획을 그은 3인의 전설적 워치메이커를 소개한다.

BREGUET

Abraham Louis Breguet, 1747~18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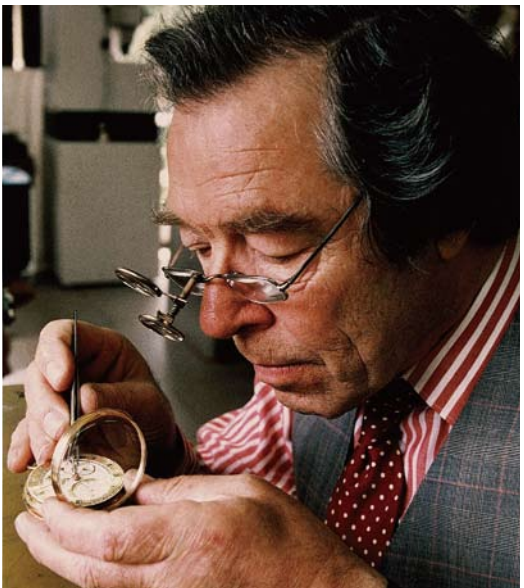
시계의 아버지, 아브라함 루이 브레게
최고의 타임피스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인 아브라함 루이 브레게는 위대한 워치메이커이자 발명가로, 현존하는 고급 워치의 표준을 마련한 타임피스의 아버지라 불린다. 그가 확립한 고급 워치의 기준은 현재까지 이어져, 시계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위스 뇌샤텔 출신인 아브라함 루이 브레게는 1775년 파리에 첫 공방을 설립하고 최초의 오토매틱 시계, 즉 태엽과 진자가 2개인 셀프 와인딩 퍼페추얼 워치(self winding perpetuelle watch)를 선보이면서 혁신적인 시계 생산자로 이름을 알렸다. 이후 프랑스 상류사회에서 인정을 받으며 두각을 드러냈고, 많은 연구 성과를 냈다. 1783년에는 마린 리피터 시계의 핵심인 차인을 올려주는 공 스프링(gong spring)을 무브먼트 외곽으로 감싸는 형태를 고안하고, 1786년에는 다이얼을 기호세 모양으로 장식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선보였다. 1790년에는 충격 방지 장치 파라슈트(pare-shute)를 개발하는 등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자신의 진보된 아이디어를 워치메이킹에 적용했다. 놀라운 혁명은 1801년 투르비옹(tourbillon)을 특허출원하면서 최고조에 이르렀다. '회오리바람'을 뜻하는 투르비옹은 수직으로 제작한 정밀 무브먼트로, 기계식 시계를 중력의 영향에서 해방시켜, 시계 산업에 한 획을 그은 대혁명을 일으켰다. 당시 유럽 최고의 명사들은 예술적이고 아름다운 브레게의 타임피스에 매혹되었는데, 발자크, 푸시킨, 빅토르 위고 같은 위대한 작가들에게 사랑받았다. 유럽 왕실과 상류층에서 큰 환영을 받았으며, 프랑스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가 그의 타임피스에 매혹되어 소유하고자 했던 것은 유명한 일화 중 하나다. 브레게는 이를 기념해 마리 앙투아네트의 일화에서 모티브를 얻은 플루르 컬렉션의 옐해 바젤월드에서 선보이기도 했다.



1783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아름다운 시계를 제작했다는 요청으로 완성한 마리 앙투아네트 워치를 2008년 복원한 브레게 회중시계.

OMEGA

George Daniels (1926~ 2011)



현대적 이스케이프먼트 발명가, 조지 다니엘스
명실상부한 오메가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코-엑시얼 무브먼트를 개발한 조지 다니엘스. 2011년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왕성하게 활동한 현대적인 워치메이커로, 혁신적이고 급진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60년 이상 워치메이커로 헌신한 그는 시계제조자협회(Clockmaker's Company) 금메달, 영국시계학회(British Horological Institute) 금메달, 런던 시 길드(City of London Guild) 금메달, 그리고 스톡홀름 시계 제조자 길드 쿨버그(Kullberg) 메달을 수상한 바 있다. 또 워치메이킹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MBE(대영제국훈장)를 받았을 정도로 시계업계에 큰 업적을 세웠다. 그가 개발한 코-엑시얼 이스케이프먼트는 지난 5백 년간 시계 제조자를 난감하게 했던 윤활유 문제의 새로운 해결책이었다. 기계식 시계가 탄생한 이후 수백 년 동안 많은 시계 제작 장인들은 개선을 위한 온갖 파자에 도전해왔다. 윤활제의 점성 문제와 마찰에 따른 윤활유의 필요성 역시 수백 년간 시계 제작자들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문제였다. 1969년, 그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코-엑시얼 이스케이프먼트를 개발한 조지 다니엘스는 진정한 시계 장인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오메가는 코-엑시얼 이스케이프먼트의 대규모 연속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입증했고, 이는 오메가의 성공을 뒷받침했다. 당시 오메가는 업계의 비판과 회의적 시선에도 코-엑시얼 이스케이프먼트를 도입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는데, 초반에는 오메가의 여러 기술자들과 여러 차례 집중적인 토의를 벌일 정도로 조지 다니엘스의 역할은 결정적이었다. 현존하는 시계 제작자중 7에 생산에 필요한 부품의 5를 장하기 위해 수년 동안 협력할 수 있었고, 코-엑시얼 무브먼트는 오메가의 노력으로 꾸준히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조지 다니엘스의 코-엑시얼 이스케이프먼트는 첫선을 보였을 당시 시계업계에서 환영받지 못했으나 오메가의 협업을 통해 최고의 무브먼트로 거듭났다.

GIRARD-PERREGAU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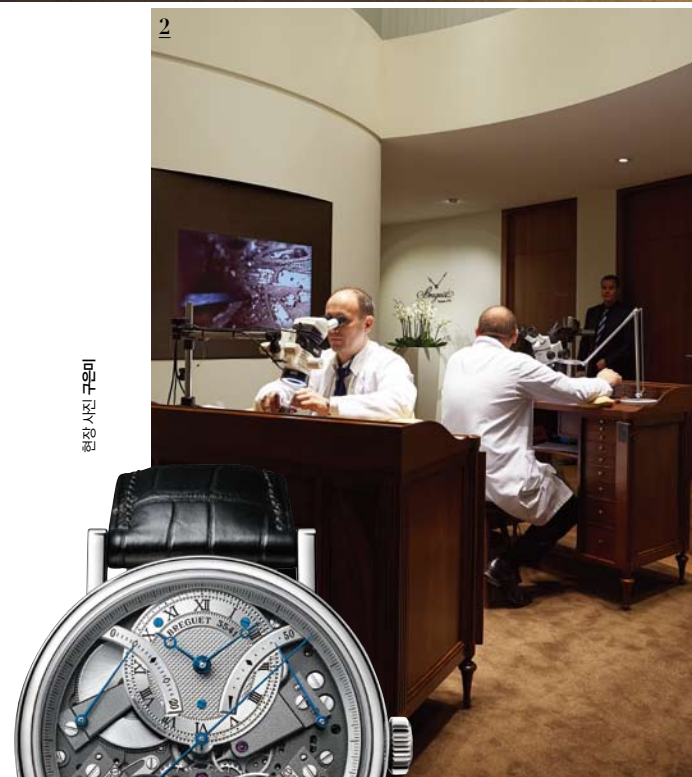
Constant Girard, 1825~1903



유니크 타임피스의 아이콘, 콘스탄트 지라드
2백25년의 유구한 역사를 보유한 스위스 하이엔드 워치 매뉴팩처 지라드 페리고를 대표하는 워치메이커 콘스탄트 지라드는 유년 시절부터 워치메이킹에 특별한 재능을 보였다. 1852년 그는 자신의 고향 라 쇼드퐁에 지라드 & 사메(Girard & Cie)라는 이름의 회사를 창립했다. 1856년에는 르 로를 자칭 워치메이커 가문의 마린 페리고와 결혼하면서 회사 이름에 아내의 성을 넣어 브랜드의 현재 명칭인 지라드 페리고로 변경, 라 쇼드퐁에 매뉴팩처를 설립했다. 이후 지라드 페리고는 독특하게 미국에 진출한 스위스 워치의 선구자로서 이름을 알렸고, 당시 북미와 남미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다양한 도시에 지사를 설립하기도 했다. 콘스탄트 지라드는 투르비옹 이스케이프먼트 분야에서 다양한 무브먼트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데 헌신했고, 그 결과는 높은 명성으로 이어졌다. 그는 기술력과 예술성을 인정받아 수많은 상을 거머쥐었으며, 미국 박람회를 비롯한 국제적인 전시회 등에서 최고의 영예를 얻기도 했다. 1889년에는 3개의 골드 브리주로 독창성을 발휘한 투르비옹 워치 라 에스메랄다(La Esmeralda) 회중시계로 미국 박람회의 골드 메달을 획득했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지라드 페리고의 상징적인 아이콘으로 남아 있다. 1880년에는 독일 황제 빌헬름 1세의 의뢰를 받아 독일 해군 장교들을 위한 손목시계를 개발했는데, 이는 당시 2천여 개의 시계를 제작해 세계 최초로 손목시계를 대량생산한 사례로 남았다. 아울러 시계의 전선 다이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각자 형태의 틀을 부각한 독특한 콘센트의 시계로 호평을 얻기도 했다. 콘스탄트 지라드는 이처럼 차별화된 워치메이킹 업적을 인정받아 수많은 훈장을 받았고, 워치메이킹 역사에 크게 공헌한 위대한 시계 장인으로 자리매김했다. 에티엔 배아진



지금까지도 지라드 페리고의 시그니처로 인정받고 있는 3개의 골드 브리주를 적용한 라 에스메랄다 워치. 1889년 미국 박람회에서 골드 메달을 획득했다.



1 브레게는 오랜 역사에서 비롯된 매력 덕분에 바젤월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 중 하나다. 2 전시장에서 무브먼트를 조립하고 있는 브레게의 장인들. 공방에서 실제로 조립하는 과정을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것 역시 바젤월드만의 매력이다. 3 브레게 트레이디션 인디펜던트 크로노그래프 7077. 4 브레게 마린 크로노그래프 2백주년 마린 5823. 5 레브 드 플루르. 6 브레게 트레이디션 마린 리피터 투르비옹 7087. 7 브레게 레인 드 네이플 프린세스 마니 스틸 9807.

한정 시계 전시 공간



기계식 시계의 역사, 브레게
브레게는 1775년 창립한 이래 완벽함 스타일과 기술력을 두루 갖춘 특별한 타임피스를 선보이며 명성을 쌓아왔다. 창립자 아브라함 루이 브레게는 워치메이킹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인물로, 1775년 창립 이래 파라슈트 충격 방지 시스템, 오버코일 티마닐 커브의 브레게 밸런스 스프링, 그리고 브레게의 대표 발명품이자 현재까지도 시계업계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투르비옹 등 현대의 주요한 시계 관련 발명품 중 대다수가 브레게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 고객 영부에 나폴레옹이나 마리 앙투아네트가 이름을 올릴 정도로 많은 지지를 얻었다. 덕분에 브레게는 프랑스의 'Board of Longitude(바다 위 경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의 일원으로 활약하는 동시에 해군의 크로노미터를 제작하는 공식 워치메이커로 임명되기도 했다. 이처럼 깊은 역사를 바탕으로 한 브레게는 전통을 향한 애정을 강하게 드러내며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시계를 완성한다. 이번 바젤월드의 키워드가 '오마주'라는 것이 놀라지 않은 이유다. 첫 번째로 선보인 '트래디션 컬렉션'은 브레게의 역사적인 셉스 크립션 시계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컬렉션으로, 올해 출시 10주년을 맞아 '브레게 트레이디션 인디펜던트 크로노그래프 7077' 브레게 트레이디션 레피티션 마린 리피터 투르비옹 7087' 브레게 트레이디션 오토매틱 레트로그레이트 세컨드 핸드 7097'까지 총 3개의 신제품을 선보였다. 그 밖에 '마린 컬렉션'도 새롭게 조정되었고, 여성 컬렉션 역시 새로운 우아한 모습을 드러냈다.

찬란한 브레게의 유산을 담은 새로운 컬렉션
위대한 아카이브와 탁월한 기술력, 그리고 현대적인 아름다움을 결합한 컬렉션들도 대거 선보였는데, 가히 예술 작품이라 칭할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하고 아름다웠다. 브레게 트레이디션 인디펜던트 크로노그래프 7077은 크로노그래프의 정교한 움직임과 대칭의미를 극대화한 모델이다. 보통 시계의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작동하면 메인 가이 트레인이 방해받기 때문에 브레게는 새로운 트레이디션 인디펜던트 7077에 2개의 독립적인 트레인을 장착했고, 크로노그래프 기능과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새로운 형태의 스프링을 적용했다. 뿐만 아니라 특허 받은 티타늄 소재를 활용한 크로노그래프 밸런스 휠도 진동수가 다른 2개의 밸런스 휠을 동일한 사이클로 완성해 눈길을 끈다. 대칭으로 배치해 미학적 측면을 염두에 둔 철저함까지 보여주었다. 트레이디션 컬렉션의 역사적 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중에서는 파라슈트와 1825년 1월 6일 브레게가 판매한 4009 더블 세컨드 오퍼레이션 타이머를 연상시키는 크로노그래프 컨트롤 기능을 빼놓을 수 없다. 브레게의 두 번째 키워드는 '소리'였다. 시간을 알려주는 영롱한 소리, 많은 시계 컬렉션 중에서도 단연 가장 매력적인 기능일 것이다. 브레게 트레이디션 레피티션 마린 리피터 투르비옹 7087은 수많은 시계메이커를 통해 10만 가지 소리를 종합한 후 그것들을 음향 처리한 기조를 토대로 아름다운 소리로 탄생시켰다. 이 모델은 아브라함 루이 브레게가 마린 리피터의 필수 부품으로 발명한 공 스프링을 처음부터 다시 작업해 적용한 글라스가 더욱 자유롭게 진동하게 해 소리의 폭을 높인 것이다. 해머의 움직임이 시계 무브먼트와 평행을 이루는 대부분 마린 리피터와 달리 이 시계는 베젤 쪽으로 무브먼트와 수직을 이루는 위치에서 소리를 내는 것이 독특하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정교한 기술력이 추가되었는데, 세미 액티브 버퍼가 그것이다. 마린 리피터는 보통 진동하는 공이 다시 한번



맞는 것을 방지해주는 버퍼 스프링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버퍼 스프링은 해머가 공을 치기 직전에 작동하기 때문에 해머의 힘이 부분적으로 감소하는데, 이 해머의 힘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세미 액티브 버퍼를 고안했다. 소재 또한 진동 음향학에 관한 과학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선택했다. 화이트 골드 혹은 로즈 골드 케이스를 장착하고, 공 스프링도 같은 소재를 선택했으며, 티타늄 소재의 베이스 플레이트와 브리지를 사용했다. 이는 소음이 외부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소음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소리를 전달하고 확대시키는 티타늄이 소음을 막고 오로지 공의 소리를 맑고 아름답게 재생산하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것. 이로써 브레게는 티타늄을 음향적인 목적으로 무브먼트에 사용한 최초의 브랜드가 되었다. '브레게 마린 크로노그래프 2백주년 마린 5823'은 창립자 가 프랑스 해군의 공식 크로노미터 제작자로 임명된 지 2백년이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모델이다. 당시 바다에서 사용하는 마린 크로노미터는 함대 배의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작하는 데 매우 정교한 기술이 필요했다. 그만큼 브레게가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엿보게 해준다. 플래티넘 소재 케이스를 장착한 셀프 와인딩 시계로, 브레게가 마린 크로노미터를 제작한 1800년대를 회상할 수 있게 한 모델이다. 라닝 세컨드와 크로노그래프 아이 워치로 이루어진 2개의 서브 다이얼, 그리고 섬세한 핸드 기호세와 골드 소재 로터, 매트 블랙 컬러의 골드 소재 다이얼에는 중앙의 크로노그래프 초침, 본침과 함께 시와 본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바젤월드에서 브레게의 여성 컬렉션도 강세를 보였는데, 특히 브랜드의 뿌리에서 비롯된 여왕의 우아함을 반영한 워치를 소개해 화제를 모았다. 레인 드 네이플 프린세스 마니 9807 & 9808 그리고 레브 드 플루르 모델은 극한의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갖춘 컬렉션이다. 먼저 브레게 레인 드 네이플 프린세스 마니 컬렉션은 1810년 브레게가 나폴리 여왕 카롤린 유라를 위해 제작한 최초의 손목시계에서 모티브를 따 탄생한 것이다. 초침부터 여성용 기계식 시계를 선보인 브레게의 정교한 기술력이 접목된 무브먼트를 사용하고 마다노브를 다이얼에 장식한 매력적인 시계로, 스틸과 로즈 골드 버전으로 각각 2개의 모델을 선보였다. '레브 드 플루르' 오프 조일라리는 브레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마리 앙투아네트의 아기가 담긴 워치. 그녀는 자신의 남편과 오스트리아에 있는 가족에게 자주 편지를 쓰며 안부를 묻곤 했다. 당시 그녀가 썼던 것들 편지에서 영감을 받아 섬세함이 돋보이는 인그레이빙과 독특한 쉘 패턴 등 고대 장식 기법을 적용한 시계를 선보인 것이다. 이 시계에서 집중할 것은 바로 여왕의 품격에 걸맞도록 고안한 우아한 다이아몬드 장식이다. 특히 6시 방향에 위치한 것들 조각은 감성적인 스토리의 주요 키워드가 되는 요소로, 브레게 장인들의 손에서 다이아몬드 오브로 탄생했다. 것들의 줄기가 다양한 사이즈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사용했고, 베젤과 플랜지는 물론 크라운 역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로 마무리했다. 실리온 밸런스 스프링이 특징인 셀프 와인딩 칼리버 586을 탑재한 이 주얼 워치에는 4캐럿 이상의 다이아몬드가 사용되었다. 메인 컬렉션의 스카이 블루 새틴 스트랩은 마리 앙투아네트가 가장 좋아했던 컬러인 만큼 럭셔리한 느낌을 더한다. 올해 바젤월드는 브레게의 대표작인 컬렉션 셉스 크립션의 재해석과 프랑스 해군 공식 크로노미터 선정 2백주년, 그리고 마리



Tiny elegance

올해 바젤 페어의 여성 워치 트렌드는 초미니 사이즈 워치였다. 작고 반짝이는 것에 열광하는 여성의 손목에서 보석보다 눈부시게 빛날 미니 타임피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부쉐론 세렝 엘로 골드 화이트 사틴 스트랩 워치 18mm** 1968년 출시된 세렝 보렐 컬렉션의 새로운 버전. 행운을 상징하는 별의 마리를 담은 2개의 월방을 모티브가 특징이다. 배젤을 따라 옐로 골드와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착용자의 손목을 아름답게 빛낸다. 우아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여성에게 추천한다. 문의 02-3213-2246

루이 비통 망부르 모노그램 비주 라바에르 지름 21mm의 스틸 케이스 워치로, 12시 방향에 LV 로고를 새기고, 나머지 11개 인덱스는 모두 다이아몬드로 장식했다. 홀로그램 모노그램 효과를 가진 기호에 다이얼이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강렬한 레드 컬러 스트랩이 스타일링에 포인트가 되어준다. 문의 02-3432-1854

미도 바를렐리 III 레이디 미니 25mm의 다이얼 케이스와 양면 무반사 코팅 처리한 사파이어 글라스를 사용해 내구성을 갖춘 시계. 디자인과 기능성 모두를 만족시키며, 작은 다이얼 시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오토매틱 워치로, 다이얼에 자계 패턴을 더해 멋스럽다. 문의 02-3149-9599

샤넬 프리미에르 '클래식은 영원하다'라는 말은 샤넬 프리미에르를 두고 한 말이 아닐까 싶은 정도로 오랫동안 샤넬을 대표해온 워치. 샤넬 넘버 5 향수 병아리와 방울 광장의 형태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한 시계로, 56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22mm 사이즈의 메타오브럴 다이얼은 시계를 조율해 여전히 우아한 아름다움을 뽐낸다. 문의 02-3442-0962

론진 돌체 비타 컬렉션 여성스러우면서 단아한 스페어 다이얼 케이스가 특징인 돌체 비타 컬렉션 워치. 20.5X32mm 사이즈로 다이아몬드 장식 인덱스가 눈길을 끈다. 퀴즈 무브먼트와 함께 로제로 도금한 귀여운 핸즈로 마무리했다. 어떠한 스타일이나 질 어울려 데일리 워치로 인정받음. 문의 02-3149-9532

에르메스 슬림 데르메스 25mm 스틸 경량한 선으로 표현한 케이스가 시선을 사로잡는 워치. 에르메스가 새롭게 개발한 기동성 뛰어난 사체에서 모티브를 얻어 만든다. 퀴즈 무브먼트를 탑재한 25mm 사이즈로, 배젤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심플하면서 고급스러운 브랜드의 철학이 그대로 느껴진다. 문의 02-3448-0728

해밀턴 레이로드 레이디 퀴즈 28mm 클래식 스프링 바를 탑재해 스트랩을 손쉽게 교체할 수 있는 시계. 스틸 브레이슬릿이나 블루 레더 스트랩 등 네 가지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어 질릴 일이 없는 것이 장점이다. 다이아몬드 12개가 다이얼에 원형을 그리며 세팅되어 있고, 50m 방수 기능을 갖췄다. 문의 02-3149-9593 에디터 **배미진, 김지혜**



호가 부여되고 피프티 패덤즈의 아카이브 책자 '피프티 패덤즈 더 다이브 앤드 워터 히스토리 1953-2014'와 함께 구입하는 동시에 오션 커미트먼트에 자동으로 가입되어 일부 금액이 후원 단위에 기부된다.

유니크한 아트 피스의 탄생

2015 바젤월드에서 블랑팡이 또 하나의 카운트 다운을 시작한 것은 아트다. 혁신적이고 탁월한 블랑팡의 기술력으로 이름난 동시에 대담한 아트 피스를 탄생시켰다. 먼저 유일한 여성 컬렉션인 우먼 데이 나잇은 두 가지 레트로그레이드 인디케이션 기능을 갖춘 독특한 무브먼트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칼리버 1150 무브먼트를 장착한 우먼 데이 나잇은 기존 여성 컬렉션보다 케이스 직경이 크며 사파이어 글라스 케이스 백을 통해 정교한 인디케이션의 와인딩 로터, 기술이 집약된 무브먼트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이얼은 두께가 서로 다른 자개로 장식해 특유의 깊이감을 극대화했다. 우먼 데이 나잇에 주 목욕해야 할 기능은 바로 하루에 두 번 회전하는 디스크다. 주로 한 바퀴 회전하는 데 4분가량의 준비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디스크가 회전하면서 낮과 밤을 표현한다. 또 다른 특징은 바로 두 가지 레트로그레이드 인디케이션(초침과 사침) 기능이 분침과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블루 톤 다이얼은 낮에서 밤으로 변하는 하늘을 표현하고 50개의 다이아몬드로 달을 묘사했으며 50개의 옐로 사파이어로 해를 나타냈다. 뿐만 아니라 14개의 다이아몬드와 노란색을 입힌 자개로 별을 표현해 천문학을 아름답게 형상화했다. 블랑팡의 대표 컬렉션인 빌레레 컬렉션은 그랜드 데이트 컨트롤리케

Brilliant Innovator

블랑팡의 카운트는 '혁신'이다. 바다에 대한 애정을 시계에 담아 해양 보존 활동에 대해 환기시키는가 하면, 대표 컬렉션을 통해 브랜드의 아카이브를 재해석하고, 플라이잉 투르비옹과 플라이잉 카루셀을 결합하는 대담한 기술력까지 선보였으니 '세계에서 가장 긴 역사를 지닌 워치 브랜드'라는 타이틀에 가려지지 않는 블랑팡의 기술력은 방대하기만 하다.

가장 오래된 워치메이킹 브랜드, 블랑팡

블랑팡은 1735년 창립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워치메이킹 브랜드다. 시계 마을이라고 불리는 스위스의 작은 마을 빌레레(Villeret)에서 탄생했는데, 역시 그곳에서 태어난 창립자 예한 자크 블랑팡(Jehan Jacques Blancpain)의 성을 딴 브랜드명과 훗날 블랑팡의 대표작인 컬렉션 빌레레는 모두 이곳에서 비롯되었다. 1932년부터 1982년까지 50여 년간 블랑팡은 탁월한 기술력을 자랑하는 성실한 워치메이커들과 함께 집요한 발전을 이룩해냈다. 1950년대에는 최초의 다이버 워치 피프티 패덤즈를 탄생시켰고, 세계에서 가장 작은 무브먼트를 탑재한 레이디비드를 선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문페이즈와 월, 요일, 날짜를 모두 지원하면서도 크기가 작은 6395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를 발명해 기계식 시계에 초침을 맞추며 현재까지 블랑팡의 DNA를 계승해왔다. 이번 2015 바젤월드에서도 블랑팡의 DNA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기계식 시계에 최첨단 여성 컬렉션에 두 가지 레트로그레이드 인디케이션 기능을 갖춘 무브먼트를 사용한 '우먼 데이 나잇'을 선보였고, 블랑팡의 대표 컬렉션인 빌레레 컬렉션의 새로운 모델 빌레레 그랜드 데이트, 최초의 다이버 워치 피프티 패덤즈의 DNA를 이어받은 '오션 커미트먼트 바티스카프 크로노그래프 플라이잉 카'까지 블랑팡의 전통에 혁신을 접목한 새로운 모델들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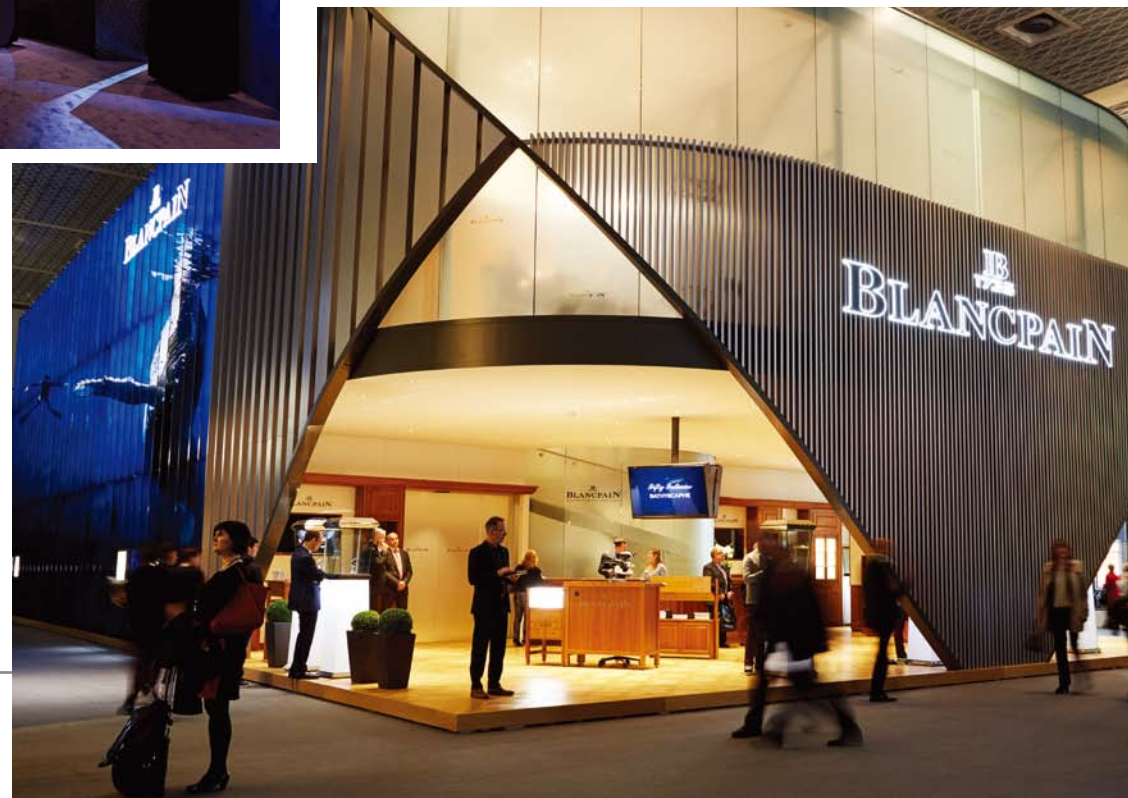
깊은 바다속을 유영하는 피프티 패덤즈

2015년 바젤월드에서 블랑팡은 우리를 바다로 초대했다. 블랑팡의 CEO 마크 알렉산더 하이예크(Marc A. Hayek)의 소개와 함께 블랑팡의 특별한 오션 커미트먼트 전시 오프닝 행사를 개최했다. 바젤월드에 참석한 게스트들은 수중에 재현한 우주 공간을 탐험하고 발견할 수 있었으며, 블랑팡에서 지원하는 각종 단체와 기관이 공개한 의미 있는 결과물들을 직접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 블랑팡은 현재까지 220만 km²의 해양 환경 보존 활동에 참여했으며 최근에는 핏케언 섬(Pitcairn Island) 주변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큰 해안 해양 구역 보존 활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1953년 최초의 다이버 워치 피프티 패덤즈를 선보이며 바다와 인연을 맺은 블랑팡은 바다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보이며 '블랑팡 오션 커미트먼트'를 만들어 해양 환경 보존을 위해 이끈다. 바젤월드에서 이 행사는 해양 환경 보존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레이디비드 에디션인 '오션 커미트먼트 바티스카프 크로노그래프'를 선보이기도 했다. 이 시계는 2백50개 한정판으로 제작했으며 블랑팡 고유의 최신 인하우스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 F385를 탑재했고, 특별한 회색 세라믹 소재의 케이스, 블루 컬러로 깨끗하고 맑은 바다를 표현한 다이얼과 베젤이 눈에 띈다. 바

티스카프는 피프티 패덤즈보다 직경이 조금 더 작은 시계로, 탄생한 이후부터 피프티 패덤즈와 맥락을 같이 했다. 그리고 올해 바티스카프의 전통인 크로노그래프 기능에 플라이백을 더하여 한층 진화했다. 플라이백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를 컨트롤하는 새로운 컬럼 휠은 크로노그래프에 가장 이상적인 시간당 36,000vph(5Hz)의 높은 진동수를 자랑하는데, 이는 1초를 1/10으로 균일하게 분할해 완벽한 간격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바티스카프 크로노그래프 플라이백의 진가는 역시 바티스에서 제대로 발휘된다. 첫 번째 기능은 푸시 버튼이다. 기존 다이버 워치는 크로노그래프 기능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푸시 버튼을 따로 조작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러나 바티스카프 크로노그래프 플라이백은 크로노그래프 푸시 버튼이 인접되어 있어 수심 300m까지 잠수하는 동안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플라이백 기능도 스마트하다. 크로노그래프에 플라이백 기능을 더해 푸시 버튼을 한 번만 눌러도 시간 측정을 멈추고 초기화해 바로 시계를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이 기능은 다이버들이 물속에서 감압하기 위해 멈출 때 유용하다. 바티스카프 크로노그래프 플라이백은 한정판 특유의 고유 번



1 두 가지 레트로그레이드 인디케이션 기능을 갖춘 우먼 데이 나잇 워치. 칼리버 1150을 장착했다. 2 빌레레 그랜드 데이트. 블랑팡의 가장 클래식한 타임피스로 우아함과 실용성을 모두 담았다. 3 오션 커미트먼트 바티스카프 크로노그래프 플라이백. 2백50개 한정판 생산인 1개 제품만 판매될 때마다 1천 유로를 해양 탐험 활동에 기부한다. 4 엘-레슬루르 투르비옹 카루셀. 5 블랑팡 해양 보존 활동에 관한 기록을 전시한 오션 커미트먼트 전시회. 6 역동적인 디자인이 인상적인 빌레레 컬렉션의 블랑팡 무스.





1,5 여덟 가지 표준 인증 절차를 통해 최고의 위상을 선보이겠다는 오메가의 자부심이 담긴 글로브마스터. 2 글로브마스터의 데뷔 무대를 가진 폰 바르타 아트 갤러리에서 오메가는 끊임없이 이어온 브랜드의 기술적 노력을 연혁에 따라 전 세계 관람객들의 찬사를 자아냈다. 3 행사 당일까지 철저하게 비밀에 부친 오메가의 글로브마스터 이벤트. 4 글로브마스터 케이스 뒤편에는 오메가의 하스토리를 느낄 수 있는 크로노미터 관측소의 이미지를 새겼다. 8개의 별은 오메가 시계 새로운 정확성의 기록이자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기 위한 여덟 가지 METAS 인증 기준을 의미한다. 6 빈티지 글로브마스터의 영상 앞에서 직접 마이클을 잡고 연설 한 오메가 CEO 스티븐 우라드. 7 오메가 상품 개발 및 고객 서비스 부사장 장-클로드 모나송(Jean-Claude Monachon)의 연설에서도 이 위치를 선보이기까지의 깊은 고민이 여실히 느껴졌다. "시계 케이스 뒤편에 있는 8개의 별은 1940년대와 1950년대에 오메가의 무브먼트가 세운 정확성에 대한 기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여덟 가지 METAS 인증 기준을 가리키기에 더욱 중요하지요. 이 8개의 별과 여덟 가지 인증 표준 절차를 통해 오메가는 최상의 정확성을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COSC 테스트를 통과한 무브먼트만이 METAS가 승인한 표준 테스트를 받을 수 있기에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 시스템은 더욱 정교하다고 말할 수 있지요. 무브먼트만이 아닌, 시계 케이스에 들어 있는 완성품 상태에서 모든 테스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이고 진보적인 인증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시계와 함께 인증 카드를 부여받으며 그 카드에는 각각의 테스트에서 어떤 성과를 보여주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식별 넘버가 적혀 있습니다. 고객들에게 최고의 위치만을 선보이고 싶은 오메가의 집념을 담은 위치입니다." 글로브마스터를 소개하는 전시장에는 참석해 게스트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자연무원의 시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New Certification

리딩 브랜드로서의 자부심, 오메가의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 시스템

2015년 3월, 바젤월드 취재 준비가 막바지에 치달았을 무렵, 오메가가 바젤 시나에서 큰 행사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바젤월드의 정식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기 하루 전, 개회식을 연 행사 당일까지 모든 내용은 엠바고에 붙여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었다. 단순히 새로운 시계를 선보이는 것을 넘어 중대한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만 전해들은 채 본 행사 전날 바젤에 도착했다. 오메가는 가장 규모가 큰 시계 박람회라 할 수 있는 바젤월드에서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메인 홀의 정중앙에 자리 잡고 있을 뿐 아니라 바젤월드에서 브랜드 부스의 포지션은 브랜드의 지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 스위스를 대표하는 정통 시계 기업인 스와치 그룹의 허리를 든든히 받쳐주고 매출, 컬렉션의 숫자, 시장 장악력 등 모든 측면에서 절대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는 브랜드이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오메가가 이례적으로 바젤월드 전시장 밖에서 비밀리에 행사를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독특한 일이었기에 이벤트에 대한 기대는 높아져갔다.

드디어 3월 18일, 스위스 바젤 폰 바르타 아트 갤러리(Von

Bartha Art Gallery)에서 개최한 오메가의 새로운 이벤트는 시계업계의 축제라 할 정도로 성대하고 의미 깊은 윤곽을 드러냈다. 여타 브랜드와 같이 새로운 엠베서터를 소개하거나 신제품의 론칭을 알리는 것을 넘어 마스터 크로노미터라는 새로운 인증 시스템을 발표한 것. 시계를 만드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특정 브랜드에서 다른 브랜드 위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인증 시스템을 갖춘다는 것은 전례 없는 사건이다. 사실 오메가는 지난 2014년 겨울, 스위스 계측 연방 연구소(METAS, Swiss Federal Institute of Metrology)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2015년부터 새로운 시계 인증 방식을 실행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그 결과 2015년 바젤월드에서 마스터 크로노미터 기준을 공표함과 동시에, 이를 통과한 최초의 시계 글로브마스터를 선보이는, 시계 역사에 남을 만한 이벤트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오메가의 역사를 담은 새로운 기준

오메가 CEO 스티븐 우라드는 바젤월드 데일리 뉴스와 나는 인터뷰에서 이 새로운 인증 시스템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 시계 인증은 오메가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

노미터(Omega Co-Axial Master Chronometer)에 주어진 것으로, 이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것은 METAS를 통해 인증받았다는 것입니다. 측량과 절차를 확인하는 모든 부분의 권한을 지닌 스위스 연구소인 METAS의 인증은 보다 차원 높은 새로운 품질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인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시계가 1만5천 가우스의 강한 자기장을 견뎌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루 동안 0~5초 오차 범위를 넘지 않는 저항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에 일정 수준 이상의 파워 리저브와 방수 기능까지 까다로운 기준을 거쳐야 하기에 더욱 의미가 있지요. 지금까지 스위스 크로노미터 공식 인증 기관(COSC)이 시계 산업의 크로노미터 기준을 결정해왔지만, 이제 METAS 인증이 (물론 지금 당장 COSC를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스위스 시계의 또 다른 품질보증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인증 시스템을 선보인다는 것 자체가 오메가에게는 정말 흥분되는 일이고, 저희가 출시하는 제품이 혁신성, 품질, 디자인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지난해 오메가와 스와치 그룹 CEO 닉 하이예크(Nick Hayek)와 함께 발표한 이 새로운 프로젝트는 성공리에 마무리되었고, 그 결과가 바로 마스터 크로노미터인 것. 오메가의 미래에 커다란

향상 시점 규모

OMEGA

이정표가 될 첫 번째 발견을 올해 바젤월드를 통해 내디뎠고, 행사장을 찾은 수많은 시계 전문가들에게 큰 감재를 받았으니 꽤나 인상적인 출발이다.

가장 빛나는 별, 글로브마스터

오메가는 이 인증 시스템의 가치와 의미를 더욱 드라마틱하게 알리기 위해 최초로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은 위치, 글로브마스터(Globemaster)까지 선보였는데, 이미 오메가의 고전적인 매력을 고스란히 담은 디자인만으로도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벤트 당일 오메가 상품 개발 및 고객 서비스 부사장 장-클로드 모나송(Jean-Claude Monachon)의 연설에서도 이 위치를 선보이기까지의 깊은 고민이 여실히 느껴졌다. "시계 케이스 뒤편에 있는 8개의 별은 1940년대와 1950년대에 오메가의 무브먼트가 세운 정확성에 대한 기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여덟 가지 METAS 인증 기준을 가리키기에 더욱 중요하지요. 이 8개의 별과 여덟 가지 인증 표준 절차를 통해 오메가는 최상의 정확성을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COSC 테스트를 통과한 무브먼트만이 METAS가 승인한 표준 테스트를 받을 수 있기에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 시스템은 더욱 정교하다고 말할 수 있지요. 무브먼트만이 아닌, 시계 케이스에 들어 있는 완성품 상태에서 모든 테스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이고 진보적인 인증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시계와 함께 인증 카드를 부여받으며 그 카드에는 각각의 테스트에서 어떤 성과를 보여주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식별 넘버가 적혀 있습니다. 고객들에게 최고의 위치만을 선보이고 싶은 오메가의 집념을 담은 위치입니다." 글로브마스터를 소개하는 전시장에는 참석해 게스트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자연무원의 시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항자성 무브먼트의 개발과 실리콘 스프링 밸런스의 적용, 코-엑시얼 무브먼트의 대량생산에 이르기까지 스위스 기계식 시계의 발전은 주도해온 오메가는 이제 새로운 고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기계식 무브먼트의 기준이 될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최초로 적용한 글로브마스터를 출시한 것은 다른 브랜드의 이목을 집중시킨 놀라운 사건이다. 스위스 시계 전문가들은 이 인증 시스템이 매출 위주로 흐르는 시장 흐름에 다양성을 부여할 수 있는 계기가자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예상한다. 스와치 그룹의 핵심 기업이자 시계 산업의 트렌드를 이끄는 오메가가 경쟁이 치열한 기계식 시계 시장에서 리딩 브랜드로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의미는 대단하다. 기계식 위치 시장의 가치와 기준을 재정립하는 오메가의 새로운 인증 시스템이 스마트 위치에 위협받는 스위스 위치업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을 기대해본다. 에디터 배민진 (바젤 현지 취재)

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휴대폰, 태블릿, 카메라, 그리고 핸드백의 잠금장치 등 소지품이 지닌 자성을 측정·제거할 수 있었다. 항자성 기계식 무브먼트가 박동하는 글로브마스터는 4년간의 보증 기간을 제공하기에 그 가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고안한 퍼포먼스인 것.

보다 퀄리티 높은 기계식 시계를 안정적으로 꾸준히 공급할 길 원하는 오메가의 도전 정신이 담긴 글로브마스터 컬렉션은 이렇듯 진보적인 기술을 적용한 기계식 무브먼트를 담았을 뿐 아니라 오메가의 가장 클래식한 디자인, 컨스텔레이션의 초기 모델에서 영감을 받았기에 오메가의 정수를 그대로 느낄 수 있다. 글로브마스터 디자인 중 무엇보다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시계 수집가들에게 오랜 시간 언급되어온 파이-팬(pie-pan) 다이얼과 과거 컨스텔레이션의 제품에서 볼 수 있었던 플루티드(fluted) 베젤이다. 39mm 케이스에 담긴 1952년 파이-팬 다이얼을 감싼 플루티드 베젤은 높이 솟은 부분을 부드럽게 처리해 글로브마스터를 유니크하게 보이도록 한다. 6시 방향에서 반짝이는 별은 백 케이스의 메달리온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940년대와 1950년대에 유명 크로노미터 관측 대회가 열렸던 큐폴라(cupola)의 관측소에 수놓인 8개의 별은 오메가가 세운 정확성의 의미인 것. 메달리온이 로터와 무브먼트를 완전히 덮지 않도록 디자인해 케이스에 담긴 오메가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칼리버 8900/8901의 아름다움과 유연한 움직임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항자성 무브먼트의 개발과 실리콘 스프링 밸런스의 적용, 코-엑시얼 무브먼트의 대량생산에 이르기까지 스위스 기계식 시계의 발전은 주도해온 오메가는 이제 새로운 고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기계식 무브먼트의 기준이 될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최초로 적용한 글로브마스터를 출시한 것은 다른 브랜드의 이목을 집중시킨 놀라운 사건이다. 스위스 시계 전문가들은 이 인증 시스템이 매출 위주로 흐르는 시장 흐름에 다양성을 부여할 수 있는 계기가자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예상한다. 스와치 그룹의 핵심 기업이자 시계 산업의 트렌드를 이끄는 오메가가 경쟁이 치열한 기계식 시계 시장에서 리딩 브랜드로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의미는 대단하다. 기계식 위치 시장의 가치와 기준을 재정립하는 오메가의 새로운 인증 시스템이 스마트 위치에 위협받는 스위스 위치업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을 기대해본다. 에디터 배민진 (바젤 현지 취재)

오메가의 새로운 인증 시스템

마스터 크로노미터(Master Chronometer)

오메가가 새롭게 선보이는 마스터 크로노미터의 여덟 가지 기준은 매우 까다롭다. 일상생활 환경은 물론 1만5천 가우스의 강한 자기장에 노출되었을 때도 적절한 기능이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테스트를 가치는 인증 시스템이다. 다른 브랜드들도 METAS의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기 위해 각자의 시계로 테스트를 할 수 있으며, 이 레이블은 해당 기계식 무브먼트의 품질뿐 아니라 위치 자체의 품질을 말해준다. 이 인증 시스템을 가진 오메가의 새로운 위치 글로브마스터의 등장은 오메가의 시계 품질뿐 아니라 스위스 시계의 퀄리티를 더욱 높여줄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다.

인증 절차의 여덟 가지 표준 측정 기준

1 1만5천 가우스의 자기장에 노출되었을 때 무브먼트의 기능. 2 여섯 가지 위치에서 나타나는 시계 러닝 타임의 편차. 3 0~2/3 파워 리저브 사이에서 나타나는 시계 러닝 타임의 편차. 4 1만5천 가우스의 자기장에 노출되었을 때 시계의 기능. 5 일일 평균 기준 1만5천 가우스의 자기장에 노출된 시계의 정확성 편차는 하루 0초에서 +5초 사이를 충족해야 한다. 6 시계를 착용하며 마주치게 되는 일상 환경을 그대로 재현한 테스트 조건에서 시계의 1일 평균 정확성(여섯 가지 위치, 두 가지 온도). 7 와인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가능한 파워 리저브 기능. 8 실제로 물속에서 테스트한 시계의 방수 기능.

big Match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을 넘어 자신의 취향을 상징하는 특별한 모터보로 자리 잡은 시계. 2015 S/S 컬렉션에서 찾은 키 룩(key look)과 바젤에서 방금 도착한 최신 위치의 믹스 매치.



DIOR

디올 워터발 강장 핑크 골드 세로리
여성스럽고 우아한 것들을 다이얼에 상세하게 표현한 워치. 이번 시즌 디올이 선보인 실크 자이드를 반복적으로 레이어링한 화이트, 레드 보잉 선글라스를 더하면 현대판 디올 레이디로 변신할 것. 문의 02-513-3200



MIDO

미도 카펜더 크로노그래프 칼라버 60
클래식과 스포티함이 공존하는 스틸 워치는 어떠한 스타일이나 잘 어울려 심미감 확률이 높다. 이번 시즌 질 샌더에서 선보인 샌드라운 피스텔칼라 패턴 슈트에 매치하면 그나그려의 대미트 룩이 완성된다. 문의 02-3149-9599



ROLEX

롤렉스 오아시스 데이 데이트 40
다기를 유직 패스티벌 룩을 찾고 있다면? 1970년대 록 시크에서 영감을 받은 샌드라운 컬렉션을 주목하자. 곳곳에 골드 장식과 데님 팬츠는 빈티지한 에버로즈 골드 롤렉스 오아시스와도 궁합이 잘 맞는다. 문의 02-2143-1700



SWAROVSKI

스와로브스키 시트라 크로노
여성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핑크. 사냥에서 선보인 흑자틴 트루트 재킷에 편안한 화이트 팬츠를 입고 크리스탈 세팅의 핑크 스트랩 워치를 착용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럽고 발랄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문의 1661-9060



HERMÈS

에르메스 슬림 데르메스
물감이 번진 듯한 셔츠와 화이트 팬츠의 조화는 럭셔리 캐주얼의 잔치를 보여준다. 여기에 모던한 핑크 스트랩 워치를 착용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련된 남성으로 거듭날 수 있다. 문의 02-3149-8237



MAURICE LACROIX

모리스 라크로아 마스터피스 르 클래식 크로노그래프
오랜 시간 곁에 두고 싶은 크리컬 컬러 톤 코트, 개성 컬러 패드와 부츠. 여기에 3개의 사브 다이얼과 정교한 디자인의 클래식 시계를 더하면 스타일의 품격이 높아진다. 문의 02-3213-2248 에디터 김재혜

BVLGARI

Roman Heritage

하이 주얼러와 워치메이커라는 타이틀을 동시에 거머쥔 불가리. 이번 바젤월드에서도 브랜드의 DNA와 워치메이커의 탁월한 기술력이 담긴 워치를 대거 선보였다. 남성 컬렉션은 최첨단 기술을 결합한 워치로 미래를 지향했고, 여성 컬렉션은 불가리 특유의 우아함으로 클래식의 화귀를 보여주었다.



불가리 로마 컬렉션 탄생 40주년 기념 에디션

LVMH 그룹에 소속된 이후로 다양한 버전의 컬렉션을 선보인 불가리는 바젤 월드에서 당당한 위용의 메인 부스에 가득 찬 방대한 컬렉션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중 가장 눈길을 사로잡은 2015년 불가리 로마 컬렉션은 탄생 4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해를 기념해 파나시오 매뉴얼 와인딩 모델, 울트라 신투르비움 모델, 그리고 좀 더 축소된 사이즈의 신구 모델 등을 이번 바젤월드에 선보였다. 먼저 세 가지 버전으로 출시된 불가리 로마 파나시오는 1975와 같은 역사적인 키워드를 예견하며 7분으로의 회귀를 상징한다. 직경 41mm 다이얼의 오픈 구조를 통해 7시 방향에 자리한 작은 초침 서브 다이얼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약 65시간의 파워 리저브 기능을 자랑하는 디스플레이 창이 장착되어 있다. 두께가 2.23mm에 불과한 매뉴얼 와인딩 칼라버 BVL 128을 장착해 워치 케이스를 포함한 두께가 5.15mm밖에 되지 않는다. 시간당 2.8초 천공 회(4.2)의 진동수로 비동하는 26개의 주위를 세팅한 무브먼트는 서클러 그래픽 공정, 챔버링 공정, 코트 드 주네브 등의 세밀한 수작업을 더해 빛을 발한다. 탄생 40주년을 기념하는 데 불가리의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워치 가 빠질 수 없다. 불가리 로마는 신구 개발한 파나시오 투르비움 버전을 통해 아찔할 정도로 복잡한 디자인의 워치를 선보였다. 워치메이킹 기술에서 가장 정교하고 복잡한 기술을 요하는 파나시오와 투르비움은 이스케이프먼트와 밸런스 휠을 장착한 작은 회전 캐리지를 통해 중력의 영향을 상쇄해준다. 파나시오 투르비움 워치에 장착한 무브먼트 BVL 268은 두께가 단 1.95mm로, 브리지와 상하한 플러징 투르비움 중 단연 세계 최고라 할 수 있다. 불가리 매뉴얼 챔에서 탄생한 이 매캐니컬 매뉴얼 와인딩 무브먼트는 시간당 2.8초 천공 회(3.6) 진동하며 52시간의 파워 리저브 기능을 자랑한다. 보다 실용적인 불가리 불가리 솔로 템포 워치는 시간당 2.8초 천공 회(3.6)의 진동수를 통해 동력을 지원하며, 42시간 파워 리저브 기능을 장착했다. 기념비적인 모델에 여성 컬렉션이 빠질 수 없다. 불가리 불가리 투르비움은 직경 26mm에 인그레이빙한 'Bulgari Roma', 그리고 투르비움 브레이슬릿으로 우아함을 더했다. 불가리 불가리 투르비움 워치는 1975년, 불가리 로마 컬렉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의미로 단 1천5백75개 한정 생산에 희소가치를 더했다.

전통에 혁신을 더한 불가리 컬렉션

2015년 바젤월드에서 불가리는 혁신과 전통이라는 키워드를 완벽하게 조화시켰다. 남성 컬렉션은 다이얼노와 옥토, 다.델 로스 컬렉션을 통해 최첨단 기술과 그랜드 컴플리케이션이 결합된 워치를 선보였고, 여성 컬렉션은 루체와 세르펜티 컬렉션을 재해석해 불가리의 또 다른 존재감을 드러냈다. 먼저 다이얼노 e-마그네슘 워치는 최첨단이라는 키워드를 내걸었다. 하이 애플리케이션 워치 특유의 고급 기술을 더한 델타 와인딩 무브먼트를 장착했는데, 스위스의 보안 솔루션 전문 IT 전문 기업인 위즈키와 함께 탄생한 결과물이다. 이 워치는 암호화를 위한 칩과 함께 2인증을 불가리 볼트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근거리 무선통신 인테니를 탑재했다. 특히 정보는 암호화되어 스위스 알프스 근방의 밀라타리 병커내 클라우드에 저장되며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경우 불가리 볼트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가 바로 삭제되어 제3자의 접근을 차단한다. 출시 3년 만에 대표 모델로 자리매김한 옥토 컬렉션은 또 한 번 진화했다. 이번에는 슬림이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슬림한 투르비움 무브먼트를 탑재해 불가리의 높은 기술력을 입증한 것이다. 1백10개 단면으로 구성된 옥토 특유의 케이스와 두께가 1.95mm밖에 되지 않는 BVL 268 파나시오 투르비움을 비롯해 불가리 매뉴얼 챔에서 자체 제작한 총 세 가지 칼라버를 위한 컬렉션을 선보였다. 52시간 파워 리저브 기능을 갖춘 '옥토 파나시오 투르비움'은 세 가지 버전으로 출시되며, 55시간의 파워 리저브가 가능하다. 7시 방향에 위치한 사브 다이얼의 작은 초침이 특징이며 블랙 약아주 스트랩을 장착했다. 블랙 레커 다이얼을 사용한 핑크 골드 버전, 바젤에 64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크라운에 블랙 사마귀를 삽입한 플래티넘 버전까지, 두 가지 모델로 만나볼 수 있다. '옥토 솔로템포' 라인에는 시, 분, 초 디스플레이와 3시 방향의 날짜 창을 배치해 기본적인 기능에 충실했다. 42시

간 파워 리저브를 갖춘 델타 와인딩 매뉴얼 챔 BVL 191 무브먼트와 기존 케이스보다 2mm 줄인 직경 38mm의 케이스가 특징이다. 옥토 솔로템포 워치는 딥 블루 컬러 레커 다이얼과 블루 약아주 스트랩을, 두 번째 버전에는 블루 다이얼과 입체적인 구조의 스테인리스 스틸 링크 브레이슬릿을 적용했다. 마지막으로 실버 톤의 다이얼에 18K 핑크 골드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을 사용한 버전은 한층 더해진 세련미가 인상적이다.

여성 컬렉션은 유명 주얼 하우스 브랜드의 전통을 제대로 드러냈다. 빛의 워치라고 불리는 '루체와 워치'와 불가리의 상징이기도 한 '세르펜티 워치'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먼저 루체와 워치는 특유의 관능적인 디자인과 불가리의 하이 주얼리의 진정한 정신을 계승한 컬렉션으로, 올해 선보인 컬렉션은 다양한 원석과 기존 33mm, 더 커진 36mm 사이즈로 풍성해졌다. 게다가 블루 사파이어, 보르도 핑크, 파우더 핑크 컬러 등의 약아주족을 사용한 컬러 스트랩으로 여성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과거 루체와 컬렉션에 주로 사용하던 스테인리스 스틸과 핑크 골드 등 최고급 메탈 소재와 더불어 화이트 골드를 새롭게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 부드러운 광채를 발하는 화이트 골드 버전은 올해 소개한 신구 모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모델로 꼽힌다. 바젤과 브레이슬릿이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버전과 함께 다이얼 전체를 파베 다이아몬드로 세팅한 버전도 선보여 태양처럼 눈부신 빛을 발했다. 불가리의 아이콘으로 꼽히는 세르펜티 컬렉션은 기존 디자인을 새롭게 재해석한 디자인으로 눈길을 끌었다. 바로 헤드-오버-테일이라는 키워드 마치 뱀이 꼬리를 트듯한 인상적인 디자인으로 변화를 꾀했다. 주얼리 하우스 브랜드의 장인 정신이 살아 숨 쉬는 세르펜티 컬렉션은 미묘하지만 뒤편의 유려한 라인을 골드, 머더오브밀, 레커, 다이아몬드 같은 고급 소재를 사용해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뱀의 표피를 표현한 브레이슬릿은 다이아몬드 파베 세팅과 레드 레커를 번갈아 사용하며 모두 수준 높은 기술력을 갖춘 장인의 조립, 세공, 조각 등 세심한 작업을 통해 탄생했다.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디자인으로 불가리의 상징과도 같은 컬렉션이다. 올해 선보인 세르펜티 워치의 브레이슬릿에는 기존의 내부 스프링을 생략하고 더블 프레스 버튼으로 브레이슬릿 링크를 조절할 수 있게 해 브레이슬릿의 유연성과 편안한 착용감을 극대화했다. 다른 브랜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불가리만의 독보적인 디자인이기에 그 가치가 더욱 높다. 문의 02-2056-0172

- 1 바젤월드 출 1.에 들어오면 입구 좌측에 불가리의 화려한 부스가 자리 잡고 있다.
- 2 우하이고 아름다운 V자 브레이슬릿이 돋보이는 불가리 루체와.
- 3 스위스의 보안 솔루션 전문 IT 기업인 위즈키와 함께 탄생한 다이얼노 e-마그네슘 워치.
- 4 입체적인 구조, 단선형의 미학이 돋보이는 불가리 옥토.
- 5 불가리 로마 워치의 탄생 40주년을 기념해 출시한 불가리 로마 파나시오.
- 6 뱀의 머리가 꼬리 위로 올라와 마치 꼬리를 트듯한 형상을 띠는 세르펜티 헤드 오버 테일.
- 7 세 가지의 다른 양식을 내는 스트레이밍 매캐니즘을 적용한 파우더 핑크 투르비움.



interview
Stephen Urquhart



1 지난 3월 18일 스위스 바젤 폰 비르타 아트 갤러리에서 만난 오메가 CEO 스티븐 우라드.
2 007 시리즈에서 영감을 얻어 유틸리티 있는 아틀을 붙인 오메가 마스터 제임스 본드 리미티드 에디션. 3 바젤 시계품 중 프레스들의 열광적인 호응을 얻은 오메가 워치 스누피 컬렉션.
4 바젤월드 전시장 중앙에 위치한 오메가 부스.



the Pioneer of Time

올해 새로운 인증 시스템 마스터 크로노미터를 발표하며 바젤의 주인공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킨 오메가. 이 놀라운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끈 오메가 CEO 스티븐 우라드와의 인터뷰.

01 오메가는 부스의 위로부터 바젤의 중심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오메가와 바젤, 바젤과 오메가의 관계는 긴밀하다. 오메가에게 바젤월드는 어떤 의미인가? 바젤월드는 언제나 흥미진진한 이벤트이자 오메가 각기 모두가 매년 봄을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시계업계와 공유할 수 있는 완벽한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02 올해 바젤에서 마스터 크로노미터라는 새로운 인증 시스템을 소개해 뜨거운 반향을 얻었다. 새로운 워치를 개발하는 것 외에 인증 시스템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 오메가의 인증 시스템에 다른 브랜드가 어느 정도 참여하리라 기대하는지?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 과정을 개발하고 널리 알리는 것은 중요한 미션입니다. 코-엑시얼 칼리버 라인과 획기적인 항자성 기술을 소개한 후, 새로운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단계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오메가의 새로운 시계들의 퀄리티가 높아져 업계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일반적인 표준인으로는 부족하다는 것도 이유가 되었죠. 스위스 계속 연합 연구소(METAS)와 함께 개발한 새로운 인증 절차는 무브먼트뿐만 아니라 시계 완제품의 방수 능력, 정확도, 그리고 항자성을 보증하기 때문에 오메가의 높은 기량을 충족시킵니다. 시계가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1만5천 가우스의 자기장에 노출된 후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해야만 합니다. 현재까지 시계업계에서 이 자성을 견딜 수 있는 타임피스만 오메가 유일합니다. 다른 시계 브랜드들이 이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기준이 충족된다면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 제도가 퀄리티를 증명하고 싶은 브랜드의 다음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3 새로운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투자한 시간과 비용, 인력은 어느 정도인가? 시계를 개발하는 것에 비해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노력이 드는지? 시간, 돈, 그리고 인력, 이제까지 모두가 개발 과정, 필요한 장비의 구입, 그리고 테스트를 위한 적절한 공간 등 모든 면에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이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이 새로운 인증 시스템이 오메가에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04 올해 새롭게 발표한 시계 중 가장 주목해야 할 제품 역시 글로브마스터인가? 오메가의 기존 고객과 신규 고객에게 이 시계가 어떤 점에서 매력적인 것이라 생각하는지? 글로브마스터는 올해 바젤월드에서 오메가에게 가장 중요한 타임피스입니다. 사실, 이 중요한 제품을 바젤월드 사흘 전에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은 타임피스이자, 앞서 말씀드린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 오메가 최초의 타임피스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특별합니다. 초창기 컨셉테이션 모델에 사용한 플루티드 베젤과 파인-팬 다이얼은 현대 기술과 오메가의 전설과 유산이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05 최근 LVMH를 비롯해 패션 하우스들까지 기계식 시계, 스위스 메이드 시계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것은 물론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오랜 역사를 지닌 스위스 워치를 대표하는 브랜드의 수장으로서는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보는지? 혹은 퀄리티 컨트롤의 기준이 낮아진다고나 스위스 워치의 아이덴티티가 훼손된다고 생각하는 않는지? 'Swiss Made' 레이블은 세계 전역에 알려져 있듯, 그리고 질문에서 알 수 있듯, 높은 품질을 상징합니다. 저는 많은 브랜드들이 스위스의 매뉴팩처에서 타임피스를 만들기 위해 스위스를 찾았다고 생각하기에, 최근의 트렌드가 오리지널 스위스 브랜드의 명성을 떨어뜨린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새로운 브랜드들이 품질 높은 제품을 만드는 전통과 시계학의 유산을 이어받아, 스위스 메이드의 가치를 더 높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06 올해 태그하이어, 브라이틀링 등 몇몇 브랜드가 스마트 워치, 혹은 카워치 워치를 선보였는데 오메가는 스마트 워치를 출시할 계획이 있는지? 또 스마트 워치가 주류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하는지? 스마트 워치의 개발과 발전이 급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웨어러블 기기는 흥미를 유발하죠. 오메가는 언제나 새로운 기술과 소비 심리를 접목하는 데 열려 있지만, 늘 아름답고 타임리스한 고품질 워치를 만드는 핵심 미션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07 이렇게 다양한 생태계로 변화하는 시계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오메가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시계 마니아와 광범하고 대중적인 소비자층의 입장에서 모두 설명해준다면? 시계업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의 소비자들은 정보력이 매우 뛰어나죠. 누군가가 좋은 시계를 구매하려고 한다면 시계의 품질, 브랜드의 명성, 그리고 시계에 담긴 혁신적인 기술력을 고려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감성적인 요소가 제품을 구매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자신의 손목 위에 착용한 모습을 보았을 때 실제 구매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런 현상은 일반적인 고객과 워치 마니아 모두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시계의 품질과 기능은 신작적인 요소와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두 가지 요소 모두 구매를 결정하게 하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개개인이 특정 시계를 볼 때 느끼는 감성적인 반응을 과소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에디터 배미진 (바젤 현지 인터뷰)

함정 사진: 구원미



2015 Basel stage

스마트 워치부터 하이 컴플리케이션 워치까지
바젤월드를 수놓은 진정한 스타, 2015 뉴 워치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가운데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지리드 데리고 네오-투르비옹 쓰리 브릿지,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다크 사이드 오브 더 문
컬렉션 피치 블랙, 티소트 T-타치 엑스퍼트 슬라,
불가리 오토 투르비옹 롤 다이아몬드,
라도 라이퍼크롬 오토메틱 크로노그래프 타키미터.



OMEGA
스피드마스터 아폴로 13 실버 스누피 어워드

OMEGA
씨마스터 아쿠아 테라 150M 리미티드 에디션



GRAFF
다이아몬드 마스터그라프 그랜드
데이트 듀얼 타임 투르비옹

GRAFF
디스코 버터플라이 워치 에메랄드



BREGUET
트래디션 인디펜던트 크로노그래프 7077

BREGUET
레브 드 플루 오뜨 조알라리



BLANCPAIN
엘-에볼루션 투르비옹 카루셀

BLANCPAIN
오션 커미트먼트 바티스카프
크로노그래프 플라이백



HERMÈS
슬림 데르메스 포켓 So H

HERMÈS
아쏘포켓 바그에 코키자



BVLGARI
로마 파니시모

CHRONOSWISS
시리우스 빅데이트 스몰 세컨즈



TAGHEUER
까레라 호이어 01

TAGHEUER
모나코 V4 팬텀



LONGINES
마칼렉션

LONGINES
성포네트

LONGINES
둘체비타



MIDO
멀티포트 GMT 코리아 리미티드 에디션

HAMILTON
벤처라 엘비스 80



LONGINES

Prestige Classic

론진은 스위스 시계 산업의 산증인이라 할 정도로 오랜 역사를 지닌 브랜드다. 2015년 바젤월드에서 소개한 론진 컬렉션에 투영된 오랜 역사의 우아한 맛을 소개한다.



력했다. 1894년 초정밀 VHP(Very High Precision) 무브먼트를 내장한 '콘퀘스트', 1990년 아가시즈를 토대로 만든 스틸 소재의 라그라드 클래식, 1930년대 모델에서 영감을 받은 직사각형 케이스의 '돌체 비타', 2007년 론칭한 스포츠 컬렉션 등 다채로운 컬렉션을 구비하고 있다.

대화하기 위해 다이아몬드로 장식했다.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에 클로 무늬를 새긴 이 컬렉션은 네 가지 사이즈로 출시된다. 시계는 쿼츠 무브먼트와 함께 블랙, 화이트, 그레이, 그리고 레드 스트랩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 브레이슬릿으로 구성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여성용 위치에 집중하다, 론진

이번 2015년 바젤월드에서 론진은 보다 우아하고 현대적인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여성용 모델을 선보였다. 특히 론진은 창립 초기부터 여성 컬렉션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드러냈는데, 1928년 아르데코에서 영감을 받은 직사각형 케이스의 '알레강스'를 시작으로 론진 특유의 클래식하고 우아한 맛을 선보인 바 있다. 이번 바젤월드에서 소개한 세 가지 모델 역시 우아함의 기조를 이어받았다. 현대적인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주얼 워치 '심포네트'와 승마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마(馬)' 컬렉션, 그리고 론진의 여성 컬렉션 대표 모델로 꼽히는 '돌체 비타'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여성화가 돋보이는 타원형 케이스와 정교한 브레이슬릿으로 이루어진 심포네트, 말굽을 연상시키는 보석 세팅과 독특한 라그 디자인의 마 컬렉션, 그리고 특유의 직사각형 케이스로 세련된 맛을 극대화한 돌체 비타까지, 이번에 선보인 론진의 여성 컬렉션은 감각적이고 독특한 디자인이 특히 눈에 띈다. 그중 심포네트 워치는 여성스러움이 돋보이는 타원형 케이스로 분위기를 압도한다. 정교한 메시 브레이슬릿과 함께 케이스를 감싸고 있는 다이아몬드 세팅은 매력적이지 않지 않다. 쿼츠 무브먼트를 탑재한 심포네트는 스테인리스 스틸과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케이스로 S, M, L, XL 등 네 가지 사이즈로 출시했다. 자개 다이얼은 다이아몬드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장식되어 있으며 광택이 나는 블랙 레커 다이얼은 다이아몬드 인덱스로, 실버 컬러의 플린케 다이얼은 로마 숫자 인덱스로 장식되어 있다. 블랙 알레강스 워치는 스포츠 스타일 브레이슬릿을 매치한 이 시계는 30m 생활 방수가 가능하며 로즈 골드 버전은 다이아몬드 세팅 유무 선택이 가능하다.

반면 남성 컬렉션은 더욱 클래식한 맛을 풍긴다. 론진을 대표하는 모델로 꼽히는 콘퀘스트 클래식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풍부한 승마 유산에서 비롯되었다. 1878년부터 시작된 승마에 대한 애정과 워치메이킹 전통을 담아 새로운 크로노그래프 모델 '콘퀘스트 클래식 문페이즈'를 선보였다. 직경 42mm 케이스의 콘퀘스트 클래식 문페이즈 워치는 셸프 와인딩 기계식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 L678을 탑재했다. 케이스는 스테인리스 스틸과 스틸 & 로즈 골드, 또는 18K 로즈 골드 버전까지 총 세 가지 버전을 갖추었다. 블랙 또는 실버 다이얼에는 슈퍼 루미노바 코팅한 9개의 인덱스가 자리하며, 6시 방향에 위치한 문페이즈와 우아한 대비를 이룬다. 6시 방향의 12시간 카운터, 9시 방향의 24시간 카운터, 12시 방향의 30분 카운터뿐만 아니라 요일과 달을 표시하는 특별한 기능을 갖추고, 날짜 또한 표시된다. 500m 방수 가능하며 투영 케이스 백을 장착해 정교한 시계 내부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또 하나의 주력 모델은 의학 시계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필스미터 크로노그래프'다. 세련되고 클래식한 시계에는 심장 박동수를 측정할 수 있는 외의 기능을 담았다. 이는 모험에 대한 인간의 열망을 표현한 것으로, 론진 특유의 DNA를 반영했다. 기존 필스미터 컬렉션은 환자의 심장 박동수를 체크하기 위해 사용되곤 했다. 그 당시에는 환자의 심박수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 맥박 측정에 60초 이상의 시간을 소요해야 했는데, 새로운 필스미터 크로노그래프는 보다 높은 정확도를 자랑한다. 크로노그래프 눈금은 심박계와 짝을 맞춰 환자의 심박수를 30초 만에 빠르게 명사해 시간의 효율성 또한 높였다. 직경 40mm 케이스의 화이트 다이얼은 블루 스틸 핸즈와 더불어 블랙 아라비아숫자, 그리고 레드 컬러의 맥박 측정 눈금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 문의 02-3149-9532



RADO
초콜릿 브라운 하이테크 세라믹

TISSOT
빈티지



스위스 시계 산업의 산증인, 론진

론진은 1832년 스위스 생피에(Saint-Imier)에서 창립한, 그야말로 스위스 시계 산업의 산증인이다. 창립자 오구스트 아가시즈(Auguste Agassiz)는 클래식하면서도 심플하고 적당한 가격대의 시계를 선보이는 데 집중해 역대 미국 박람회에서도 10개의 그랑프리와 28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타임키퍼 브랜드로도 활동한 론진은 1878년 최초로 1/15초까지 측정 가능한 도구를 만들기도 했으며 1896년 아테네 올림픽 때는 100m 경주 공식 타임 계측기 공급사로 선정되었다. 이처럼 정밀함과 고기능을 함께 갖춘 제품은 이내 화제가 되어 1899년 아브루지 공작의 북극 탐험, 1927년에 찰스 린드버그(Charles Lindbergh)의 대서양 횡단 무착륙 비행 등 많은 모험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렇게 여러 강함으로 쌓인 노하우와 실력이 1931년 린드버그와 공동 개발한 '아워 워치'나 1960년대에 발표한 전문가용 다이버 워치인 레전드 다이버와 같은 명기 개발의 원동력이 되었다. 1960년 쿼츠 무브먼트를 사용한 얇은 시계를 생산하기 시작한 론진은 1979년 1.98mm 두께의 골드 리프, 1982년 3mm 아가시즈 등을 내놓았다. 이후 론진은 기계식보다는 쿼츠 무브먼트를 탑재한 시계에 주





stylechosun.com

평범한 일상 속, 아름답고 환상적인 이야기를 만나고 싶다면 품격 있고 감각적인 매거진 <스타일 조선일보>의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방문하세요. <스타일 조선일보>는 단순히 럭셔리한 스타일과 정보만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품격과 지식, 럭셔리 그 이상의 취향과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각까지 함께합니다. <스타일 조선일보>가 바로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클릭하세요.

- ✓ 과월호까지 리뷰할 수 있는 <스타일 조선일보> E-magazine과 만나실시요.
- ✓ 뉴스레터를 구독하면 최신 화장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PLUS

blog.naver.com/stylechosun
instagram.com/stylechosun

GRAFF

King of Diamonds

바젤월드에서 그래프만큼 화려하고 값비싼 물건을 자랑하는 브랜드가 또 있을까. 화려한 골드빛으로 장식한 그래프의 부스에 1억원대부터 5백억원대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대의 다이아몬드 워치와 주얼리가 수백 개나 디스플레이되어 있으니 말이다. 역시 '다이아몬드'의 제왕다운 스케일이다. 하이엔드 주얼리 위치의 정수를 보여주는 완벽한 디자인과 정교한 장인 정신이 담긴 보석 세팅 기술, 최고 품질의 다이아몬드는 그래프가 빛나는 이유다.



1 웅장한 규모를 자랑하며 하이엔드 주얼리 위치의 위상을 보여준 그래프 전시관. 2 그래프 캘리버 5를 장착해 첨단 기술력과 아름다운 디자인을 구현한 다이아몬드 마스터 그래프 그랑 데이트 듀얼 타임 투르비용. 3 사파이어가 박힌 나비 형상이 시계 내부 모터에 의해 회전하는 디스코 버터플라이 위치. 4 매혹적인 플로랄 모티브의 디자인과 다이아몬드 베젤, 섹션한 컬러의 루비가 어우러져 시선을 사로잡는 플로랄 투르비용 위치. 5 과감한 디자인과 타임피스 내부를 감상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그래프 스트러처럴 투르비용 스텝레온. 6 최고 수준의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무려 1백52캐럿 이상 사용한 페시네이션.

바젤을 수놓은 그래프의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의 제왕이라 불리는 로렌스 그래프(Lawrence Graff)가 설립한 영국 하이엔드 주얼리 브랜드, 그래프. 진귀한 다이아몬드는 모두 그래프를 거친다는 말이 있는 만큼 전 세계 주요 왕실에서 사랑하는 브랜드이기도 하다. 이러한 명성을 자랑하는 그래프의 주얼리 위치는 독특한 케이스와 다이아몬드가 박힌 크라운, 12시 방향에 위치한 그래프 아이콘 모양의 보석이 특징인데, 그중에서도 완벽한 세팅은 가장 큰 장점이다. 거기에 실제 다이아몬드라는 사실이 놀라울 만큼 어마어마한 크기와 눈부시게 반짝이는 광채는 단연 압도적이다. 그래프는 이번 2015년 바젤월드에서 자사 무브먼트인 그래프 캘리버 5를 장착한 다이아몬드 마스터 그래프 그랑 데이트 듀얼타임 투르비용을 주력 시계로 소개했다. 이는 그래프의 첨단 기술력과 아름다운 디자인을 집약한 하나의 아트 피스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프만의 눈부신 광채를 지닌 다이아몬드와 독특한 주얼 세팅 기법이 돋보이는 이 시계는 세 가지 컴플리케이션 기술을 갖추고 있다. 6시 방향에서 신비롭게 움직이는 플로랄 투르비용, 두 가지 타임 존의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듀얼 타임 기능, 그리고 자정에 즉각 작동하는 날짜 변경 기능인 그랑 데이트가 바로 그것. 더불어 럭셔리 위치의 상징답게 모든 부품을 다이아몬드로 완성했다. 또 리그 부분에는 그래프의 상징인 인비저빌 모자이크 세팅과 다이아몬드 디테일을 적용했으며 12시 방향에는 에메랄드를 더한 그래프의 아이코닉한 모티브를 세팅해 고유의 섬세함을 보여준다. 사파이어 케이스 백을 통해 무브먼트에 있는 그래프 아이콘 모티브를 감상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최고의 자연이 선사한 영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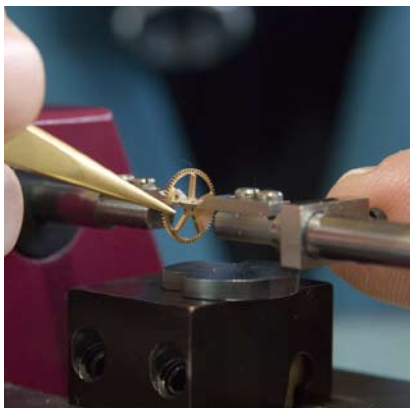
그래프는 최상의 다이아몬드 원석을 사용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브랜드인 만큼 누구보다 다이아몬드를 아름답게 활용

한다. 보석보다 빛나는 아름다운 시계를 제작하는 그래프 주얼리 위치 중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시계는 '플로랄 투르비용'이다. 지난해 바젤월드에서 그래프는 처음 다이아몬드 레이디스 메케니컬 위치 컬렉션을 선보였고, 올해 다시 한 번 혁신적인 다이아몬드 디자인과 하이 퀄리티 위치 제작 기술을 보여주는 타임피스를 발표했다. 매혹적인 꽃 모티브의 디자인만으로도 눈길을 사로잡는 플로랄 투르비용은 그래프 전문가들이 무려 2천5백 시간 이상의 작업을 통해 개발한 위치다.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이 시계는 여성용 위치 최초로 투르비용 칼리버를 탑재했다. 만개한 꽃을 마키즈 컷 다이아몬드로 표현한 디자인으로, 다이아몬드가 더욱 크고 아름답게 빛난다는 점이 특징이다. 8·9·12시 방향에 위치한 3송이의 꽃은 무브먼트를 따라 각각 회전하는데, 우아하고 시뻐하게 회전하는 꽃잎의 움직임은 감탄을 자아낼 정도로 신비롭다. 더불어 블루 컬러의 시와 분 핸즈는 꽃잎을 연상케 하는 입체적인 세이프 제작해 이 아름다운 위치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여성용 시계로는 큰 42mm 사이즈로, 꽃이 움직이는 모습을 더욱 자세히 관찰할 수 있다. 다이아몬드 베젤과 다이아몬드 파베 다이얼, 그 위를 수놓은 루비의 눈부신 향연이 인상적인 플로랄 투르비용은 여성용 시계 애호가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을 것이다.

오래전부터 나비 모티브를 이용해 우아한 타임피스를 선보여온 그래프는 나비의 생동감과 아름다움이 동시에 느껴지는 버터플라이 위치 컬렉션을 탄생시켰고, 이 제품은 그래프의 아이콘이 되었다. 새로운 버터플라이 위치인 '디스코 버터플라이' 위치는 케이스 안의 반짝이는 보석 위에 나비가 원형을 그리며 배치된 시계다. 주목할 점은 착용자의 손목이 움직일 때마다 내부에 있는 모터에 의해 나비가 회전하며 마치 만화경을 통해 보는 듯한 신비로운 광경을 연출한다는 것. 이 아름다운 움직임을 더한 시계는 그래프의 부스 전

면 스크린에 광고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영할 만큼 그래프가 올해 가장 주목하는 시계 중 하나다. 다이얼 위에 시뻐하게 내려앉은 나비 모티브는 다이아몬드는 물론 사파이어, 에메랄드, 루비 등 고혹적인 컬러를 자랑하는 원석으로 세팅한 버전으로 다양화해 더욱 매력적이다.

이제 다이아몬드는 장식용보다 투자 대상에 가깝다. 이를 증명하듯 그래프의 주얼리 피스 페시네이션은 2015년 바젤월드에서 진정한 예술 작품이라 불리며 화제를 모았다. 4백45캐럿이라는 어마어마한 가격도 놀랄지만 매혹이라는 뜻처럼 페시네이션은 최고 수준의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무려 152.96캐럿이나 사용해 보는 이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위치 중앙에는 시선을 압도하는 38.13캐럿의 D 플 로리스 페어 셰이프 다이아몬드가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페시네이션은 변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중앙에 있는 다이아몬드는 브레이슬릿의 센터피스로, 또는 맞춤 제작 틀에 넣어 반지으로도 착용할 수 있으며, 다이아몬드 위치 페이스에 부착해 주얼리 위치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래프의 정신을 잘 표현한 페시네이션은 세계 슈퍼 리치들의 투자 대상 리스트에 오를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듯 보인다.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황홀한 그래프의 주얼리 위치. 내년 바젤 페어에서 그래프가 또 어떠한 경이로운 다이아몬드 위치를 선보일지 기대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문의 02-2256-6810



the dream Factory

바젤월드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백미는 바로 시계 공장 투어다. 유서 깊은 스위스 워치메이킹의 현장을 직접 보고 시계 장인과 눈을 맞추며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바젤 시계 박물관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다. 오직 소수의 인원만 초대되어 시계 제작 과정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모리스 라크로아 매뉴팩처에 <스타일 조선일보>가 직접 다녀왔다.

혁신적인 타임피스의 세계, 모리스 라크로아

바젤월드에서 버스를 타고 바젤에서 두어 시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세뉴레지 에(Saignelégier) 마을에 도착하니, 파스한 정취가 느껴지는 아름다운 풍경을 병풍 삼은 아주 모던하고 현대적인 모리스 라크로아 매뉴팩처가 눈에 들어왔다. 공장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만큼 외부 모습은 물론 내부 시스템까지 현대적인 이곳에는 모리스 라크로아의 핵심인 디자인이, 엔지니어, 설계가와 워치 메이커로 이루어진 모리스 라크로아 이탈리아가 있다. 이들은 브랜드와 기계식 시계의 역사와 전통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무브먼트와 컴플리케이션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아이디어를 탄생시키는 시계 전문가 그룹이다. 모리스 라크로아의 시계는 독특하게도 아이디어 구상과 디자인 개발이 먼저 이루어진 후 그에 맞게 무브먼트를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제작 방식을 통해 다른 브랜드에서는 볼 수 없는 독보적인 디자인의 시계를 선보일 수 있었던 것. 모리스 라크로아 매뉴팩처 디렉터 스테판 웨이저(Stéphane Waser)는 “디자인의 혁신을 주도하는 모리스 라크로아의 디자인팀은 총 7명으로, 발상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신선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외부 디자이너와 함께 제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인하우스 무브먼트로 최고의 시계를 선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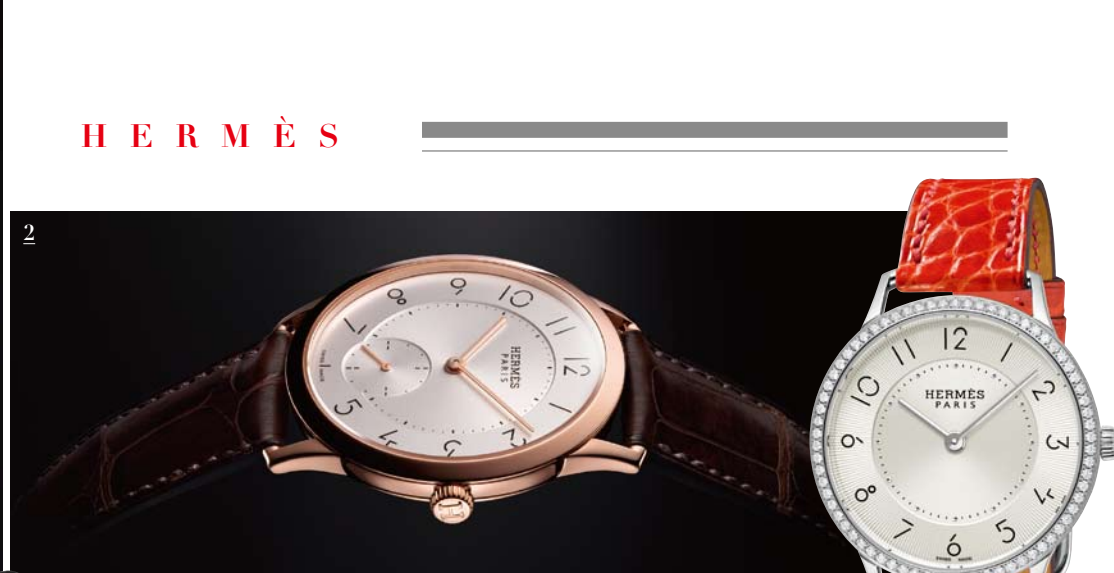
1961년 조립 공장으로 시작된 세계 3천만 개의 마진을 운영하는 글로벌 워치 브랜드로 성장하는 데 원동력이 되어준 것은 모리스 라크로아의 상상력과 할 수 있는 자사 매뉴팩처다. 모리스 라크로아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담은 시계는 총 세 곳의 매뉴팩처를 거쳐 완성되는데, 제품을 개발·조립하고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뉴레지 에 프로덕션 매뉴팩처와 케이스만 제조하는 클로즈 케이스 팩토리, 그리고 인하우스 제품의 부품과 무브먼트의 상이 이루어지는 몽포르 부품 공장이다. 특히 세뉴레지 에 프로덕션 매뉴팩처에서는 시계 조립, 퀄리티 컨트롤, 애프터 서비스 과정까지 모두 장인의 손으로 이루어

아는 모리스 라크로아의 핵심 공방이다. 통유리로 둘러싸인 내부는 채광량이 풍부해 워치 매뉴팩처로서 최적의 입지를 갖춘 것은 물론, 수백 번의 테스트를 거쳐야 제품으로 유통될 수 있는 엄격한 감수 시스템과 작업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먼지 하나도 철저히 컨트롤하는 깨끗한 위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는 모리스 라크로아가 목표하는 ‘최상의 퀄리티를 탄생시키기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 또 햇살이 밝게 내리쬐는 서늘한 공장 안에서는 아주 작은 시계 부품을 조립하고 테스트하는 장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이 최소 10년 이상 시계만 제작해온 장인이다. 모리스 라크로아를 대표하는 시각형 힐시계인 마스터피스 레플레티 루가워치 역시 이곳에서 탄생했다. 스테판 웨이저는 “모리스 라크로아 매뉴팩처에는 열정을 지닌 우수한 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선 그들의 창의력과 재능, 전문적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죠. 사내형 힐에 대한 아이디어는 다이얼 위에 세컨드 핸즈를 표시하는 새로운 방식을 찾기 위해 그들과 함께 진행한 브레인스토밍 중에 탄생했습니다. 이를 과연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며 연구를 거듭했죠. 결국 이 아이디어를 잠정적으로 발전시켜 개발에 착수했고, 자사 매뉴팩처에서 엄격하고 완벽한 공정을 거쳐 18개월 후 자랑스럽게 세상에 발표할 수 있었어요”라고 시계 탄생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주었다. 또 올해 바젤월드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마스터피스 파워 오브 러브도 인하우스 기술력을 적용해 탄생했는데, 3개의 하트 모양 휠은 모리스 라크로아의 독보적인 기술력이 돋보이는 UGA 공정으로 완성했다. 이 공정에 대해 스테판 웨이저는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UGA 공정은 석판 인쇄, 전기 도금, 그리고 물감, 이 세 가지 공정으로 구성된다. 먼저 컴퓨터상에서 부품과 기타 요소를 디자인한다. 그런 다음 디자인을 포토마스크로 변환한 뒤 이를 웨이퍼 위에 놓고 자외선을 투과해 합성수지를 중합하고, 마지막으로 불이 만들어낸 전류가 흐르는 통에 웨이퍼를 넣고 구멍으로 전류를 흘려보내, 전류가 흐르면 레핑 프로세스를 통해 필요한 만큼 두께를 만들고, 표면과 합성수지가 용

해되면 비로소 휠이 완성된다. 이 공정들은 매우 심도 깊은 정밀함이 필요한 작업이며 이는 모리스 라크로아 매뉴팩처의 오랜 노하우를 엿볼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처럼 공장 구석구석을 투르게게 공개하고 제품 공정을 보여줄 수 있는 브랜드는 그리 많지 않다. 시계는 보는 것보다 직접 착용해보았을 때 진가를 알 수 있듯이 워치메이킹 역시 그 과정을 직접 보면 시계는 단순한 제품 아닌, 오랜 역사와 장인 정신, 혁신을 담은 시계, 그 이상의 가치로 다가온다.

뛰어난 기술력과 시대를 초월한 디자인의 만남

모리스 라크로아는 1백만 원대부터 1천만 원대까지 가격대가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다. 14개의 자사 무브먼트를 가지고 있으며, 이런 뛰어난 자사 무브먼트를 장착한 시계를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는 것, 더불어 매뉴팩처의 전문성과 시대를 초월한 디자인을 모두 겸비해 여러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은 이들만의 특별한 힘이다. 모리스 라크로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시계는 폰토스다. 그로시어로 바다를 지칭하는 이 시계는 정확도 높은 기능과 대중적이면서 스포티함을 갖춘 세련된 디자인으로 모리스 라크로아의 시계 라인 중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바젤월드에서는 FCB리셀로와 합금에 완성한 24개의 FCB리셀로나 폰토스 S 리미티드 에디션 출시했다. 이는 디자인 혁신과 더불어 젊은 층을 사로잡고 한 발 더 진보하는 모리스 라크로아의 열정이 담긴, 올해 가장 재미있고 큰 이슈가 된 워치 컬렉션이다. 국내에는 11월부터 한정판으로 출시한다고 하니 놓치기 말 것. 문의 02-3218-2248 메디트 권유진 (바젤 현지 취재)



Infinite Passion

에르메스는 명실공히 극강의 브랜드다. 워치메이킹 기술 또한 그렇다. 이번 바젤월드에서는 그러한 에르메스의 DNA를 고스란히 전달받아 감성이 돋보이는 아트 피스로 여겨질 만한 제품을 소개했다. 특히 다양한 기능과 매력적인 소재, 그리고 고난도 기법을 다한 슬림 데르메스 컬렉션은 에르메스의 새로운 얼굴이 될 것이 분명하다.

80여 년이 넘는 에르메스 워치의 역사

에르메스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바로 전통이다. 오랜 시간 쌓아온 수많은 아카이브와 전통은 에르메스가 현재까지도 궁극의 브랜드로 꼽히는 이유다. 명품 브랜드인 에르메스는 이미 80년 넘는 워치메이킹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알파인 스위스에 시계 공장을 건립한 진정한 워치메이킹 브랜드다. 2009년 아키타케 선보인 무브먼트 H1은 시계에 탑재하지 않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체재에 들어가 수많은 연구를 거친 후 탄생했다. 이 것만 봐도 에르메스가 얼마나 워치메이킹에 진지하게 임하는지 알 수 있다. 2010년 에르메스는 그간 출시한 18개 라인인 케이프 코드(Cape Cod), 아르세(Arceau), H-아워(Hour), 드레스지(Dressage), 엑셉셔널 타임피스(Exceptional Timepiece) 등 5개 라인으로 정리했고, 무브먼트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부 기계식 시계에는 무브먼트 제조사 보세(Vacheron)와 협력 생산한 H1837, H1912, H1925와 같은 에르메스만의 무브먼트를 사용한다. 보세는 미셸 파르미지아니(Michel Parmigiani)가 창립한 파르미지아니 플라리에(Parmigiani Fleurier) 산하 무브먼트 제조사로, 파르미지아니 시계에는 모두 에르메스가 제작한 가죽 줄을 사용하는 만큼 최고를 지향하는 두 브랜드 간의 상생 관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에르메스 워치의 정수, 슬림 데르메스

에르메스는 2015년 바젤월드에서 워치메이킹 역사에 또 한 번 새로운 기록을 남긴 만한 컬렉션을 소개했는데, 바로 인상적인 성과를 올린 슬림 데르메스다. 슬림 데르메스 컬렉션은 시계 본연의 멋을 살린 클래식한 디자인부터 파페주얼 캘린더를 탑재한 컴플리케이션 워치, 그리고 프랑스의 자이공예와 일본의 아라에 기법을 다이얼에 적용해 예술 작품을 보는 것 같은 아트 워치와 에르메스 백티 패턴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화중시 계까지,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기법과 기발한 발상을 반영했다. 조화와 균형을 이룬 극도로 간결한 형태를 통해 시계에 대한 열정을 아름답게 표현한 슬림 데르메스의 매력은 바로 새롭게 디자인한 숫자, 시계 부문

자회사인 라 몽트 에르메스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필립 델로탈(Philippe Delhotal)이 디자인한 슬림 데르메스에는 필립 아펠로이(Philippe Apeloig)의 독창적인 타이포그래피를 이워 마크로 도입해 에르메스 메종의 그래픽 디자인을 접목했다. 가느다랗고 섬세한 숫자의 형태는 생동감 넘치는 운율을 더한다. 슬림 데르메스는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나누어 세 가지 크기로 출시하는데, 먼저 직경 39.5mm의 모델에는 에르메스 매뉴팩처의 H1950 울트라-신 무브먼트를 탑재했으며 마이크로-로터가 통합된, 2.6mm 두께의 아주 얇은 셀프 와인딩 클리버를 장착했다. 에르메스 매뉴팩처의 작품답게 H1950 또한 H1 모터로 장식했으며, 전통적인 시계 제작법에 따라 수작업한 브리지경사면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요소다. 직경 39.5mm 사이즈로는 가장 정교하다고 여겨지는 컴플리케이션 중 하나인 파페주얼 캘린더를 적용했다.

1 파페주얼 캘린더와 듀얼 타임을 함께 탑재해 주목받은 슬림 데르메스 파페주얼 캘린더. 2 새로운 타이포그래피의 인테스를 적용한 슬림 데르메스 39.5mm. 3 우아한 여성을 위한 슬림 데르메스 워치 스틸 & 다이아몬드. 4 에르메스의 실크 스카프에서 영감을 받은 슬림 데르메스 파스파티브 카탈레. 5 인그라빙과 에-렐링의 장수를 엿볼 수 있는 케이프 코드 지브라 페가수스. 6 슬림 데르메스에 장착한 셀프 와인딩 울트라-신 무브먼트. 7 아티스틱한 건축물과 같은 에르메스의 부스. 8 일본 자이공예의 대인 부탄 후쿠사마.





GLYCINE

Passion of the Pilot

글라이신은 1938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바젤 페어에 참가하는, 무려 1백1년의 역사를 가진 스위스 워치 브랜드다. 독보적인 개성을 가진 글라이신 워치는 직접 눈으로 보고 착용해보면 그 진가를 알 수 있다.

빈티지 파일럿 워치의 대명사, 글라이신

시계 애호가들이 빈티지 시계에 열광하는 것은 유니크한 희소성과 더불어 오리지널 모델만의 독창적인 디자인 때문이다. 글라이신을 대표하는 빈티지 컬렉션이자 제2차 세계대전을 함께할 만큼 전설적인 '에어맨'은 2015년 바젤월드에서 탄생 1백1주년 에디션으로 재탄생해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번 바젤월드에서 특유의 재치 있는 입담으로 글라이신의 대표 컬렉션에 대해 쉽고 재밌게 설명해준 글라이신 CEO 스테판 락은 애정이 가득한 눈빛으로 브랜드 글라이신에 대해,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에어맨 컬렉션에 대해 열정을 열었다.

Q1 글라이신을 처음 접하는 독자를 위해 글라이신을 소개해 달라. 1914년, 시계 장인 유진 멜란이 스위스 비엔에 워치 팩토리를 설립한 이래로 꾸준히 최고의 시계를 만들어온 유서 깊은 스위스 메이저 워치 브랜드입니다. 오늘날 글라이신은 월드타이머와 항공 시계에 유니크한 디자인을 도입해 팔리던 높은 시계를 선보이며 진정한 선구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Q2 글라이신은 긴 역사와 전통만큼이나 방대한 빈티지 워치 컬렉션을 가지고 있다. 자체부터 빈티지 워치가 트렌드로 급부상했는데 글라이신에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지? 글라이신 에어맨 컬렉션처럼 수십 년간 아이코닉한 아이덴티티를 지켜온 빈티지 라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글라이신만의 큰 장점입니다. 이런 공유의 정체성이 트렌드로 함께 부각되는 것은 글라이신이 이 흐름을 주도하는 브랜드로 인식될 수 있기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Q3 글라이신은 마.아침이 굉장히 두각을 보여준다. 마.아침의 수준과 브랜드의 충성도를 평가한다면? 글라이신은 켈트 브랜드에 가까워요. 특히 에어맨 컬렉션만 수집하는 컬렉터가 있을 정도로, 대표적으로 에어맨에 관련한 책을 매년 에어맨 전문가 앙드레 스테카스와 글라이신 전문가 알렉 카리스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글라이신 마.아침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요.

Q4 글라이신에 입사해 처음 접한 시계는 무엇이며, 가장 사랑하고 즐겨 차는 시계를 하나 꼽는다면? 첫 글라이신 시계는 에어맨 SST12입니다. 이는 초음속 항공기 SST12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한 것이죠. 멀리서 보아도 에어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시계입니다. 글라이신의 제품 중 꼭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에어맨의 아이덴티티와 개성 있는 디자인을 결합한 '에어맨 에어파이터'를 꼽고 싶습니다.

Q5 올해 바젤 신제품 중 추천하고 싶은 워치 컬렉션은? 24시간 GMT 디스플레이 기능을 추가한 '에어맨 DC-4'가 글라이신의 가치를 가장 잘 드러낸다는 점에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특히 오리지널 모델의 빈티지한 디자인을 실려 광장히 멋스러워요.

Q6 생애 첫 기계식 시계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글라이신 워치를 추천한다면? 글라이신 에어맨은 단순한 파일럿 워치가 아니라, 여행을 많이 다니는 사람에게도 유용한 시계입니다. 특히 에어맨 더블 트윈볼브는 합리적인 가격에 멀티플 타임 존 시계를 구입할 수 있는 점에서 기계식 시계에 입문하는 이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애더 권유

1 글라이신 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CEO 스테판 락, 2 바젤월드 홀 1, 2층에 위치한 글라이신 부스, 3 트리플 타임 존이 인상적인 파일럿 시계 에어맨 에어파이터, 4 미국 비행기 제조사 더글러스 에어크래프트사가 만든 DC-4를 기념해 탄생한 에어맨 DC-4.



MAURICE LACROIX

Successful Innovation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무려 13번 수상한 강력을 가진 워치 브랜드가 있다. 혁신적인 디자인과 더불어 뛰어난 기술력을 적용해 세계 시장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리스 라크로아이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독보적인 디자인으로 승부하다

부스에 들어서자마자 눈을 사로잡는 디자인과 화려한 수상 경력에 빛나는 모리스 라크로아. 특히 세계 최초로 사파이어 컷을 도입한 시계 마스터피스 레굴레이터 루 가베와 2015 바젤월드 신제품인 마스터피스 파워 오브 러브는 모리스 라크로아의 디자인 혁신을 여실히 증명하는 시계다. 휠이 돌아면서 'LOVE'의 글씨를 완성하는 마스터피스 파워 오브 러브는 사랑하는 이에게 선물하는 시계라는 로맨틱한 스토리까지 담아 더욱 특별하다. 이와 더불어 모리스 라크로아의 올해 가장 큰 이슈는 FC버셀로나와 협업체 완성한 24개의 폰토스 리미티드 에디션 출시하는 것.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큰 주목을 받은 모리스 라크로아의 매니징 디렉터 스테판 웨이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Q1 워치메이커가 만든 시계라고 생각하기에는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돋보이는데, 시계 제작 시 커뮤니케이션 순서와 과정이 궁금하다. 어떤 프로젝트든 먼저 창의력을 발휘해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을 한다. 그런 다음 생산 단계에 들어간다. 시계의 무브먼트를 개발한다는 것은 차 연장을 제작하는 것과 매우 흡사해요. 예를 들면 모리스 라크로아의 그래픽 디자인 시계에 사용되는 무브먼트는 2개 개가 넘는 부품으로 구성되는데, 이 부분이 바로 기술적 노하우와 정교한 디자인의 조화를 할 수 있습니다.

Q2 FC버셀로나와의 파트너십은 어떻게 일어난다. 수천만 명의 팬을 거느린 FC버셀로나와 합작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들 것 같다. 많은 팀들 중 FC버셀로나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나? 모리스 라크로아는 FC버셀로나와 마스터피스 성공의 상징입니다. FC버셀로나와 모리스 라크로아는 스페인에서부터 핵심 본질, 그리고 진보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까지 매우 닮았어요.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모리스 라크로아는 축구 팬이나 시계를 좋아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어필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찾고자 고민부주했습니다. 이를 위해 FC버셀로나 팀 내 개발 선수들이 디자인한 24개 유니크 폰토스를 곧 공개할 예정입니다. 관중에서 특별한 아이디어와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고객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려고요 믿습시다.

Q3 메모리 기능을 갖춘 기계식 시계 '메모리 1'을 선보였듯이 모리스 라크로아의 기술은 늘 한발 앞서가고 있다. 최근 하이엔드 워치 시장에서 스마트 워치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 스마트 워치를 출시할 예정이 있는지, 또 이런 트

랜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의 목표는 고객을 위한 최고의 시계를 찾아내고 개발하는 것입니다. 당분간은 스마트 워치 시장과 최신 기술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모리스 라크로아와 맞는 그 무언가가 있는지 눈여겨볼 예정입니다. 고객이 모리스 라크로아를 선택하는 이유는 브랜드의 퀄리티, 신뢰, 그리고 진실성입니다. 모리스 라크로아가 선보이는 모든 것들은 바로 이런 요소의 기반 위에서 완성된다고 봅니다.

Q4 하이엔드 워치 브랜드인 모리스 라크로아가 젊은 층이 주를 이루는 SNS에 주목한다는 점이 신선하다. 아시다시피 모리스 라크로아는 고객에게 다가가기 위해 제품뿐만 아니라 디지털 마케팅을 통해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획기적이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꾸준히 제공하고 있죠. 앞으로의 온라인 활동은 FC버셀로나 유니크 팬즈 워치 캠페인 주를 이끌 것입니다.

Q5 모리스 라크로아가 유럽에서는 엄청난 판매고를 올린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시아 시장에서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닌 듯하다. 아시아 시장에서 앞으로의 전략이나 아시아 시장을 타겟으로 비중 있게 생각하는 워치 라인에 있는지? 오토매틱 무브먼트인 '폰토스 데이/나이트' 컬렉션은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베스트셀러로 통합니다. 또 클래식 타임피스도 아시아 고객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이 컬렉션들은 클래식한 디자인에 가격대가 적절해 큰 사랑을 받고 있죠. 아시아 고객들은 시계 산업에서 장인 정신과 기술적 요소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고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마스터피스 컬렉션에 현대적 아름다움과 스위스 장인 정신을 성공적으로 혼합해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Q6 모리스 라크로아에 입사해서 가장 처음 착용한 워치는 무엇이었, 첫인상은 어땠나? 8년 전 입사할 당시 처음 착용한 시계는 '폰토스 데이'였습시다. 폰토스 데이트는 멋진 스타일에 재치 있는 디자인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시계입니다. 오늘날 모리스 라크로아의 베스트셀링 제품 중 폰토스 데이트가 미래의 클래식상을 대표하리라 생각합니다. 애더 권유

1 3개의 휠이 회전하면서 'LOVE'를 완성하는 마스터피스 파워 오브 러브, 2 올해 바젤월드에서는 모리스 라크로아의 글로벌 홍보대사로 배우 정경진 씨가 참석해 화제를 모았다, 3 모리스 라크로아의 매니징 디렉터 스테판 웨이저, 4 청담 타운 소재로 만들어 매우 가볍고 튼튼한 폰토스 S 레가라.



interview
Stephane
Waser



CHRONOSWISS

Inventive Step

놀라운 가격의 엔트리 라인, 뛰어난 확장성을 갖춘 디자인, 선택의 폭이 넓어진 컬렉션으로 대중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간 크로노스위스. 2015 바젤월드에서 크로노스위스는 기존 스테디셀러 컬렉션에 다양성을 더해 새로움으로 중무장했다. 새롭게 변신한 시리우스 컬렉션과 타임마스터는 놀리움 그 자체였다.



진정한 워치메이킹 브랜드

1970년대, 쿼츠 쇼크로 스위스 시계업체가 큰 타격을 입으며 도산하는 업체가 늘어났다. 당시 태그호이어에서 워치메이커로 근무하던 게르트 루디거 랑(Gerd Rudiger Lang)은 기계식 시계 기술을 계승하기 위해 독일 뮌헨에 공방을 설립했는데, 이것이 크로노스위스의 시초다. 시간이란 의미의 '크로노'와 '스위스'를 합성한 브랜드 이름에 걸맞게 자체 무브먼트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2010년 100% 자사 무브먼트를 실현함으로써 진정한 워치메이킹 브랜드로 성장했다. 2015년 바젤월드에서 크로노스위스는 브랜드 특유의 기술력을 담은 시계를 선보였다. 크로노스위스의 대표 모델인 시리우스 레굴레이터 모델은 점핑 아워 방식으로 변모했고, 타임마스터는 새로운 소재 '카본'을 도입해 변화를 꾀했다. 시리우스 빅 데이트 모델은 스몰 세컨즈와 만났고, 타임마스터는 더욱 세련된 디자인으로 탈바꿈했다. 여성 컬렉션은 자개와 다이아몬드를 더해 기존 크로노스위스 컬렉션 중에서 보기 드문 화려한 아트 피스를 완성했다.

크로노스위스의 모든 매력을 담은 시리우스

2015년 바젤월드에서 크로노스위스는 남녀 컬렉션 모두 시리우스에 집중한 듯 보였다. '시리우스 레굴레이터 점핑 아워', '시리우스 빅 데이트 스몰 세컨즈', 그리고 여성 컬렉션인 '시리우스 문페이스 다이아몬드' 등등 여러 버전이 탄생했다. 먼저 시리우스 레굴레이터 점핑 아워 위치는 시침 대신 1~12까지 숫자를 새긴 회전 디스크 판을 이용해 다이얼의 작은 창에 시를 표시하는 시계다. 점핑 아워판 59분 59

초에서 정각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디스크 표시가 마치 점프하듯이 바뀌는 것을 말한다. 크로노스위스는 이러한 점핑 아워 방식의 레굴레이터 다이얼을 담은 제품을 두 가지 버전으로 선보인는데, 하나는 일반 컬렉션의 '시리우스 레굴레이터 점핑 아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티스트 라인의 '시리우스 아티스트 레굴레이터 점핑 아워'다. 아티스트 라인에서 출시한 신제품은 바깥쪽 다이얼에 에나멜링을 더해 보다 화려하고 예술적인 감성이 두드러지고, 에나멜링 특유의 크래프트맨십이 돋보이는 모델이다. 블루와 화이트 에나멜 다이얼을 장착했으며 에나멜과 섬세한 기묘세를 조합해 다이얼에 오묘한 입체감을 더했다. 크로노스위스의 컬렉션 중 점핑 아워를 처음 사용한 벨파스의 기묘세 패턴을 적용한 레굴레이터 다이얼과 블루 핸즈, 그리고 크로노스위스 전매특허인 양파 모양의 크라운이 특징이다. 시리우스 빅 데이트 스몰 세컨즈는 크로노스위스에서 꾸준히 사랑받는 스테디 컬렉션으로 기존 시리우스 스몰 세컨즈가 플레인 다이얼이었고, 시리우스 빅 데이트가 빅 데이트와 파워 리저브의 조합이었다면 이번엔 선보인 신제품은 '빅 데이트와 스몰 세컨즈의 만남'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정교한 기묘세 패턴으로 한층 더 클래식하고 세련된 무드를 연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12시 방향의 커다란 데이트 창이 날짜를 알려주고, 6시 방향에는 스몰 세컨즈 창이 위치한다. 스몰 세컨즈 창 다이얼의 문양이 기묘세 패턴과 다른 것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이 모델은 로즈 골드와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 버전으로 출시된다. 반면 2015 바젤월드에서 크로노스위스의 여성 컬렉션은 자개와 다이아몬드의 만남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한 빛을 발산했다. 직경 40mm 케이스의 베젤에는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했고, 다이얼 내부는 영롱한 빛이 도는 자개로 장식되어 있다. 베젤뿐만 아니라 케이스 전체는 물론, 케이스 백까지 다이아몬드가 폴세팅된 모델도 있다. 베젤에 세팅한 다이아몬드는 72개라 총 0.92캐럿이며, 폴세팅의 경우 총 1.7캐럿, 2백20캐라



1 기계식 시계 기술을 계승하는 크로노스위스의 부스, 2 남성적이고 스포티한 디자인이 시선을 끄는 타임마스터 150, 3 세컨드 타임 존의 시계를 보여주는 실용적인 기능과 블루 선레이 다이얼이 특징인 타임마스터 GMT, 4 시침 대신 1~12까지 숫자를 새긴 회전 디스크 판을 이용해 다이얼의 작은 창에서 시를 표시하는 시리우스 레굴레이터 점핑 아워 워치, 5 크로노스위스의 대표 모델인 시리우스 컬렉션 워치들.

는 놀라운 수의 다이아몬드를 사용했다. 그리고 6시 방향에 위치한, 별이 빛나는 하늘과 미소 짓는 달이 함께하는 문페이스로 화려함에 방점을 찍었다. 미니멀리즘을 지향하던 크로노스위스의 디자인 철학을 떠올려보면 이번 컬렉션은 화려하기 그지없다. '시리우스 문페이스 다이아몬드'는 스테인리스 스틸과 로즈 골드, 폴세팅 로즈 골드 모델 등 세 가지 모델로 출시된다.

완전히 새로운 얼굴, 타임마스터

자동차에 대한 지극한 애정을 드러낸 타임마스터는 클래식하고 미니멀한 디자인을 지향하는 컬렉션 중에서도 가장 남성적이고 스포티한 컬렉션으로 꼽힌다. 이번엔 선보인 타임마스터 150과 타임마스터 GMT 컬렉션이 바로 올해의 주인공이다. 먼저 타임마스터 150은 지금까지 크로노스위스에서는 보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다. 외관 디자인은 타임마스터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냈지만, 선레이 다이얼과 2·4·8·10 인덱스, 6시 방향의 날짜 창, 그리고 150m 방수 기능에서 새로운 시도를 엿볼 수 있다. 6시 방향의 날짜 창이 트리플 데이트로 표시되는 것 또한 기존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직경 41mm 케이스의 베젤에 스포티한 무드의 인덱스가 인상적이다. 스포티 라인답게 핸즈와 인덱스 모두 슈퍼 루미노바를 코팅해 가독성을 높였다.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타임마스터 GMT는 세컨드 타임 존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능과 매력적인 디자인을 모두 잡았다. 타임마스터 GMT에서 주목해야 할 요소라면 단연 소재다. 처음으로 카본 소재를 사용한 다이얼을 장착해 스포티하면서도 견고한 남성성을 드러냈다. 여러 개의 레이어로 구성된 안트라치테 컬러의 카본 다이얼은 특유의 질감을 극대화했으며 타임마스터의 스포티한 케이스와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또 다른 버전의 갈바니 블루 다이얼은 선레이 기법으로 완성해 각도에 따라 변하는 다이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Crystal World

바젤월드의 홀 1.1에서 에스칼레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면 중앙 정면에 화려하게 빛나는 크리스털 왕국이 있다. 전체 부스를 크리스털로 장식해 매년 가장 크고 화려한 부스 디자인을 선보이는 스와로브스키는 올해에도 역시 패셔너블하고 아름답게 반짝이는 워치 컬렉션과 주얼리를 대거 출시했다. 브랜드 이름 자체가 크리스털을 상징하는 고유명사로 여겨질 정도로 크리스털 제조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스와로브스키의 2015년 크리스털 월드로 초대한다.



워치로서의 포지셔닝을 견고히 하고 있다. 어쩌면 여성들의 극적이고 반짝이는 순간을 기록하는 스와로브스키에 워치 컬렉션의 출시는 필연적인 것일지도 모른다. 이처럼 정통적인 시계 브랜드가 아님에도 바젤월드로에서 주목받을 수 있었던 이들의 원동력은 여성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파악하

고 최고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겠다는 브랜드의 목표와 철학이다. 스와로브스키 워치 컬렉션은 세련되고 모던한 여성을 모티브로 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즉 비즈니스 룩과 이브닝 룩에 완벽하게 매치할 수 있는 패션 위치를 지향한다. 스와로브스키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나탈리에 콜린은 〈스타일 조선폰보〉와 나눈 인터뷰에서 “저는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모든 여성을 위한 디자인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현대 여성들은 직장에서는 프로페셔널한 커리어 우먼의 역할을, 가정에서는 완벽한 엄마의 역할을 하기 위해 매일 고군분투하죠. 그러면서도 항상 아름다움을 유지해야 해요. 저에게 이런 모든 현대 여성들이 뮤즈이고, 그녀들을 위해 디자인하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또 그들의 일상생활에 스와로브스키의 아름다움은 제품으로 스파클링한 포인트를 더해주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라고 자신의 디자인 철학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실용적이고 스타일리시한 코드를 담다

올해 스와로브스키는 다섯 가지 새로운 시계 라인과 함께 베스트셀러 아이템을 리컬러링해 선보였다. 이번 신제품의 공통점은 모던한 룩에서부터 페미닌하고 우아한 스타일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웨어러블하고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이 눈에 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다른 주얼리나 액세서리와 믹스 매치할 수 있는 감각적인 컬러와 소재는 아름다운 디자인과 더불어 실용성을 중시하는 스와로브스키의 모토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베리, 라이트 블루, 시트린, 핑크, 에메랄드 그린 등 다양한 컬러 팔레트를 통해 컬렉션 전체에 풍성함을 더했으며 새로운 소재의 활용도 눈에 띈다. 타원형 크리스탈린 워치는 K1 미네랄 글라스로 만든 곡선 케이스를 장착했고, 세라믹, 지르코니아 스톤, PVD, 스테인리스 스틸 등 다양한 소재의 변주도 주목할 만하다. 수많은 컬렉션 중 단연 시선을 사로잡는 신제품은 아이리 데이 워치다. 총 52개의 파베 세팅한 크리스탈이 스테인리스 스틸 베젤을 감싸 우아한 빛을 더했고, 기존 스트랩과 더불어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할 수 있는 더블 스트랩과 다양한 컬러 구성으로 패션 위치의 면모를 한껏 드러냈다. 또 심플하고 캐주얼한 매력을 지닌 데이 타입은 그 어떠한 패션 스타일과도 완벽하게 매치할 수 있어 스와로브스키의 새로운 루키로 부상할 예정. 군더더기 없이 모던한 케이스 디자인에 48개의 투명 크리스털을 세팅해 화려함을 배가했으며 클래식한 스테인리스 스틸 브레이슬릿 외에도 밝은 시트린과 라이

향상시킨 규격

트 블루, 블랙, 화이트 컬러까지 다채로운 컬러의 스트랩이 특징이다. 더불어 10~20대 젊은 층을 공략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대로 선보여 보다 공격적인 워치 마케팅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랜디한 동시에 클래식한 디자인의 ‘크리스탈린 오벌’ 역시 올해의 키 아이템. 1천7백여 개의 크리스털로 빼곡히 장식한

케이스가 다이얼을 감싸고 있어 광활하고 신비로운 우주를 떠도는 행성을 연상케 한다. 타원형과 원형 두 가지 버전으로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이며, 다섯 가지 컬러를 가미한 컬러 스트랩으로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 름에서도 느껴지듯 사랑스러운 느낌이 가득한 베스트 셀러 ‘라블리 크리스털 컬렉션’은 다양한 컬러로 리컬러링해 선보였다. 16개의 움직이는 스와로브스키 지르코니아 원석으로 감싼 케이스와 자개 다이얼의 조화는 우아하면서도 여성스럽다. 손목의 움직임에 따라 회전하는 원석을 보는 재미도 이 시계의 묘미다. 스와로브스키의 모든 컬렉션에는 크리스털을 사용하지만, 단순히 장식용으로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 과정에서부터 크리스털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하는 것이 특징이다. 스와로브스키만의 시그니처는 크리스털 파베, 보는 이를 매혹시키는 크리스털 메시 스트랩, 파세팅 크리스털, 세라믹 베젤로 표현해 스와로브스키만의 전문성을 보여준다. 특히 스와로브스키만이 표현해내는 광채의 진가는 케이스에 1천7백여 개의 크리스털을 세팅해 절대적인 화려함을 자랑하는 ‘크리스탈린 오벌’과 블랙, 화이트, 또는 로즈 골드 톤의 다이얼 위에 1백75개의 투명 크리스털을 세팅한 ‘옥테아 드레스에서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이 두 제품 모두 올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이니 기대해도 좋다. 문의 1661-9060

에디터 권유진 (바젤 현지 취재)



1, 2 전면을 크리스털로 장식해 화려한 궁궐을 자랑하는 스와로브스키의 부스. 3, 10 라운드 파세팅 베젤과 케이스 내부의 성층판 크리스털 파베 세팅이 돋보이는 옥테아 드레스. 4 손목이 움직일 때마다 회전하는 16개의 스와로브스키 지르코니아 원석이 매력적인 라블리 크리스털 컬렉션. 5 밝은 시트린 컬러 스트랩이 신선했고 모던한 데이 타입. 6, 7 스와로브스키의 부스에서는 수백 개에 달하는 워치, 주얼리 신제품과 스와로브스키의 하소독한 아트 파스를 함께 전시했다. 8, 11 다채로운 컬러, 더블 스트랩 등 스타일리시한 코드를 담아 다른 액세서리와 함께 레이아웃할 수 있는 아이리 데이. 9 1천7백여 개의 크리스털로 장식해 화려한 반짝임이 눈길을 사로잡는 크리스탈린 오벌.

interview Nathalie Colin

01 최근 스와로브스키는 워치뿐 아니라 전 제품에서 패션 브랜드를 넘겨갈 정도로 다양한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다. 창의력의 원동력은 무엇인지? 저는 다양한 곳에서 영감을 받는데, 그중 여행을 하며 느끼고 보는 자연은 끝없는 영감의 원천입니다. 이번 F/W 컬렉션의 주제는 ‘윈터 가든(winter garden)’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은 정원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습니다. 이번 컬렉션은 두 가지 테마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영국식 디자인을 상징하는 빈티지 테피스트리, 데보레 발레, 여성스럽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레이스 등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다양한 패턴과 패턴에서 영감을 받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의 정원에서 영감을 받아 유기적인 면에서도 관능적인 컬렉션을 완성했습니다.

02 시계를 포함해 이 방대한 컬렉션을 선보이기 위한 디자인팀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는지? 아시아, 유럽, 미국 등 전세계 22개 국가에서 온 25명의 디자이너와 함께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창의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지닌 감각적이고 재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 덕분에 언제나 다채롭고 재미난 컬렉션을 선보일 수 있는 것이지요.

03 올해는 트랜디하고 패셔너블한 시계를 선보이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했는데, 소재와 컬러, 디자인 등에서 스와로브스키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디테일을 설명한다면? 스와로브스키 시계의 모토는 매일 착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제안하는 것인데, 그리고 무엇보다 스와로브스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크리스탈의 활용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저희는 시계를 디자인할 때 처음부터 크리스탈을 염두에 둡니다. 스와로브스키의 워치 컬렉션을 통해 크리스탈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04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아이리 데이 다를 투어 워치에서 볼 수 있듯 스와로브스키의 매력은 레이아웃과 믹스 매치라고 생각된다. 스와로브스키 워치를 가장 매력적으로 스타일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달라. 시계는 하나의 완벽한 브레이슬릿이자 액세서리입니다. 시계는 그 자체로 패션 소품이기 때문에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만, 한쪽 손목에 주얼리처럼 다른 브레이슬릿과 믹스하면 트렌디한 룩을 연출할 수 있어요. 컬러 톤이나 소재가 비슷한 제품을 매치하면 감각적인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죠. 제가 지금 착용한 것처럼 스틸 워치에는 메탈 밴드를, 가죽이나 새틴 스트랩 워치에는 유연한 가죽 브레이슬릿을 매치하는 식으로 말이죠.

05 매일 착용할 만큼 애정을 갖고 있는 워치를 꼽는다면?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인 크리스탈린 오벌 워치입니다. 케이스에 1천7백여 개의 크리스



탈이 가득한 이 시계는 곡선형 케이스에 가늘고 긴 실루엣에서 느껴지는 우아한 매력을 부각하며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하죠. 또 다섯 가지 컬러로 출시되니 그날그날의 룩과 느낌에 맞게 고를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에요.

06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바젤월드로에 참여한다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 물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이런 멋진 크리스탈 왕국을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흥분되는 일이지 않나. 그중에서도 제가 바젤월드를 통해 얻는 가장 큰 수확은 세계 각국에서 온 기자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각 나라를 대표하는 기자들과 저의 영감, 컬렉션, 비전 등에 대해 공유하고 스와로브스키의 철학을 알리는 일을 바젤월드로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매력입니다.

be Gentle

올해 바젤월드에서는 디자인과 성능, 합리적인 가격까지 갖춘 엔트리 위치가 대거 출시되었다. 뛰어난 스위스 메이드 무브먼트를 장착한 시계를 매력적인 가격대에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기계식 시계를 처음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사회 초년생의 앞길에도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엔트리 위치 리스트,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헤르메스 슬림 테르메스 GM** 최고 실용한 디자인이 특징인 타임피스. 루버르의 아트 컨설팅 담당 그래픽 디자이너인 필립 아펠로이가 개발한 시계를 사용했다. 모던한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해 가독성을 높였고, 6.6mm의 울트라-스리무브먼트를 탑재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문의 02-3448-0728 **크로노워스 세리우스 빅 데이트 스몰 세컨드** 12시 방향의 커다란 데이트 창과 6시 방향의 스몰 세컨드가 특징인 위치. 크로노워스 제품 중에서 꾸준히 사랑받는 클래식 스타일로, 스몰 세컨드 내부의 기묘한 패턴이 눈길을 끈다. 심플하면서도 오래 착용할 수 있는 스타일링의 매력을 선호한다면 안심할 것이다. 문의 02-310-1737 **롤리온 로마 파나시오** 롤리온 파나시오 무브먼트, 로마 투모가스와 함께 롤리온 로마 파나시오 40주년을 기념하는 상징적인 타임피스. 41mm 스틸 케이스로 초슬림 섀시와 인라인 애플백 메카니컬 무브먼트를 탑재했다. 65시간 파워 리저브가 가능하며 베젤에 새긴 로고 디자인이 인상적이다. 문의 02-2056-0172 **티소 수랑 데 무벨** 티소의 고풍한 스위스 르 로콜의 가위 이름을 따서 명명된 위치. 티소의 역사를 담았다고 할 수 있는 제품으로, 3개의 핸즈와 크로노그래프 기능, 로마숫자 인덱스가 눈길을 끈다. 가장 합리적인 가격의 기계식 시계를 원하는 이들에게 추천한다. 문의 02-3467-8795 **브레게 클라시 5177** 브레게의 바스텔라인 클라시 5177의 뉴 버전. 심바 골드 디자인에 일체형인 토포는 클루드 피리 패턴을 적용했다는 점이 시들다. 높은 가격으로 쉽게 접할 수 없는 브레게 위치 중에서도 엔트리 라인으로 출시된 제품인 만큼 조금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가격대가 매력적이다. 문의 02-3438-6218 **롤렉스 글래시 모넬** 롤렉스의 클래식한 아름다움의 정석으로 손꼽히는 롤렉스의 대표 위치. 고급 스포츠인 스포의 위엄을 담은 시계로, 합리적인 가격에 모넬이라는 정통 클래식한 이름을 뽐낸다. 문의 02-3149-9532 **부쉐론 에뮤어 스틸** 2년 전 골드로 출시했던 에뮤어의 새로운 타임피스. 12시 방향에 위치한 카보숑 컷 스파이어가 돋보이며 3과 9 인덱스를 크게 표현해 그래픽적인 면을 강화했다. 심플하면서 세련된 스타일의 시계를 찾고 있는 남성에게 추천한다. 문의 02-3213-2246 **라도 쿼츠 클라시** 로즈 골드 케이스와 심플한 컬러 디자인이 포인트인 위치. 80시간 파워 리저브가 가능하며 세컨드 위치를 구입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제격이다. 디크 브라운 레더 스트랩과 긴밀한 인덱스 디자인이 차분하면서 따뜻하게 느껴진다. 문의 02-3149-9582 **에디터 베이전, 칼라베**

머플러 **에르메네르조 제나**, 사선 스트라이프 패턴이 브라운, 네이비 도트 패턴 패턴이 **에르메네르조 제나**.

시계 디자인의 영감을 얻은 에르메네르조 제나

한정 시간 구입

라도의 심장, 최첨단 소재

라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최첨단 소재를 시계에 최초로 도입했다는 사실이다. 지금은 많은 시계 브랜드가 베젤이나 케이스에 세라믹을 도입하지만, 그 시초는 라도였다. 라도가 세라믹 소재를 시계에 처음 도입한 것은 1986년으로, 인테그랄(Integral) 컬렉션을 통해 처음 소개했다. 특히 소재에 관심이 많은 라도는 1962년 하트 메달을 채용한 세계 최초의 스크래치 프루프 시계인 다이아스타(Diastar)를 내놓았고, 1986년 시계업계 최초로 하이테크 세라믹을 이용한 인테그랄을, 2004년 다이아몬드와 같은 강도를 자랑하는 다이아몬드 하이테크 세라믹을 V10K 컬렉션에 적용하는 등 라도는 신소재 개발에 앞장서는 스위스 시계업계의 중요 브랜드다. 최상의 디자인과 세라믹을 비롯한 혁신적인 소재의 융합으로 탄생한 라도의 시계들은 마적 수준이 높은 데다 뛰어난 착용감을 자랑한다. 2009년 영국의 유명한 산업 디자이너 제스퍼 모리슨(Jasper Morrison)이 디자인 작업에 참여한 r5.5 시리즈를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보다 고도의 디자인을 신소재로 구현하고 있다. 2012년에는 골드 톤의 세라모스를 만들어내는 등 디자인과 소재 개발 면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처럼 소재와 디자인 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라도는 무려 30여 개의 국제적인 디자인상을 수상했는데, 2000년대 들어 8백 개의 모델을 2백70여 개로 정비하는 등 브랜드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놀라운 발전, 메탈 컬러 세라믹

라도의 소재 혁신을 엿볼 수 있는 플라즈마 하이테크 세라믹은 미래 지향적인 메탈 컬러의 하이테크 세라믹을 말한다. 같은 하이테크 세라믹이지만 안에 '플라즈마'라는 단어가 덧붙은 이유는 제작 과정에서 라도의 전제특허 공정인 '플라즈마' 공정을 통해

컬러를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하이테크 세라믹은 블랙과 화이트 단 두 가지 컬러만 제작 가능했다. 그러나 라도는 1998년 플라즈마 컬러의 세라믹(Ceramica) 모델을 선보이며 하이테크 세라믹의 컬러 팔레트에 다양성을 부여했다. 플라즈마 공정은 화이트 하이테크 세라믹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고온의 오븐에 구워내는 산티링 공정이 끝난 후 플라즈마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이뤄진다. 산티링 공정을 끝낸 세라믹 파츠를 진공 용기에 넣고 20,000°C의 열을 가하면 공기 중의 메탄과 수소가 활성화되는데, 이들이 분자로 결합되어 주변의 세라믹 조각들과 반응한다. 이때 탄소가 발생하며 산화 지르코늄 세라믹 표면에 있던 산소를 밀어내고 티타늄 지르코늄 막을 형성하면서 플라즈마 컬러로 변한다. 이렇게 탄생한 플라즈마 하이테크 세라믹은 언뜻 스테인리스 스틸과 비슷하지만 좀 더 깊고 진한 컬러감으로 기쁨을 더해주며 시간이 지나도 처음과 같은 광택감을 유지한다. 또 컬러만 변화했을 뿐 하이테크 세라믹의 성질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 플라즈마 하이테크 세라믹 또한 가볍고, 스크래치

1 라도 하이퍼크롬 플라즈마 다이아몬드 리미티드 에디션, 2 스위스의 아인슈타인이 남긴 초콜릿 브라운 하이테크 세라믹, 3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4 초강력 위치의 대표 주자인 S3N4 하이테크 세라믹, 5 라도 고유의 매력을 모두 담은 하이퍼크롬 오토메틱 크로노그래프 타이머, 6 세라믹은 라도의 상징이자 브랜드의 가치를 드러내는 매력적인 소재다, 7 꾸준히 신소재 개발에 투자하는 라도는 매년 다른 브랜드에서 볼 수 없는 신제품을 선보일뿐더러 초강력이라는 측면에서 라도 브랜드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R A D O



에 강하다. 뿐만 아니라 피부에 닿았을 때 알레르기 유발하지 않으며 소재의 온도가 착용자의 체온에 맞춰져 지극히 없다.

라도의 마법, 현대적 연금술

이번 바젤월드에서 라도는 다양한 하이테크 세라믹 소재를 소개하며 '현대적 연금술'을 재현했다. 그중 가장 주목해야 할 모델이 바로 '플라즈마 하이테크 세라믹' 위치로, 이전보다 더욱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특징이다. 대표작인 모델로는 타이머 기능을 추가한 '하이퍼크롬 오토메틱 크로노그래프 타이머'와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다이얼을 장착한 '다이아몬드 리미티드 에디션', 그리고 베젤을 다이아몬드로 화려하게 수놓은 '하이퍼크롬 다이아몬드 리미티드 에디션' 등이 있다.

이번 바젤월드에서 라도를 설명하는 키워드는 바로 '컬러'였다. 지금까지 세라믹 소재의 특성상 블랙 또는 화이트 컬러로 제조할 수 있었던 반면, 이번에 개발한 라도의 신소재는 초콜릿을 담은 브라운 컬러와 실버 컬러의 하이테크 세라믹 위치를 발표해 보는 이들의 관심을 단번에 집중시켰다. 스위스를 상징하는 두 얼굴, 초콜릿과 시계를 얹어 하이퍼크롬 컬렉션에 초콜릿 브라운 하이테크 세라믹 모델을 추가한 것이다. 몇 년간의 연구를 통해 새로운 컬러에 대한 감정을 느낀 라도는 브라운 컬러의 세라믹을 제작하게 되었고, 다른 브랜드에서 선보인 브라운 세라믹과는 달리 라도의 초콜릿 브라운 하이테크 세라믹은 빛의 양과 각도에 따라 컬러감이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다(강한 빛에 가까이 노출될수록 브라운 컬러가 선명해진다). 스위스를 초콜릿 천국으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 스위스 전통 초콜릿 명가 메트르 쇼콜라티에(Maitres Chocolatiers)의 시그니처 컬러이기도 한 이 브라운 세라믹은 부품 위치마다 따라 매끈하게 또는 매트하게 제작해 감도를 높였다. 초콜릿 브라운 컬러로 제작한 하이퍼크롬 컬렉션은 총 3개의 모델로 구성된다. 우선 남성 컬렉션인 '하이퍼크롬 오토메틱 크로노그래프 타이머'와 여성 컬렉션 '하이퍼크롬 오토메틱 다이아몬드' 모델로 각각 999백, 6백 개로 한정 제작된다.

올해 바젤월드에서 가장 대중적인 관심을 받은 시계는 단연 플라즈마 하이테크 세라믹과 초콜릿 브라운 하이테크 세라믹 모델이었다. 하지만 각각이 남다른 트렌드세터들은 하나같이 하이퍼크롬 S3N4를 꼽았다. 모두 가장 라도스럽다고 평한 모델이다. S3N4는 실리콘 나이트 라이드(silicon nitride), 즉 질화규소의 원소이다. 강도가 높고 내열 충격성이 탁월해 고온 구조용 세라믹 소재로 포터블 원의 경주용 자동차 부품 소재로 활용된다. 하이테크 세라믹보다 더 높은 1,450바(bar)(vickers)의 강도로, 스크래치에 매우 강하며 면적당 무게가 3.4g/cm²에 지나지 않아 경량성 또한 우수하다. 이번에 선보인 하이퍼크롬 S3N4는 케이스부터 베젤,슬라까지 모두 매트 그레이 컬러의 S3N4 하이테크 세라믹 소재로 제작했으며 무브먼트의 브리지 소재도 블랙 알루미늄을 사용해 시계 전체 무게가 단 85g에 불과하다. 또 무브먼트를 수직해 파워 리저브를 64시간으로 늘렸기 때문에 용두를 감아야 하는 불편함도 줄어들었다.

다이아몬드를 사용한 여성 컬렉션은 강한 경도에 집중한 듯 보인다. 다이아몬드의 강인함과 우아함을 동시에 지닌 모델인 '하이퍼크롬 플라즈마 다이아몬드 리미티드 에디션'과 '다이아몬드 플라즈마 다이아몬드 리미티드 에디션' 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라도 하이퍼크롬 플라즈마 다이아몬드 리미티드 에디션은 다이얼을 둘러싼 로즈 골드 컬러의 베젤에 56개의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 플라즈마 다이아몬드 리미티드 에디션에는 로즈 골드 베젤에 72개의 다이아몬드가 세팅되어 있다.

시계뿐만 아니라 사용한 보석에 대해서도 보증을 제공하는 라도는 이 시계에도 최상급 워터마크 VVS 다이아몬드 0.834캐럿에 대한 보증을 발급해 품질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또 우아하고 기품 있는 메탈릭 광택의 플라즈마 하이테크 세라믹은 베젤과 핸즈의 로즈 골드 컬러와 대조된다. 투명한 케이스 백을 통해 블랙 오실레이팅 로터를 비롯해 오토메틱 무브먼트의 움직임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블랙과 화이트 세라믹 모델도 출시해 컬러 선택의 폭을 넓혔다. 문의 02-3213-4168

dynamic Dandy

누구보다 빠르게 최신 위치를 접할 수 있는 바젤월드에서 올해 주목해야 할 시계를 선택한다면? 활동적인 얼리어답터 남성들을 위해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구성으로 퍼스트 위치의 가치를 충분히 갖춘 엔트리 위치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스위스메이스트 워치
이 컬렉션의 대표작



(오른쪽 위부터 아래 방향으로) **리도 센트릭스 스퀘어** 리도가 올해 주목하는 가장 기술인 플러즈마 기법을 적용한 세라믹 워치, 화이트 세라믹을 애플워치로 보이도록 가공하는 기술로, 리도의 대표적인 엔트리 컬렉션인 센트릭스 컬렉션에서 처음 선보이는 스퀘어 다이얼 워치다. 세라믹 특유의 가벼운 무게와 스크래치에 강하다는 점에서 야외 활동을 즐기는 이들에게 추천한다. 문의 02-3149-9532 **해리슨 레인보우 스퀘어** 대중적인 디자인을 자랑하는 브랜딩 해리슨의 레인보우 스퀘어 컬렉션은 최고 수준의 정화성을 위해 개발한 레인보우 컬렉션의 새로운 타이피스트다. 80시간의 파워 리저브가 가능한 해리슨 독점 무브먼트인 H-10-S를 탑재했고, 합리적인 가격에 스퀘어 워치를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문의 02-3149-9593 **볼가리 디아고노 e-마그네슘** 항공기에 사용하는 초경량 신소재인 폴리머로 만들어 뛰어난 강도를 자랑하는 시계. 기동성을 높인 넓은 다이얼과 세라믹 베젤, 일체적인 케이스가 눈길을 끈다. 100m 방수 기능을 갖춰 해양 스포츠를 즐기는 남성에게 적합하다. 문의 02-2066-0172 **루진 콘퀘스트 클래식** **루비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 42mm 케이스와 셀프 와인딩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를 장착한 워치. 블랙 다이얼에 아들을 발하주는 루비 루비로 구성된 9개의 인덱스와 문베이스가 특징이다. 문베이스 워치의 높은 가격 때문에 구입을 망설이던 이들에게 화상식이 아닐 수 없다. 문의 02-3149-9532 **클라시온 에어맨 No 1** 세계 최초의 24시간 듀얼 타임 워치이자 전설적인 파일럿 워치.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클라시온의 대표 시계로 사랑받아온 오리진 에어맨의 초기 모델의 복제품이다. 에어맨의 아이코닉 디자인인 더블 인덱스와 시 방향의 베젤 고정 크라운은 오리진 에어맨을 사랑하는 워치 마니아들의 향수를 자극한다. 문의 02-3213-2245 **미도 카멘타 크로노그래프 칼리버 60** 애플워치의 확산을 모티브로 제작한 시계. 미도의 스테디셀러인 카멘타 라인의 DNA를 유지하기 위해 출시했으며, 전통적인 밸류 있는 세련된 다이얼과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가 남성적 매력을 풍긴다. 문의 02-3149-9599 **에디터 캐비진, 갈라비**

화이트 서츠 **에르메네제쥬 제나**, 새 모양 패턴 서츠 **프라다**.

Innovative Expert

티소의 강점은 단연 기술력이다. 실생활은 물론 극한의 상황에서도 완벽한 기능을 지원하는 티소의 시계에 접목한 수많은 기능을 나열하긴 해도 숨이 가쁠 지경이다. 이번 바젤월드에서 티소는 브랜드의 유산을 드러낸 럭셔리 라인과 스포츠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담은 스포티 라인을 선보였다.

전통과 혁신을 다한 실용성

1백62년이라는 깊은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적인 스위스 브랜드 티소는 '전통과 함께하는 혁신'이라는 모토로 기능이 뛰어난 쿼츠 기술과 매력적인 가격의 기계식 시계를 선보인다. 스위스 메이스트 위치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적합한 가격대와 다양한 컬렉션은 언제나 시계를 구매하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이번 2015년 바젤월드에서 티소는 브랜드의 오랜 역사와 기술력을 반영한 다양한 신제품을 대거 선보였다. 우선 럭셔리 라인에서는 티소 빈티지와 티소 슈망 데 푸렐, 그리고 티소 브리자포르 메카니컬 스퀘레톤을 소개했다. 먼저 티소 빈티지는 클래식한 18K 골드 케이스와 가죽 스트랩이 돋보이는 시계로, 남성용과 여성용, 오토매틱과 쿼츠 등 다양한 버전으로 출시해 개인의 개성과 취향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특히 다양한 버전 가운데에서도 여성용은 정교하게 골드 세공한 자개 다이얼을 적용해 우아한 매력을 드러냈다면, 남성용은 무연한 컬러의 그라데이션이 돋보이는 다이얼이 특징이다. 이 오토매틱 시계는 8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자랑하는 파워매틱 80 무브먼트를 장착하고 투명한 케이스 백을 적용하는 등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흡점을 데 없이 완벽하다. 이에 더해 동시대적인 감성까지 지니고 있어 티소의 과거와 현재를 융합한 컬렉션이라 할 수 있다. 티소 슈망 데 푸렐은 1907년 티소의 공장이 있던 스위스 르 로를 거리 이름에서 따와 명명한 모델명으로 티소의 역사성을 대표하는 특별한 제품이다. 이 시계는 폴리싱과 브러시 마감을 포함해 다양한 마감 방식으로 완성한 케이스와 현대적인 디자인을 통해 1백62년간 티소가 이룩한 제조 기술을 증명한다. 티소 슈망 데 푸렐 위치에는 12시와 9시, 6시 방향에 각각 크로노그래프가 장착되어 있고, 3시 방향에는 날짜 창이 자리한다. 이는 골드 로마숫자 인덱스에 장식한 환상적인 원형 클루드 파리 패턴처럼 아름다운 디테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화중시계 크로노미터 제조사로 유명했던 티소의 화중시계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오랜 전통과 유산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지닌 티소는 또



리도 센트릭스 컬렉션



1 다이내믹한 에-치가 나가는 티소의 부스. 2 타미스크린 시계, 뉴 티소 타-타치 엑스퍼트 솔라, 3 엔트리한 다이얼이 돋보이는 럭셔리 골드 워치, 티소 빈티지, 4 모터 스포츠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된 에-치와 스포티한 감성이 느껴지는 뉴 티소 PRS516, 5 우아한 케이스와 현대적인 디자인, 티소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모두 집약한 티소 슈망 데 푸렐, 6 티소의 오랜 전통과 깊은 연관이 있는 화중시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티소 브리자포르 메카니컬 스퀘레톤.

하나의 획기적인 화중시계를 내놓으며 박람회에도 참가한 이들의 이목을 단번에 집중시켰다. 티소 브리자포르 메카니컬 스퀘레톤은 화중시계로는 드물게 스퀘레톤을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 골드 처리한 케이스에는 로마숫자 인덱스를 더했으며 오픈워크 다이얼을 통해 구조적인 스퀘레톤을 시간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투명한 케이스 백을 적용해 정교한 무브먼트의 움직임까지 확인할 수 있다.

티소의 DNA, 스포츠맨십

스포츠를 사랑하는 티소의 DNA라고 볼 수 있는 다이내믹한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스포티 라인은 스포츠에 대한 티소의 열정과 자부심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라인이다. 티소는 과거부터 세계적으로 명망 높은 레이싱 경기와 아시안 게임 등의 공식 타임키퍼로 꾸준히 활동하며 새로운 기술과 스포츠맨십을 결합한 시계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 바젤월드에서는 또 하나의 기념비적인 시계를 내놓았는데, 뉴 티소 타-타치 엑스퍼트 솔라가 바로 그것이다. 최초로 시계에 터치스크린을 접목한 타-타치 컬렉션에 솔라 쿼츠 무브먼트를 장착해 별도의 배터리 없이 태양열로 시계의 동력을 지원하는 타-타치 엑스퍼트 솔라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기술적인 면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이 획기적인 신제품은 여러 가지 디테일로 기동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블랙과 블루 투톤으로 제작한 다이얼, 나침반을 형상화한 견고한 베젤, 그리고 6시 방향에 자리한 전자 창은 스포츠에 대한 티소의 열정과 기술력의 집약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모험가에게 완벽한 기능을 지원해줄 이 시계는 두 손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가죽 벨크로 브레이슬릿으로 제작해 배낭과 연결할 수 있도록 고안한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무엇보다도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20가지 펄스 터치 기능이 돋보이는 이 제품은 날짜와 주를 알려주는 영구 캘린더, 2개의 알람, 투 타임 존, 상대 압력을 적용한 기상 예보, 고도 편지를 적용한 고도계, 크로노그래프, 나침반, 타이머, 방위각, 레가타 기능과 백라이트 등 이 시계에 집약된 기능만 열거해도 숨가쁘다. 스포츠를 사랑하는 티소의 모터 스포츠는 잠들어 있던 뜨거운 열정을 들끓게 하는 요소다. PRS 516 위치는 티소의 놀라운 역사뿐만 아니라 모터 스포츠 마니아들에게 완벽한 시계가 될 것이라 자부한다. 시크한 무드의 블랙 다이얼에 자리한, 자동차 계기판을 형상화한 크로노그래프, 레이싱 카 엔진의 피스톤을 닮은 2개의 푸셔와 크라운, 스티어링 휠 형상에서 착안한 스트랩은 레이싱 카에 대한 티소의 경의를 상징한다. 이 컬렉션에는 최초로 60시간의 파워 리저브라는 새로운 고성능 무브먼트를 적용한 것 또한 주목할 만하다. 뿐만 아니라 소재 활용도 눈에 띈다. 타키미터는 충격에 강한 신소재 세라믹이나 카본 베젤을 적용했으며, 반구형 반사 방지 사파이어 글라스를 사용해 세련되면서도 깊이감 있는 맛을 드러낸다. 6시 방향에 위치한 날짜 표시 창과 카운터 옆의 볼륨은 마치 아름다운 레이싱 키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해 소장 가치가 높다. 문의 02-3149-8237



Quality Time

2015년 바젤월드에서 프레드릭 콘스탄트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시도로 눈길을 끌었다. 전통적인 워치메이커 기술력과 월드타이머, 문페이즈, 스마트 워치, 그리고 중국 전통 기법들을 접목한 다양한 워치를 선보인 것.

다. 화이트 디스크인 경우 낮을 뜻하고, 블루 디스크는 밤을 뜻한다.

여성 컬렉션의 레이디 슬림라인 문페이즈(Slimline Moonphase Manufacture) 워치는 60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단숨에 여심을 사로잡았다. 다이아몬드와 더불어 클래식한 디자인이 특징인 이 워치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바로 케이스다. 슬림라인 컬렉션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얇은 케이스 두께와 직경 38.8mm의 작은 사이즈로 여성 컬렉션으로서의 우위함을 더했다. 단 하나의 용도로 다양한 기능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다. 슬림라인 문페이즈 매뉴팩처 워치는 용도를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와 인딩이 가능하여 시간, 날짜, 문페이즈 세팅을 모두 하나로 조절할 수 있어 편리함을 더했다. FC-703 매뉴팩처 셀프 와인딩 칼리버를 탑재해 42시간의 파워 리저브 기능을 부여했고, 정교한 무브먼트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스카우트 케이스 백을 장식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바젤월드에서는 프레드릭 콘스탄트는 전통적인 스위스 워치에 아날로그적 감성과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 워치로 시선을 들뜨이게 했다. 최초로 선보인 '스위스 오톨로지컬 스마트 워치'는 실리콘 벨리에서 다양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운동 앱을 비롯한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유명 IT 기업인 풀파워 테크놀로지(Fullpower Technologies Inc)와 협력해 완성한 클래식한 디자인의 스마트 워치다. 스위스 오톨로지컬 스마트 워치는 풀파워사가 프레드릭 콘스탄트 그룹을 위해 제작한 스마트 워치 플랫폼 '모션 X-365 오톨로지컬 스마트 워치'를 통해 구동하며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스마트폰과 연동해 항상 정확한 시간과 날짜를 제공할 수 있는 올웨이즈 온 타임 & 데이트(always-on time & date) 기능뿐만 아니라 착용자의 하루 활동과 운동 시간, 경과 등을 추적하는 기능, 그리고 슬립 트레이를 통해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수면 시야에 대한 일정 기능까지 제공해 스마트한 라이프스타일을 지원하기 위해 프레드릭의 주목을 받았다. 문의 02-310-1970

New Revolution

자리드 페리고는 브랜드의 시그니처를 다시금 내세웠다. 1867년에 개발한 '쓰리 골드 브릿지 투르비온'과 또 다른 브랜드의 역사적인 인물인 마틴 리피타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파터 배럴에 포함된 스프링을 강하게 한 것이다. 일단 최대한 스프링을 감으면 마틴 리피터 와인딩 메커니즘은 '온-오프' 컨트롤을 쏠게 된다. 이는 시계를 와인딩하는 동안 스트라이킹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도록 해 부정확한 시간에 음향이 올라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한다. 특히 마틴 리피터 부품 중 시계는 물론 장각으로도 감지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진 '플라이휠(wheel)'을 사용했다. 해머 스트라이킹 속도를 감지하기 위해 특별한 설계한 이 부품은 음향 손실을 제한해 궁극적으로 음량의 질을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첫 번째로 시간(낮은), 다음으로 15분(고음과 저음의 결합), 마지막으로 분(고음) 순서로 소리 내어 어두운 곳에서 시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12시 방향의 이너 서클에 위치한 18K 골드 소재의 공 27개다. 이러한 공의 위치를 특성 때문에 조화로운 음파를 유지함과 동시에 미학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아울러 케이스 내부는 외부에서 전혀 볼 수 없음에도 음향 간섭을 제한하기 위해 전통적인 방식으로 장식하고 파나시켰다. 티타늄 소재와 결합해 새롭게 태어난 자리드 페리고의 상징이기도 한 '쓰리 브릿지'를 담은 네오 투르비온 쓰리 브릿지 워치도 눈길을 사로잡는다. 스테인리스 스틸에 비해 약 45% 가벼운 소재로 알려진 티타늄 소재와 더불어 샌드 블라스팅과 블랙 PVD 처리 등 고급스러운 마감 처리를 통해 완성도를 높였다. 총 2백45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셀프 와인딩 칼리버인 GP09400-0002는 6시 방향의 투르비온 케이스, 12시 방향의 배럴과 그 아래 고정된 기어 트레이를 나란히 배치한 대칭적인 구조로 디자인한 것이 특징이다. 배럴과 연결된 단방향 와인딩 시스템은 구동을 최적화하기 위해 재배치했으며, 플래타늄 소재 마이크로 로터는 배럴 아래에 위치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높였다. 덕분에 60시간이라는 뛰어난 파워 리저브 기능과 더불어 1분에 정확히 1회전하는 6시 방향의 투르비온은 80개의 부품을 갖추고 무게가 단 25g에 지나지 않는다. 올해 출시 70주년을 맞이하는 컬렉션도 있다. 바로 빈티지 1945 70주년 에디션 워치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자리드 페리고는 탄생 7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해를 기념하기 위해 빈티지 1945 스물 세컨즈와 빈티지 1945 쓰리 골드 브릿지 투르비온, 빈티지 1945 쓰리 골드 브릿지 투르비온 주얼리를 선보인다. 먼저 빈티지 1945 스물 세컨즈 워

치는 오리지널 모델의 고유한 특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향수를 자극한다. 셀프 와인딩 GP03300-0051 무브먼트를 탑재한 이 워치는 시간당 2만8천번의 진동을 자랑하며 46시간 파워 리저브 기능과 함께 시, 분, 초 기능을 지원한다. 빈티지 1945 쓰리 골드 브릿지 투르비온 70주년 에디션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수평 파나싱으로, 특히 핑크 골드 소재로 제작한 쓰리 골드 브릿지의 모서리에 주목할 만하다. 쓰리 골드 브릿지와 모서리에는 섬세한 챔퍼링을 통해 둥근 모양과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고 있다. 아울러 직사각형 케이스는 빛을 반사하는 화려한 마더 파나싱으로 마무리했고, 이는 메인 플레이트의 매트한 파나싱과 환상적인 대비를 이루며 하이엔드 파나싱의 정수를 보여준다. 아울러 6시 방향에 위치한 투르비온은 직경 10mm의 공간 내부에 80개의 부품이 장착되어 있어 감탄사를 자아낸다. 자리드 페리고는 1분당 1회전하는 투르비온의 진동을 유지하기 위해 배럴 아래 플래타늄 소재의 마이크로 로터를 장착한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를 탑재했다. 화이트 골드 소재의 모델은 단 18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되며, 화이트 골드 소재 1백20개의 바케트 컷 다이아몬드를 장식한 보다 화려한 모델은 8개의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선보여 희소가치를 더했다. 문의 02-3467-8372

1 전 세계 단 10개 한정 생산한 마틴 리피터 투르비온 골드 브릿지, 2 네오-투르비온 쓰리 브릿지, 3 섬세하게 손으로 인그레이빙한 쓰리 브릿지가 돋보이는 빈티지 1945 70주년 에디션, 4 한여름 도정적인 무브먼트를 생산하는 자리드 페리고.



High & Mighty

스페인어로 '나는 독강하다'라는 뜻을 지닌 미도(Mido). 까다로운 COSC 인증을 받은 크로노미터 제품을 그 어느 브랜드보다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로 선보인다는 점에서 가장 매력적이다. 2015년 바젤월드에서 스테디셀러 컬렉션을 재해석한 모델을 대거 선보여 눈길을 끈 미도의 2015 바젤 컬렉션을 소개한다.

코리아 리미티드 에디션부터 우아한 여성워치까지 2015 바젤월드의 미도 부스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멀티포트 GMT 코리아 리미티드 에디션, 미도 코리아의 한국 론칭 5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모델로, 12시 방향에 위치한 'Seoul' 로고와 6시 방향에 표시한 'Limited Edition' 네이밍 디테일이 인상적이다. 듀얼 타임 기능까지 더한 것은 물론 단 1백 개만 한정으로 출시하며, 블랙과 오렌지 컬러의 레더 스트랩과 함께 럭셔리하고 특별한 케이스에 담아 선보인다. 이와 함께 올해 주력 아이템으로 출시한 '멀티포트 칼리버 80 크로노미터'는 1940년에 탄생한 모델로, 기존의 클래식한 맛을 그대로 유지해 과거와 현재의 미도를 한눈에 볼 수 있다. COSC 인증을 획득한 무브먼트를 사용해 정확도를 인정받았고, 80시간의 파워 리저브 또한 가능하다. 또 하나의 신제품 '올 다이얼 스페셜 에디션은 스트랩 부분의 커링 에지 디테일이 돋보이는 라인으로, 정교하고 섬세한 세팅이 두드러진다. 올해 선보인 이 시계는 절제된 디자인과 섬세한 디테일에 남상적인 스포티함을 더해 새롭게 재해석되었다. 특히 무광 블랙 다이얼과 인덱스의 오렌지 컬러가 대비되어 동시대적인 감각을 기어낸 것이 특징이다. 미도는 여성용 컬렉션까지 대거 선보였는데 비론첼리 도나 칼리버와 비론첼리 레디 미나가 바로 그 주인공. 섬세하고 정교한 보석 세팅과 자개 다이얼을 결합해 극한의 우위함을 자아낸다. 보다 작은 사이즈의 주얼 워치 비론첼리 레디 미나는 25mm의 다이얼 케이스와 얇은 무브사 코팅 처리한 사파이어 글라스, 정교한 기호에 패턴, 자개 디테일의 다이얼 등으로 시계에 클래식한 맛을 부여했다. 이처럼 타임리스 클래식을 자랑하는 미도는 2015년 바젤월드에서 진정한 디자인의 상징이라는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여과 없이 보여주었다.

두 자리 수의 기록적인 성장을 이루다

미도 그룹을 이끌고 있는 CEO 프란츠 라데에 2015년은 광장히 의미 있는 한 해다. 한국 론칭 5주년을 맞이한 것과 더불어, 두 자리 수의 기록적인 성장을 이룬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시장 점유율이 더욱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5년간 한국 시장에서 빠르게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인 미도는 이를 기념해 다가오는 6월, '코리아 GMT 리미티드 에디션'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바젤에서 프란츠 라데와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Q1 미도가 올해 한국 론칭 5주년을 맞았다. 5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미도는 국내에서 빠른 성장을 이루었는데, 미도가 한국 시장에서 성공할 것이라고 예측하는가? 사실 우리는 미도 코리아를 론칭하기 전부터 한국 시장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했고, 빠르게 성장하는 한국 내 시계 시장의 동향을 보면서 큰 성공을 이루리라고 확신했습니다. 놀라게도 론칭한 후 지금까지 5년 동안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성과를 냈고, 매년 30% 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도의 뛰어난 상품력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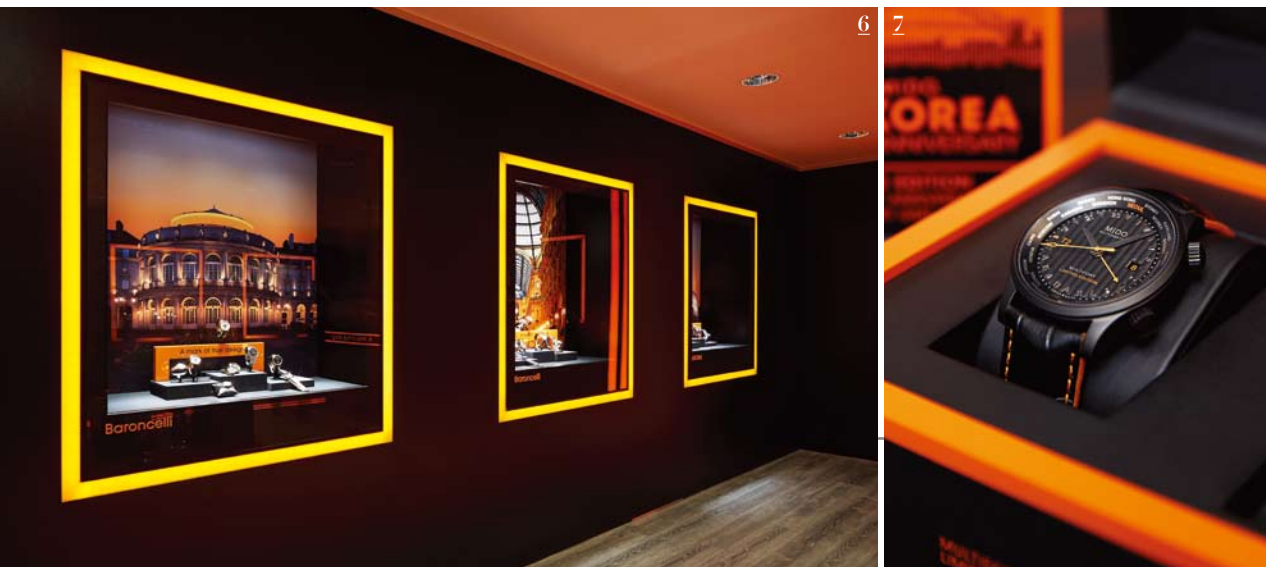
Q2 미도에 있어 한국 시장은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한국 워치 마니아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는가? 한국 시계 시장의 눈부신 성장은 바로 한국 소비자의 구매력 성숙도를 보여주는 지표이며 한국은 미도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5년 동안 미도 코리아가 거

둔 성장을 축하하는 의미로 '코리아 GMT 리미티드 에디션'을 론칭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다이내믹한 미도라는 '멀티포트' 컬렉션이 가장 높은 판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마도 젊은 시대에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인의 역동적인 성향이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의 워치 마니아, 특히 미도 마니아들은 무브먼트의 퀄리티를 중요시하며 합리적인 소비 행태를 보여줍니다.

Q3 이번에 선보인 비론첼리 중 가장 눈길을 끄는 컬렉션은 무엇인가? 올해는 여성용 워치가 특히 많이 출시되었습니다. 간결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이 특징인 25mm 다이얼의 비론첼리 미나가 대표적입니다. 작은 시계에는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장착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이는 미도만의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었기에 실현 가능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Q4 미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합리적인 가격대를 빼놓을 수 없다. 뛰어난 기술력과 오랜 전통을 지닌 미도가 보다 합리적인 가격대로 대중에게 접근하는 이유가 있는가?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퀄리티 높은 시계를 제공하는 것이 미도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미도는 잘 알려진 비와 같이 스위치 그룹에 속해 있어 최고 퀄리티의 무브먼트를 쉽게 공급받을 수 있고, 이것이 바로 고품질 시계를 합리적인 가격대로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1 미도 그룹의 CEO 프란츠 라데, 2 총 1,587개의 28개 다이아몬드와 영롱한 빛을 발하는 화이트 자개 다이얼이 우아한 비론첼리 도나 칼리버 80, 3 80시간의 파워 리저브가 가능한 COSC 인증 무브먼트를 탑재한 멀티포트 칼리버 80 크로노미터, 클래식한 디자인이 멋스럽다, 4 로마 콜로세움에서 영감을 받아 스트랩 부분의 커링 에지 디테일이 돋보이는 올 다이얼 스페셜 에디션, 5 7오렌지 컬러의 'Seoul' 네이밍 디테일이 돋보이는 멀티포트 GMT 코리아 리미티드 에디션, 6 건축가가 돋보이는 워치 컬렉션을 선보이는 미도의 부스.



Q5 미도에는 건축가가 돋보이는 워치 컬렉션이 특하다. 또 최근엔 세계 건축가협회(UIA)와 장려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해 큰 이슈가 되었다. 특별히 세계 유명 건축물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가 있는가? 미도는 슬로건인 'A Mark of True Design(진정한 디자인의 상징과 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름다움이 변하지 않는 타임리스 디자인을 지향합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름다움과 가치가 변하지 않는 건축물과 그 의미가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그 때문에 세계적인 건축물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한 시계를 선보이는 것이며, 더 나아가 UIA와 파트너십을 맺어 건축과 미도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Q6 미도는 아주 매력적인 여성용 워치 라인업이 있음에도 아직까지 여성들에게 그리 대중적인 브랜드는 아닌 것 같다. 앞으로 여성용 워치 시장을 키울 계획이 있는가? 미도는 패션 워치 브랜드가 아닌 전통적인 시계 브랜드로서 기계식 무브먼트 시계를 중심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소비자는 미도가 남성적인 브랜드라고 생각하고, 특히 여성 소비자에게 어려운 브랜드로 인식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흔히 남성은 여성에게 시계를 선물하지 않지만, 여성은 남성에게 선물로 시계를 구매하지 않나요? 사실 이런 이유로 여성에게 미도를 더 많이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웃음). 앞에서 말한 비와 같이 여성 소비자들만의 소비 성향이 상충하면서 오토매틱 워치에 대한 관심과 구매력이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미도에서는 이에 발맞추어 여성 소비자도 선호하는 우아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여성용 워치 라인을 강화했고, 특히 올해는 커링 워치 라인을 많이 선보였습니다.

Q7 스위치 그룹 내에서 미도가 보유한 경쟁력과 남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되는가? 사실 스위치 그룹의 모든 시계 브랜드는 최고 퀄리티의 무브먼트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브먼트를 어떠한 디자인으로 표현해내는 가 하는 것도 브랜드의 퀄리티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죠. 미도의 특별함은 다이얼과 백 케이스를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최고급 시계에서만 볼 수 있는 제네바 스트라이프와 블루 스크롤을 장식한 무브먼트, 기호에 패턴의 다이얼이 미도가 하이 퀄리티 시계임을 지루하는 요소입니다.

Q8 미도의 다양한 워치 컬렉션 중 당신이 가장 애용하는 시계는 무엇이고, 매일 착용하는 시계는 무엇인가?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시계는 커맨더 컬렉션의 블루 다이얼 크로노그래프 워치입니다. 가장 처음 착용한 미도의 시계가 바로 커맨더 컬렉션이었죠. 커맨더는 매우 스타일리시하며 편안한 착용감이 돋보이는 시계예요. 칼리버 60 무브먼트를 장착해 60시간까지 파워 리저브가 가능한 것 또한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애디터 권유진 (바젤 현지 취재)

keep the Time

보기만 해도 흐릿한 시계 컬렉션의 소장 가치를 높이고, 컬렉터의 자부심까지 채워주는 워치 액세서리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위 빨간 박스부터 시계 방향으) 약 100년 전 만들어진 최초의 워치 박스, 천연 양새와 최상급 약이 박스로 제작된 견고한 동시에 고급스럽다. 간헐한 레드 컬러로 화창대 위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해도 손색없다. 9백만원대 **콜롬보**, 문의 070-7130-9200 매관하고 부드러운 가죽의 소가죽 워치 케이스, 고급스러운 브라운 컬러로 부피도 크지 않아 출장이 적은 비즈니스맨에게 추천한다. 30만원대 **오메가**, 문의 02-511-5797 워치 박스 안에서는 **해밀턴**, 오토매틱 시계를 소장하고 있는 이들에게 유용할 워치 와인더, 시계를 잘 보관다 시간을 맞추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준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블랙 큐브 디자인과 오메가 로고를 각인한 패턴이 인상적이다. 1백만원대, 워치 와인더와 안에 세팅한 시계 모두 **오메가**, 시계를 오랫동안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최고급 약이 가죽 케이스에 보관하자. 약이 가죽 특유의 디테일이 살아 있는 시계 케이스로, 남성미가 느껴지는 컬러가 매력적이다. 1백41만원 **신타이로 콘셉트스 by 본더샵**, 문의 02-3444-3300 루이 비통의 대표적인 크로노그래프를 일련 시계 케이스, 7만여 개 돌돌 말아 여행 7월에 꼭 넣어도 좋다. 1백만원대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64 케이스 안 왼쪽 시계는 **발기니**, 오른쪽 시계는 **부세론**, 고급스럽고 묵직한 우드 박스 안에 레드, 옐로우, 블랙, 브라운 등 4개의 어반 스트랩이 포함되어 있는 워치 박스, 7분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어 실용적이다. 울트라 슬림 워치 포함 2천5백만원대 **블랑팡**, 문의 02-2230-3868 에디터 **권유진, 김지혜**

Progressive Spirit

해밀턴은 2015년 바젤월드에서 새로운 동력원을 공개했다. 스위스 메이드의 자사 무브먼트 H-32와 H-10-S, 그리고 H-41° 무브먼트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전설적인 로커 엘비스 프레슬리의 80세 생일을 맞아 선보인 벤추라 엘비스 80°부터 스칼레톤을 적용한 '재즈마스터 스칼레톤 레이디'까지, 해밀턴의 모든 비전을 만나보자.



영화속 드림 워치, 해밀턴 벤추라

벤추라는 해밀턴의 대표 모델이다. 출시 당시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엘비스 프레슬리마저 매혹시킨 최초의 전자시계다. 그리고 2015년 벤추라는 올해 1월 8일 80세가 되는 엘비스 프레슬리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한 벤추라 엘비스 80°으로 재해석되었다. 대담한 선이 돋보이는 삼각형 케이스의 벤추라 엘비스 80°의 동력은 80시간 파워 리저브를 자랑하는 해밀턴 자사 무브먼트 H-10에 의해 공급된다. 새로운 성능과 소재, 그리고 기술력을 집약한 이 시계는 오토매틱 무브먼트와 퀴즈 무브먼트 중 선택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소재에 주목할 만한데, 올 블랙의 오토매틱 버전은 PVD 케이스와 스포티한 러버 혹은 스틸이 돋보이는 레더 스트랩을 선보였고, 스테인리스 스틸 버전은 세 가지 퀴즈 무브먼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바젤월드에서 매력적이라고 꼽힌 또 하나의 위치는 카키 크로노 월드타이머. 전 세계 주요 24개 도시의 표준 시간대를 정확하게 표시하는 기능을 갖췄다. 이 제품의 동력원은 새롭게 선보인 칼리버 H-41° 퀴즈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다. 곡에 비해 조종사인 니콜라스 이바노프(Nicolas Ivanoff)와 협력해 개발한 이 시계는 비행기 조종석에 있는 레이더 화면을 연상시킨다. 파일럿에게 정확한 시간을



확인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10시 방향의 푸셔는 크로노그래프 기능과 월드타이머 기능을 전환하는 스위치다. 여섯을 짧게 누르는 것만으로도 국제표준시(UTC)가 표시된다. 여성용 컬렉션은 레일로드와 재즈마스터 컬렉션을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네이비 블루부터 페트롤 블루까지 다양한 블루 컬러를 해석해 시계에 적용했다. 창립했을 당시 해밀턴은 크로노미터급 화중시계를 선보이며 공인 철도 시계 제조사라는 영예를 얻기도 했다. 당시에 선보인 화중시계를 모토로 레일로드 레이디 퀴즈 위치를 탄생시켰다. 영롱한 푸른빛 자개 다이얼의 '레일로드 레이디 퀴즈' 위치는 페트롤 블루 레더 스트랩과 스테인리스 스틸 버전의 브레이슬릿을 손쉽게 교체할 수 있어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하다. 이 시계는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베젤 혹은 12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다이얼의 두 가지 버전으로 선보인다. 탁월한 기술력과 섬세한 공정을 요하는 스칼레톤은 시계의 기계적인 아름다움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다. 자개 다이얼에 오픈워크 기법을 더해 칼리버 H-20-S 무브먼트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재즈마스터 스칼레톤 레이디 위치는 여성용 시계로서 또 다른 미를 자랑한다. 총 68개의 영롱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베젤로 극강의 품격을 드러낸다. 문의 02-3149-9593

완전히 새로운 무브먼트의 등장

2015년 바젤월드에서 해밀턴은 새롭게 개발한 3개의 자사 무브먼트와 벤추라를 오픈주한 벤추라 엘비스, 그리고 새로운 무브먼트를 탑재한 월드타이머 크로노와 레일로드 스칼레톤 위치, 그리고 여성용 컬렉션까지 선보여 다양한 시도를 엿볼 수 있었다. 그중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것은 올해 해밀턴이 새롭게 개발한 세 가지의 자사 무브먼트를 공개했다는 사실이다. 해밀턴의 우수한 기술력과 심미성을 겸비한 두 가지의 오토매틱 칼리버 H-32와 H-10-S, 크로노그래프와 월드타이머 기능을 결합한 퀴즈 칼리버 H-41° 무브먼트가 바로 그것이다. 이들 무브먼트는 새롭게 선보인 시계에도 적용되어 해밀턴의 새로운 동력임을 입증했다. H-32 오토매틱 무브먼트는 정교하고 세련된 구조가 돋보이는 무브먼트로, 카키 네이비 파이어니어 스몰 세컨즈의 시스루 케이스 백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정교한 달팽이 패턴, 자개 소재

와 어우러진 이 무브먼트에 로터의 스칼레톤 구조가 결합되어 한층 우아하다. H-10-S는 새로운 모델 레일로드 스칼레톤 시계를 지원하는 완벽한 동력이다. 스칼레톤화된 다이얼을 통해 복잡하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무브먼트를 확인할 수 있다. 베렐에서 탈진기까지 전체적으로 개선된 역동적 체인으로 80시간 파워 리저브 기능을 지원한다. 특히 탈진기 레굴레이터를 역제해 신뢰성과 정밀성을 높이고 일반 표준 무브먼트 동력보다 작동 용량을 2배로 늘렸다. H-41° 퀴즈 무브먼트는 24개의 타임 존에 달하는 월드타이머 모드와 파일럿 크로노그래프 모드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월드타이머 모드로 설정된 상태일 때는 손쉬운 양방향 조정으로 선택된 지역의 현재 시간

1 모던하고 대중적인 시계로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해밀턴. 2 영화 '인터스텔라' 속에서 실제 소품으로 사용된 해밀턴 워치. 전 100억에 의해 시계는 이미 전 세계를 진동한다. 3 바젤월드에서 새롭게 선보인 H-10-S 무브먼트. 매년 다양한 무브먼트를 선보이는 것이 스와치 그룹에 속한 해밀턴의 자력이다. 4 2015 바젤월드의 주요 제품인 벤추라 엘비스 80. 5 카키 크로노 월드타이머. 6 재즈마스터 스칼레톤 레이디.

이탈리아 디자인
정확한 스위스 메이드



Quatre Radiant Edition

지난 2013년 파리 방돔 광장 부쉐론 매종 오픈 1백20주년을 기념해 선보인 '레디언트 에디션'은 방돔의 역사 깊은 자갈길에서 영감을 받은 클루드 파리 문양을 사용해 볼륨감이 느껴지도록 완성했다. 가장 그래픽적이고 대담한 라인으로 손꼽힌다.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쿼트르 쿼미에르 화이트 골드 밴글, 쿼트르 레디언트 화이트 골드 밴글, 다이아몬드와 옐로 골드를 세팅한 쿼트르 쿼미에르 옐로 골드 밴글, 쿼트르 쿼미에르 옐로 골드 쉘리테어 링, 쿼트르 레디언트 에디션 화이트 골드 링, 쿼트르 쿼미에르 화이트 골드 쉘리테어 링, 쿼트르 레디언트 에디션 옐로 골드 링, 쿼트르 쿼미에르 화이트 골드 웨딩 밴드, 쿼트르 쿼미에르 옐로 골드 웨딩 밴드.

Quatre Classic Edition

남녀 모두에게 꾸준히 사랑받아온 클래식 라인인 SNS 스타들이 착용한 사진만으로도 그 인기를 실감케 한다. 기하학적인 패턴과 어우러진 달콤한 초콜릿 브라운 컬러의 골드가 특별함을 더한다.

(위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씨랭킹크 골드 쉘리테어 링과 웨딩 밴드, 쿼트르 클래식 다이아몬드 라지 링, 쿼트르 클래식 웨딩 밴드, 쿼트르 클래식 쉘리테어 링, 쿼트르 클래식 스몰 링, 쿼트르 클래식 체인 브레이슬릿, 쿼트르 클래식 다이아몬드 스몰 링, 쿼트르 클래식 다이아몬드 웨딩 밴드.

modern & Bold

아시안스타트 박예미

프랑스어로 '4'를 뜻하는 의미 그대로, 오직 네 가지 소재의 골드와 모티브로 표현한 부쉐론의 쿼트르(Quatre) 컬렉션. 레이어링한 듯 세련된 링에는 파리 방돔 광장에서 시작된 부쉐론의 1백50년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정교한 세공 기법과 독특한 문양의 조합만으로 소장 가치가 높다. 클래식함과 모던함, 심플함과 화려함을 모두 갖추어 드라마틱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부쉐론의 시그니처를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Quatre White Edition

클루드 파리 문양을 화이트 세라믹으로 표현한 매력적인 '화이트 에디션'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를 연상케 한다. 정교한 세공이 화려한 빛을 발산해 우아하고 페이난한 무드를 완성해준다.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쿼트르 화이트 에디션 아이링,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쿼트르 화이트 다이아몬드 라지 링, 쿼트르 화이트 다이아몬드 스몰 링, 쿼트르 화이트 미니 링 밴드 네크리스, 스케어 형태의 쿼트르 화이트 랙랑글러 밴드 네크리스, 손쉽게 밴드를 교체할 수 있는 리플렉 미디엄 옐로 골드 워치, 쿼트르 화이트 라지 링, 쿼트르 화이트 쉘리테어 링, 쿼트르 화이트 다이아몬드 웨딩 밴드, 쿼트르 화이트 웨딩 밴드.

Quatre Black Edition

화이트와 블랙의 조화가 품격 있는 텍스처를 입은 남자를 담은 블랙 에디션. 세련된 남성이라면 한눈에 반할 깔끔하고 시크한 무드로 깊이감이 느껴진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쿼트르 블랙 스몰 링, 쿼트르 블랙 라지 링, 애플어 38mm 화이트 다이얼 워치, 쿼트르 블랙 웨딩 밴드, 쿼트르 블랙 다이아몬드 스몰 링, 골드를 고아서 만든 씨랭 화이트 골드 웨딩 밴드, 씨랭 화이트 골드 쉘리테어 링, 쿼트르 클래식 쉘리테어 링, 쿼트르 클래식 다이아몬드 스몰 링, 쿼트르 클래식 체인 브레이슬릿, 쿼트르 클래식 다이아몬드 웨딩 밴드, 쿼트르 클래식 다이아몬드 웨딩 밴드.



바젤워드는 세상의 모든 시계를 모아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규모의 위치 박람회다. 하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첫눈에 반하게 되는 시계는 복잡한 시계도, 완벽한 시계도 아닌 장인이 빚어낸 눈부시게 아름다운 시계다. 이처럼 궁극의 아름다움과 시계로서의 가치를 모두 겸비한 메티에 다르(Metiers d'Art) 컬렉션을 만나보자.

시계 예술의 끝을 보다

손톱만 한 시계 다이얼을 캔버스 삼아 그 위에 사람 머리카락 한 올 두께의 얇디얇은 붓으로 아름다운 풍경을 그려 넣거나, 손으로 잡기도 어려운 얇은 금속을 망치로 두드리고 조각칼로 깎아 불상이나 풍속도를 구현하기도 하는 메티에 다르(Metiers d'Art) 컬렉션. 기술을 뛰어넘는 예술이라는 의미를 지닌 메티에 다르는 단어의 뜻 그대로 차가운 기계에 시계 예술이라는 마법의 터치를 더해 아름다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이다. 가격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 국보급 장인들의 예술혼과 숭고한 정신을 그대로 담은 이 아티스틱 위치는 이번 바젤 페어에서 소개된 그 어떠한 시계보다도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에 충분했다. 매년 많은 위치 브랜드들이 시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보다 진보된 무브먼트로 시계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는데, 기술력을 더욱 아름답게 표현하는 메티에 다르 역시 시계 브랜드의 자부심과 시계 예술을 보존하기 위한 브랜드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컬렉션이다. 실제 몇몇 브랜드에서는 박람회장 부스에 장인을 초청해 직접 아트 과정을 시현하기도 했다. 35mm가 채 되지 않는 작은 다이얼 위에 현미경으로 보아야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는 정교한 그림과 금속공예를 더하는 장인의 작업을 보고 싶노라면 시계 예술에 대한 경이로움을 직접 느끼게 된다. 전자시계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1970년대, '쿼츠 파동'이라 불리며 많은 기계식 시계 브랜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전 세계적인 불황까지 겹치면서 에나멜러를 포함한 수많은 시계 장인 역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블랑팡, 파텍 필립, 지라드 페리고 등 몇몇 시계 브랜드들은 벼랑 끝에 몰린 매뉴팩처와 장인을 보존하는 데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이런 노력이 있었기에 현재 우리가 이 아름다운 타임피스들을 직접 감상할 수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시계 역사와 함께해온 메티에 다르 컬렉션은 매년 점점 진화하고 있다. 에나멜 작업부터 자기공예, 상감기법을 사용한 금속공예, 실제 나비 날개의 가루를 사용하거나 거위 털을 부착한 위치까지 등장했을 정도다. 장인 정신과 숙련된 전통을 이어나간 고집과 시계 예술에 대한 집념을 엿볼 수 있는 메티에 다르 컬렉션의 진수는 다음에 소개하는 위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실과 패브릭으로 우아하게 풀어낸 아트 피스, 샤넬 화인 주얼리

바젤워드로서 샤넬 화인 주얼리만큼 화려한 브랜드를 찾을 수 있을까. 특히 올해는 화려한 의 극치라는 표현이 절로 나올 만큼 가장 우아한 샤넬의 아름다운 테마를 시계에 그대로 옮겼다. 샤넬에 있어 우아한 빛이 감도는 패브릭과 실은 그들을 가장 잘 표현하는 자연스러운 언어다. 이번 바젤워드로서 샤넬 화인 주얼리는 역사 깊은 패션 브랜드의 근본을 담아 이를 시계에도 유연하게 풀어내 감탄을 자아냈다. 대표적으로 오토 쿠티르 드레스를 만들 듯 실 크 다이얼에 다이아몬드를 자수 기법으로 세팅한 마드모아젤 프리베를 꼽을 수 있다. 이는 샤넬 하우스에서 인수한 유서 깊은 자수 공방인 프랑스 크리스주 공방에서 정교한 수작업으로 완성한 것으로, 37.55mm의 작은 다이얼 표면에 카멜리아와 코페트 모티프를 작은 바늘로 한 땀 한 땀 수놓았다. 금을 흠뻑려놓는 것이 아닐까, 하는 착각이 드는 이 완성품은 샤넬의

모든 노하우가 결집된 아트 피스다. 이와 함께 새로운 메티에 다르 기술을 엿볼 수 있는 마드모아젤 프리베 포르망델도 주목할 만하다. 아주 가볍고 얇은 금속을 나뭇가지 형태로 커팅해 세이핑과 인그레이빙 작업을 통해 나무껍질의 느낌을 리얼하게 살려냈는데, 실제로 보면 그 사실적인 디테일에 놀라게 된다. '역시 샤넬'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우아하고 아름다운 화법은 바젤에서도 여지없이 빛났다.

자연을 품은 러프 다이아몬드, 부쉐론

부쉐론의 부스에 들어가기에 앞서 드는 기대감은 '이번에는 어떤 아름다운 하이 주얼리 위치를 선보일까'라는 것이다. 부쉐론은 올해에도 역시 그 기대에 부응할 만큼 놀라운 타임피스를 선보였다. 부쉐론의 공방이 위치한 방돔 광장의 상징적인 자갈길을 다이얼에 재현하고, 그 위에 세 줄기의 아이비를 꽃피운 것, '리에르 드 루미에르'의 다이얼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 자갈길은 무엇으로 만든 것일까 궁금증을 유발시키는데, 이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가공하지 않은 다이아몬드를 모자이크하듯 자갈 모양으로 세팅한 것이다. 더불어 이 아름다운 다이얼 위에 플라이 투르비용을 배치했다는 점은 1백50년의 역사를 지닌 주얼리·위치 공방을 보유한 브랜드이기에 구현 가능한 기술적 기량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현대적인 매력을 담은 예술품, 루이 비통

루이 비통이 처음 시계를 선보였을 때 과연 어떤 진보를 이룰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었지만 '에스칼 타임 존'은 모든 시계 전문가들이 인정할 만큼 컬러의 향연을 보여주는 그래픽적인 시계의 상징이 되었다. 여행을 주요 테마로 하는 루이 비통의 철학과 미학적 코드를 그대로 고수해 여행용 트렁크를 맞춤 제작할 때 사용했던 기하학적 인 모티프를 아낌없이 적용한 점이 돋보인다. 실리콘 코팅한 고무 스텝프를 이용해 비어 있는 다이얼에 컬러 페인트를 하나하나 정교한 수작업으로 채워 넣은 것이 특징. 로컬 타임을 보여주는 중앙의 작은 세로 창과 다이얼 가장자리에 위치한 도시의 이니셜이 이 시계의 상징이다. 이는 여행을 테마로 하는 브랜드 철학과 일맥상통하는 현대적인 매력을 담은 예술품이라 정의할 수 있다.

무브먼트 자체를 예술로 승화, 자라드 페리고

지라드 페리고의 빈티지 위치는 시계 마니아라면 감탄할 수밖에 없다. 2백년이 넘는 브랜드 전통을 가장 잘 표현한 아주 임제적인 무브먼트, 그리고 그 무브먼트 자체를 예술로 승화하는 것은 빈티지 1945 스리 골드 브리지 투르비용이다.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는 3개의 브리지가 다이얼에 아름답게 피어난 디자인으로, 이는 브랜드의 상징 그 자체다. 여기에 아르데코 스타일 장식을 더해 클래식한 정수를 보여준다. 시계 역사에서 '스리 골드 브리지 투르비용'처럼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상징적인 위치메이킹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이는 기계적으로 뛰어난 것은 두말할 것 없고,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이 컴플리케이션 위치를 원하는 사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아티스틱 위치다.

일본 대가의 붓 놀림으로 완성한 자기 다이얼, 에르메스

자기공예의 대가이자 일본의 무형문화재로 손꼽히는 장인 부잔 후쿠시마가 바젤워드를 사로잡았다. 에르메스는 이번 바젤 페어에서 시계 역사상 최초로 프랑스 자기와 일본 아가에 기법을 결합한 '슬림 테르메스 고마쿠라베'를 선보였는데, 이것이 바로 부잔 후쿠시마가 탄생시킨 진귀한 예술 작품이다. 언제나 동양에 대한 테마, 특히 일본에서 영감을 받아 다채로운 아시아적인 컬렉션을 선보이는 에르메스에서 일본의 대가를 바젤에 직접 초대한다는 소식은 많은 언론 매체들의 인터뷰 요청이 쇄도할 만큼 큰 이슈였다. 그가 탄생시킨 고마쿠라베 컬렉션은 1천 년 넘게 이어져 내려온 일본의 전통 말타기 경주 축제인 고마쿠라베의 정경을 다이얼에 아름답게 재현한 것으로, 이는 각기 다른 정취를 담은 12종류의 자기 다이얼로 선보인다. <스타일 조션 일보> 팀은 운이 좋게도 부스 한편에서 그의 작업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 이날 처음 접한 아가에(赤繪, 적화) 기법은 아주 가는 붓을 이용해 붉은 선으로만 채색하는 일본의 전통 자기공예 방식. 프랑스 세브르 공방에서 완성한 아주 작고 매끈한 자기 다이얼 위에 일필휘지로 거칠없이 스승 터치하는 장인의 붓 놀림은 놀라운 그 자체였다. 이와 더불어 대표작인 메티에 다르 기법으로 꼽히는 인그레이빙과 에나멜링 기법을 적용한 '케이프 코드 지브라 페가수스' 역시 장인들의 정교한 손길에 느껴지는 작품이다. 인그레이빙과 에나멜의 조화가 이룩어낸 색과 빛의 풍부함, 그리고 기아 공정을 한 차례씩 거칠 때마다 더더욱 깊고 진해지는 생동감은 기계식 시계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이처럼 장인의 뛰어난 재능을 예술로 승화하는 것은 바로 브랜드의 힘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에르메스라는 조력자가 없었다면 장인들 역시 이 멋진 아트피스를 완성할 계기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자본력을 갖춘 브랜드와 장인의 만남은 시계와 예술의 발전, 나아가 인류 문화의 발전까지 아우르는 원동력이 되어준다.

금속공예로 부활한 전설적인 힌두 신, 블랑팡

이미 강렬한 디자인만으로도 시선을 압도하는 블랑팡의 '사쿠도 컬렉션'은 일반적인 시계 브랜드에서는 쉽게 시도하지 않는 금속공예를 적용해 신선함을 더했다. 특히 서양에서는 볼 수 없는 무속 신앙의 기운과 종교적 색채가 묻어나는 힌두 신, 가네시를 모티프로 선택했다는 것이 단연 돋보인다. 코끼리 머리 형상을 한 가네시는 힌두교에서 장애물을 극복하고 부활을 뜻하는 신으로, 역사 속에서 사라질 뻔하다 회생한 블랑팡의 역사와 오버랩되며 그 의미를 한층 극대화한다. 중앙에 놓인 골드 소재의 왕좌를 손으로 일일이 인그레이빙하는 방식으로 형상화했으며, 섬세하게 디테일을 살린 이 장식적인 요소들은 상감기법을 통해 정교하게 완성되었다. 짙은 청록색을 띠는 다이얼에는 일본이 원산지인, 구리와 금을 합금한 사쿠도를 사용했는데, 구리아세틸리드 성분으로 이루어진 로쿠쇼 용액에 담그는 횡수에 따라 검은 빛갈이 점차 더 깊고 강해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일본에서 전해져오는 고대 방식을 적용하며 금속공예 기술에 대한 매뉴팩처의 전문성을 보여준 블랑팡의 타임피스는 장인이 수작업으로 완성하는 만큼 각기 다른 컬러, 인그레이빙 스타일을 담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유니크한 아트피스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다. 에디터 권유진 (바젤 현지 취재)

1, 2, 4 샤넬 화인 주얼리 마드모아젤 프리베 포르망델의 작업 과정과 완성된 시계의 모습. 기아에서 들여오면 너무도 섬세하고 정교한 나뭇가지의 디테일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3 실 크 다이얼 위에 자수 장인이 작은 바늘로 한 땀 한 땀 새겨 넣은 다이아몬드와 진주 장식이 한 벌의 오토 쿠티르 드레스를 감상하는 듯하다. 5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러프 다이아몬드로 방돔 광장의 자갈길을 다이얼에 표현한 부쉐론 리에르 드 루미에르. 6 과거 트렁크 제작에 사용된 다채로운 컬러와 기하학적인 모티프를 아낌없이 적용해 현대적인 예술품을 완성한 루이 비통 '에스칼 타임 존'. 7, 8, 9 자라드 페리고의 상징인 3개의 브리지를 다이얼에 아름답게 옮겨놓은 빈티지 1945 스리 골드 브리지 투르비용 위치. 모두 장인의 수작업으로 완성하는 이 시계는 무브먼트 자체를 예술로 승화한 아트 피스다. 10, 12, 13 자기 공예의 대가이자 일본의 무형문화재로 손꼽히는 장인 부잔 후쿠시마가 직접 바젤워드로서 시현한 작업 과정. 그가 이번에 선보인 '슬림 테르메스 고마쿠라베'는 일본의 말타기 경주 축제인 고마쿠라베의 각기 다른 정취를 담은 12종류의 자기 다이얼로 선보인다. 11 정교한 인그레이빙과 에나멜링 기법을 적용해 생동감 있는 일렉트라 페가수스 패턴을 완성한 에르메스 케이프 코드 지브라 페가수스. 14 금속공예의 정수를 보여주는 '블랑팡 사쿠도' 컬렉션.

OMEGA



BOUCHERON



CHRONOSWISS



TISSOT



ZENITH



HAMILTON



BVLGARI



BREGUET



BLANCPAIN



CHAN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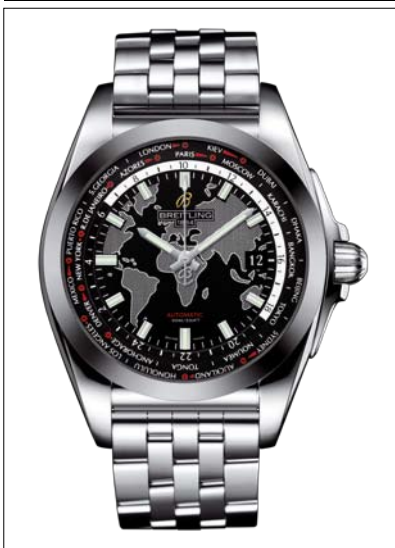
GRAFF



HUBLOT



BREITLING



FENDI



RADO



MIDO



HERMÈS



SWAROVSKI



LONGINES



DIOR



TAGHEUER

